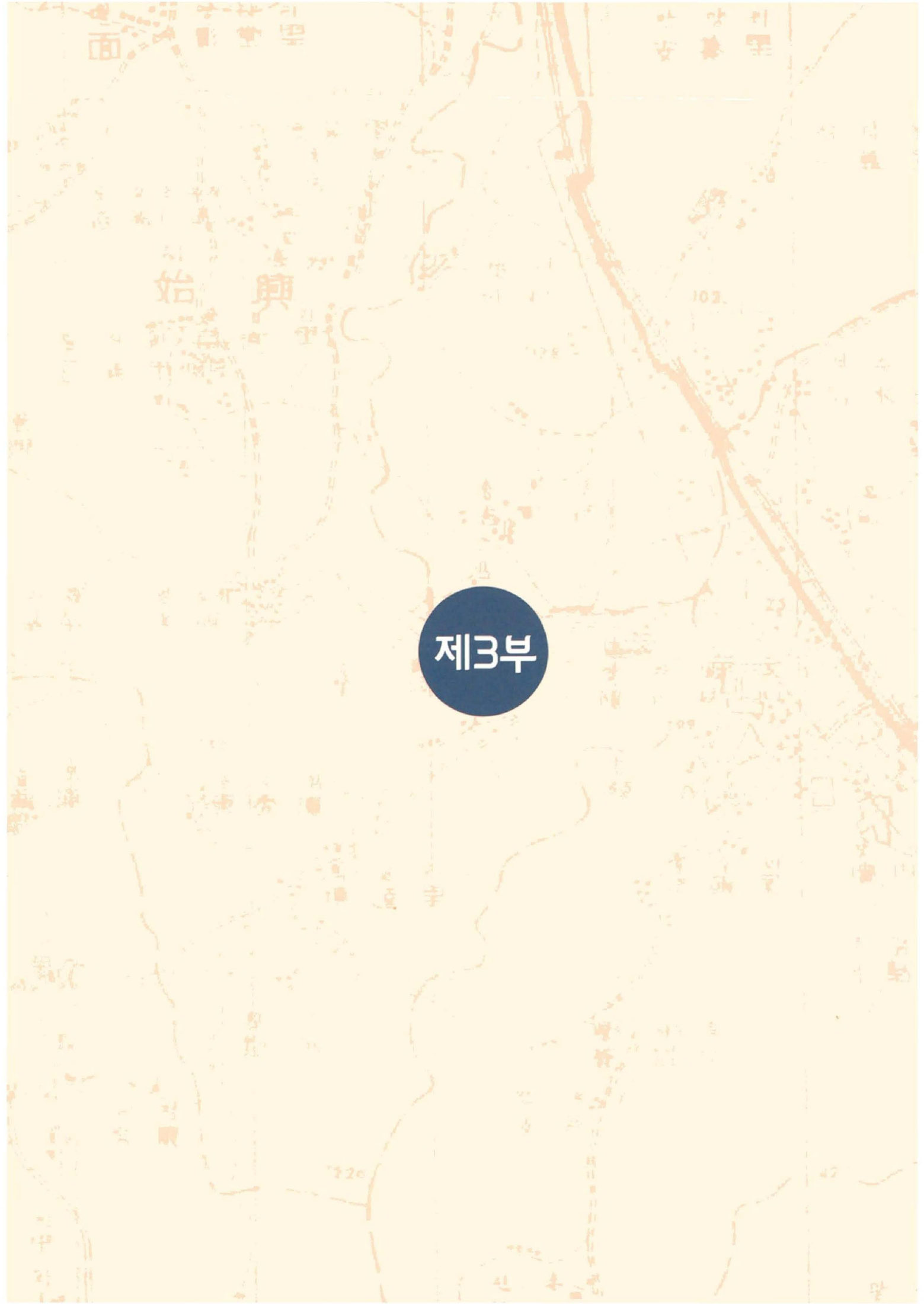




제3부



안양의 삶을 읽다

여백

구술생애사

서민의 애환이 서린 삶의 터, 중앙시장 중앙시장번영회 회장 장용준

예전부터 동네의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사는 곳, 재래시장 채소 과일을 팔고 사는 새벽 도매시장이 끝나면 만인만색의 사람으로 채워진 생활공간이 된다 국적 불명의 떠리 떠리 라는 외침과 고등어 사세요 라는 가냘프고 수줍은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콩나물 한 줍에 실랑이를 버리면서 삶의 호흡을 맞추던 곳이 재래시장이다

안양 중앙로를 기준으로 안양1번가 상권 맞은 편에는 중앙시장 상권이 있다 이곳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 속한다 1926년 안양시장이 개설되며 1940년대 안양장과 1960년대 안양우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1960년 9월 화재로 11월 안양4동에 안양공설시장이 개설되었다 그 후 1970년대 상설시장으로 변모하면서 안양 최대의 재래시장으로 발전하였다

중앙시장은 재래시장 중심의 상권으로서 식품 및 생필품 위주의 도소매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곱창 골목 등을 포함한 한식점들과 포장마차식 주점들이 분포하여 상권 뒤편에는 미용과 댄스, 스포츠 학원들이 입점해 있다 유동인구는 40-50대 여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시장은 도심 재래시장이다 도시가 규모를 늘리기 전부터 있던 시장이다 아니 도시의 성장과 함께 시장의 규모도 커졌다 중앙로가 건설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었으니 도로가 시장을 잉태한 셈이다 교통의 발달로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은, 일명 '목이 좋은 자리'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 형성된다 시장 길거리에서 상점과 물건, 사람이 만난다 시장은 북적이는 사람들과 다양한 상품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1970년도에 안양과 인연을 맺다

용인에서 20살까지 있었고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교에 다녔어요 자취도 하고 전적 집에 서도 있고 내가 온 지가 70년도이지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그 이전에 이 안양에 대한 건 잘 모르고 내가 온 후부터 그 이전은 70년 이전의 문제는 내가 잘 모르고 이 건물이 61년도에 지어졌던 거예요 이 건물의 전신이

흐르는 물처럼 안양에 터를 이루다



상업도로 795-14
1972년 중앙시장 노점장사

(생각에 젖으신 듯)어찌하다 보니 주위 사람들
을 통해 여기까지 오게 됐고 장사하러 다니다가 70년
도에 여기 오게 됐지

처음에는 내북 메리야스 이런 거부터 시작했
어 고생했지 인생이라는 자체가 고생인데 대통령도
고생했고 부잣집 자식들도 고생을 했고, 고시생도 고
생을 했지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유학 갔다 오면 더

고생이고 이거 다 고생하는 거지

중앙시장에서 물 흐르 듯이 들어와 자리 잡은 그는 20년 동안의 노점장사를 밀천으로
행복한 살림을 꾸렸다

결혼은 34살에 했어 89년도에 20년 동안 노점하고 조금씩 저축하고 가게를 샀어 한 20
년 걸렸지 애들 셋을 다 가르치고 결혼은 경제랑 연결되는 거지 살기 힘들면 결혼이 늦어지고
여기(중앙시장) 일하면서 만난 아가씨와 결혼했지

안양에 왔을 당시의 상황은

70년도니까 시로 승격이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시장에는 두 건물만 서 있고 또 이게 시
장이니까 여기 옆에는 전부 다 주거지역이었지 그래서 이게 족보를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지
또 허가도 안 됐고 다시 또 허가를 못 내죠

안양에 시장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지

이게 장사가 잘되고 이 주위에 안양시의 시장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 당시에
지금의 평촌 동안구 거기 같은 데는 전부 다 논밭이었으니까 이 시장을 보기 위해서 큰



1970년대 평촌 모습

거리의 반경 거의 4km² 여기서 과전 사람들 전부 여기
로 왔어요 시흥군도 넓지만 그때는 여기가 장사가 잘
됐어요 주변에 주택가는 많지 않았지 근데 여기가 활
성화되면서 도시집중화가 되기 시작했어

71년도에 안양시로 승격됐어 그때 7만 이상이
니까 (시 승격 기준이) 시가 18만인가? 이게 아무튼 인

구가 시로 승격됐는데, 시장이 이거밖에 없고 다른데 허가 내주지도 않고 장사에 대한 건 그렇게 평가 안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만 했거든 그러니까 장사가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갔어

그땐 1층 건물에 상점이 100개가 넘었어

그때 당시 1층 건물이었는데 가건물이야 아마 그때도 한 100개(상점)가 넘었을 거야
그때 물건들은 공산품이지 식생활 식품 같은 거는 자급자족이 다 됐잖아 지금 하고 반
대야 농사 잘되지 고구마 가져와서 다른 거 바꿔가고

그러면서 장용준 회장은 당시 장사 중에 가장 잘 된 장사는 옷 장사라고 한다

입는 게 최고지 옷 장사가 최고지 우리 어렸을 적에는 양말 하나 애들 것이 기본이야
더 올 돈도 없지만, 지금은 양말이 패션이지만

옷이 공산품이니까 옷하고 한복 포복이지(잘 됐지)

포복 같은 것이 90년대 초까지 아무래도 중간서부터 많이 쇠약해지고 포복 쪽은 여기 3
분의 1도 안 남았지 옷도 그래 지금은 먹는 것 그게 재래시장이 지금 거의 요기 시장 안에 18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재래시장의 주종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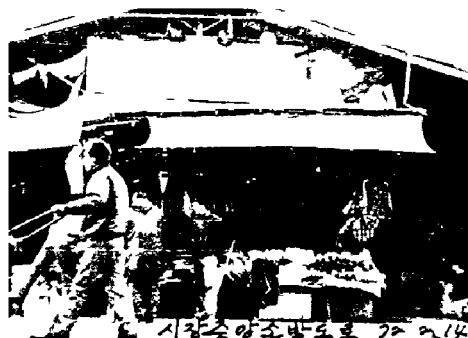
당시 시장 모습이

처음에 가건물 두 개가 있었어 가건물이 지붕은 스텔트고 기둥을 나무로 하고 가운데를
시멘트로 했지 꼭대기만 이렇게(지붕) 이어가지고 가건물은 아닌데, 실제 건물을 지을 때 허술
하여서 다 쭉기도 하고 그랬어 2003년에 저쪽 건물을 헐어서 우리가 지을 때 (지붕에) 올라가
면 버석버석했어 그래서 허가받고 다시 짝 개축했어

82년도에 헐어가지고 새로 짓고 요거(현 번영회 상가)는 신축을 못 하고 돈 줄 거니까
그냥 있다가 DJ정권 때 재래시장특별법이 만들
어져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축을 했어요 옛날
금방 쓰러질 것 같던 것을 다시 재건축했어

버스 타고 서울 가서 물건 떼다 팔았지

내가 70년에 와가지고 그 당시 여기서 런



시장중앙조방도로 72-2-14
1972년대 중앙시장 건물



1972년대 중앙시장 골목

닝서즈라고 속에 팔 없는 것도 있고 팔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 팔았지 그때는 저기 서울의 신설동에 가면 섬유공업이 가내공업이 엄청 발달됐어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경화시장이 도매시장이지 그 당시 가내공업으로 해서 그 당시 브랜드 원가가 250원이면 (소매가) 500원 800원 이래 런닝 하나에 3분에 1 가격도 안 되니 거기서 떠다 팔았지

그 당시 서운까지 가는 버스가 있었어 새벽에 전능동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서울운동장 앞에 가서 내렸지 (버스에) 자장들이 있었는데 손님이 많으면 안태워주고 오라이 하고 그랬지 어떤 아가씨들은 잘 태워줬는데 눈지껏 해가지고 타지 어떤 때는 바쁘니까 타려고 하면 보따리까지 있어 자장이 (사람들이) 못 앉는다고 보따리 있어서 못 타고 두세대 지난 다음에 타고 그랬지 (승차시간이)한 시간 넘게 걸렸어

그렇게 한 이십 년을 장사했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약아지니까 여기서 봉고차를 가지고 (운전) 그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어 여러 명 모아서 몇 시에 출발한다 하면 각자 n분의 1로 나눠서 (서울로) 다녔지 그 후로는 개별적으로 승용차 한 대씩으로 다녔지

지금은 80-90%로 거의 메이커 같은 것이 많지만 그때는 없었지 가내공업 운영하는 것도 많고 평화시장,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을 주로 이용했지 경화시장 그쪽으로 가면 주로 메리야스가 있었지

중앙시장 옷장사는 서울행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직접 물건을 띠며 장사를 했다

월급날이면 물건이 바닥이 나

주변에 공장이 많이 있었어 금성방직이니 경춘에 동양나일론도 있고 하여튼 거기에 공원(工員)이 엄청 많았지 공원들이 월급 받는 날이 딱 정해져 있어 28일 받는 데가 있고 25일 받는 데가 있고, 18일 받는 데가 있고 한 달에 서너 번에 세 번인가? 네 번 월급 받는 날은 퇴근할 때쯤 되면 8시나 9시쯤 된 거 같은데 이 위에 있으면 저기서부터 걸어서 시장에 물건 사러 오는데 표현하자면 개미떼마냥 새카맣게 보여 그리고 메뚜기떼가 와서 짹 굶어먹고 가는 것 마냥 물건이 바닥이 나 월급 받는 날이면 물건을 많이 가져다 댔지 한 여덟 시 되면 몰려오기 시작해서 새카맣게 몰려든다고 개미떼같이

그때 재미있었어 한 달만 장사해도 송아지 한 마리가 떨어졌어 그때 송아지면 까지 그런데 그때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서 월급을 받으면 2만 원서부터 3만 원 한 2만 원 받았을 거야

그 당시 송아지 한 마리면 15만 원이야

유난히 대규모 공장이 많았던 안양에는 여공도 많았다 월급날이면 여공들이 개미떼 처럼 시장을 점령했다

리어카로 시작했지

리어카로(노점) 장사를 시작했지 그때 노점도 많지 않았어 단속도 심했고 점포로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이 되고 점포가게가 이런 메리야스니 뭐 이런 것들은 점포에서는 덜 팔고 까계 노점에서 많이 팔았지 (당시 사람들이) 돈도 아껴 써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싼 것) 많이 샀지

안양에는 외지인이 유독 많았다 그래도 그들은 이것저것 하면서 먹고살 수 있었다

60년대 4 19, 5 16 겪고 (일을) 여러 가지 했지 70년대 4 19 후 나고 5 19 터지고 박정희 정권이 두 번째 정권을 접고 이미 정책적인 기초가 현대사회로 진입하여 상업화, 도시집중화가 되면서 시골에서 사람들이 올라왔고, 조금 배웠던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했고, 공장에도 못 가고 직장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장사했지 그때는 맨 밑바닥 사람들 지금은 뭐 그런 게 세상이 바뀌었지만 당시 거의 안양사람보다 외지사람이 70~80%로 됐을걸

나도 장사하기 이전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하고 8남매 장남인데 돈은 벌어야 했고 그까짓 거 데모해야 아무 소용없는 거고 시장이란 시장은 안 가본 데가 없어 장사를 하면서 그게 하나의 인프라가 형성됐지 장사하면서 많은 경험이 바탕이 됐지 평택 오산 인천, 수원시장 안 간 데가 없어

오일장도 있고 시골에는 상설시장도 있고 여기는 상설시장이라 항상 열리고 여기(중앙시장) 정도는 수도권에다 거의 상설시장이지

그때 포복이 잘 됐어 한복 안감이 잘 팔렸어 안감을 서울서 받아가지고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왔다 갔다 했지 내가 버스 타고 가져와서 팔고 저녁에 수금을 가고 그러면, 빨



1972년대 중앙시장 리어카(손수레)

리 수금을 해야 하는데 9시 10시나 돼야 문을 닫아요 그때는 그래 11시는 보통이고, 추석 때 명절 때는 새벽 3시까지 밤새서 하고, 그러면 명절 때는 대목에 삼일 정도 장사가 잘돼 삼일 정도 장사하면 가게에 물건이 거의 없지

나는 의류장사니까 많이 팔래야 팔 수가 없고 서울 가면 기껏 해봐야 이만 원 삼만 원이지 그것만 팔아도 큰 거지 저녁에 수금을 하고 나면 돌아갈 자비도 없을 때가 있었어 밥 사 먹으려니까 돈이 아깝고 배는 고프고, 여기 큰길 옆에 막걸리 항아리를 묻어놓고 막걸리 바가지 하나 놓고 떠먹는데(무인가게) 200원이야 도매하는 사람들이니까 200원 신경도 안 써 그 당시만 해도 술 마음대로 못하게 했으니까 시골에서 농사지으면 힘든 일 하나까 한 말 두 말 사가야 돼 그땐 원양조장이 있고 중간도매를 그렇게 했어요 끝나는 건 7시에 끝나는데 그거(막걸리) 한 바가지 먹으면 배가 부르고 안주도 없이 소금 탁 찍어 먹고 배가 부르면 취했다가 한 두 시간 지나면 더 배고프지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이 상당히 인생에 자기를 살찌게 해 고생 없으면 인생의 참맛이 없어 요즘은 일부러 사서 극기 훈련한다는데 그건 사지지 없어서 고생해야지 진짜 고생이지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안 나 진짜 없어가지고 저절로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하면 그것이 자기 양식이 되지 않지 배가 아파서 막말로 팔명수 한잔 못 사 먹었어 아까워서 막자가 12시까지 있었고 통행금지가 있었지

한 9시, 10시 30분 끝나면 버스를 못 타게 되면 그냥(수금 못하고) 가야지

재래시장의 길을 찾다

나는 의류업이니까 셋째 일요일 날 쉬는 날이야

이제 재래시장이 침체가 되고 그러니까 1996년도 뭐야 그 세계 유통 시장개방 아냐? WTO 우리나라 유통업 개방을 시키라 그래 가지고 우루과이 협정이라고 시장을 열으라고 하니까 열수밖에 없었어 외국의 대형마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침체됐지

1999년 중소기업 활성화 뒤에 재래시장 발전시키겠다는 법이 만들어졌어 앞에 (아케이드) 이거 띄워주고 (지금) 노점이 꼭 잔 걸 갈(자) 길이 없어 재래시장 중에서 골목시장의 운명이라는 게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50-60%가 이러한 운명에 곱잡을 못하고 우리 건물에는 주차장이 있어요 자가 들어올 수가 없어 옛날에는 조그만 가게도 장사가 됐는데 요즘은 조그

만 가게는 장사가 안돼 소프트웨어 정신교육, 6시내고향도 나가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재래시장을 지금 살리려고 하는데 재래시장하고 일반 유통 마트하고 싸움이야 지금은 SSM이 재래시장 500m 안에 못하게 싸우고 입법화시켜놨는데, 그 체제나 지시가 우리는 전부 다 개개인이 하잖아, 그래서 힘들지

90년대 들어와서 시장(일)에 조금 잠깐하기 시작했지 장사하면서 힘든 거 많이 하고 싸우기도 해요 시정에도 가야 되고 전국상인연합회가 있어서 재래시장 대표들 워크숍을 일 년에 두 번 참가하고, 내년이 임기가 끝인데 2000년대 들어서 많이 힘들었지 2009년에는 재래시장이 국가에서 재래시장 지원을 전국적으로 지원했어 자기자본 30%를 하라고(지원받으라고) 했는데 다들 안 하려고 했지 내가 병원에 15일 있었어 제일 힘들었지 이런 거 아무도 몰라 정와대 영빈관에 가서 점심 얻어먹고 왔어 그리고 저(손으로 벽을 가리키며) 표창장이 저거야 안양시에서 지역 경제의 많은 공헌을 했다고 도민상 주더라고 난 안 받으려고 했는데 뭐, 제3자들이 인정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나쁠 것 없잖아 그래서 하여튼 내가 그걸 받고 나서 다 알아보더라고 그 후에 이쪽 건물 손을 봤지 81년도에 짓기 때문에 노후돼서 비도 새고 전기 배선이 엉망이야 소방시설 이걸 전부다 그 당시에는 20% 중 안양시 지원 10%, 10%(자기부담금)로 하나까 가져다 쓴 거야 비오면 빗물이 줄줄줄 새고 노후된 것을(정비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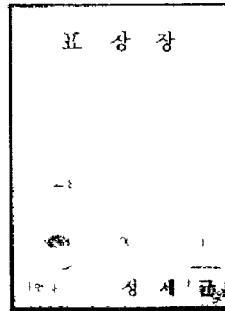
구술자 장용준(40년생, 남), 구술 일자 2011년 8월 5일



중앙시장 아케이드(2011년)



중앙시장번영회 지도



중앙시장 활성화 표창장



안양중앙시장번영회 회장 장용준

박달동의 터주, 주진동을 만나다

그 어딜 가도 그 동네를 잘 아시는 어른은 꼭 한 분씩은 계시다 일명 터줏대감 이라고나 할까? 마을 개천에서 먹 감던 코흘리개 유년시절의 아련한 기억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점점 선명해지는 듯하다 그 건 아마도 변할 만큼 동네가 변했을지라도 그 기억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지역이 넓고 확 터진 형세를 지니고 있다하여 부쳐진 동네, 박달동

구씨하고, 엄 씨하고 제일 저음 스타트로 그 지역이 된 것입니다

먼저 박달리라는 유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달동이 12 골짜기에 12 부락이 있었는데 아주 길고 넓은 골짜기가 있어서 앞이 터졌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앞뒤가 다 터진대서 모이면서 연결이 되고 그런 모양이 삼태기처럼 생겼어요 박달이라는 게 넓을 박자에 통달할 달자 아닙니까? 지역이 넓고 확 터진 형세라, 그게 박달리라는 자체가 거기에 저음으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박달리라는 명칭을 붙여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박달리라는 유래가 넓을 박 통달할 달 이 시작 되었고요

태어나기 전, 이미 그는 안양에 있었다



1960년대 박달사거리

유년기의 기억

박달동에는 태어나기 전에 여기로 이사 왔지 이 골짜기에 그때 할아버지하고 오신 거지 그래서 토대가 된 거지 농사지으시면서

이 마을이 제일 끝이 박달이고 여기는 서면으로 학생들이 서면초등학교를 4km를 걸어 다녔어요 여기서

나는 초등학교를 1학년 때 거기 서면초로 들어갔어 안가고 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양에 강습소라고 있었어요 거기로 들어갔다고 그게 안양국민학교로 편입돼서 그렇게 해서 안양 초등학교를 제가 나온 것이예요

교육열이 높은 부모님

원래가 우리 부진께서 아홉 살 때 조실부모를 하셨어요 아홉 살 때 조실부모를 하다 보니까 그 일자무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땔나무 지게를 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글방에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부러워서 집에서 숯점정으로 지게 등에다 써서 어깨너머로 배운 거야 그래서 이야기책 같은 것 보면, 정신은 이 양반이 좋아서 방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유식해도 그렇게 유식해 이야기책을 보면 삼국지 보면 말로 다 술술 하니까 한번 보면 암기력이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식만큼은 시켜야겠다고 땅을 다 팔아줘도 실력 있어야 보내준다 실력이 없으면 못 가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리고 아예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지

안양천에서 먹 감고 천렵하고

수암전도 있고 안양전도 있는데요 수암전은 농사짓는 가운데를 흘러내려 온 거라 논에 물을 전부 빼 가요 그래서 고기 잡는 데는 거기(안양전)가 많아요

수영을 안양전에서 했어요 원래가 그전에 미역 감는다고 하지 수영이라고 하지 않았지요 그때 당시에 안양전이 그렇게 넓지 않고 지금의 한 반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런 넓이도 전부 대부분 독으로 되어있었어요 대부분 독은 독으로 막아서 거기에 잔디가 짝 나고, 잡초가 나고, 그래서 그런 독으로 양쪽으로 장마가 지면 떨어져도 나가고 그런데 가서 노는데 밤이면 그저 초롱불 솜방망이에다 불붙여서 물에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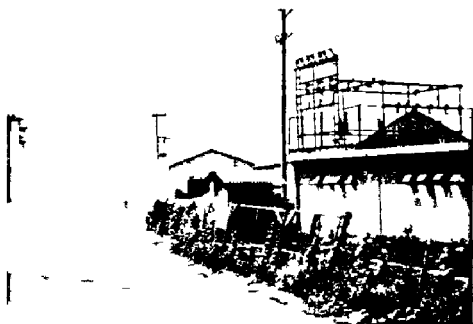
1970년대 안양전 사진 왼쪽이 박달동

올라가면, 고기가 잡니다 그래서 고기를 주워담았어요

안양천은 당시 먹감고 물놀이하고 물고기 잡던 놀이터였다

여기 부락이 여기도 몇 군데 안 됐어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요 전부 다 농사를 짓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친구라고 지금같이 놀러다니는 친구가 아니고, 시간 있으면 부모 농사 짓는데 돌봐가면서, 틈바구니에 저녁때 모여라 그러면 모이고 호두 서리도 하고 독 밑에 포도밭이 있으면 괜티도 안 입고 밭가벗고 가위하고 자루가지고 기어들어가요 포도밭에 개를 길러서 소리가 나면 개가 옆으로 가고 나면 그걸 따서 독을 넘으면, 안양천의 백사장이야 모래가 짙아서 달밤에 모래사장에 앉아서 먹고 나면 손으로 파서 묻어놓고 오고 그랬어요

봄이 오면 수암로 비포장 길에 자갈을 깔고



1970년대 박달동 비포장 길

그때만 해도 부락이 박달리로 되어 있을 거야 원래 필동이라고도 불렀어요 얼마 전에 박달이라고 불러서 된 거지 지금 이 큰길 수암로가 길이 이 자선이었어 이자선을 비포장으로 그래서 봄쯤 되면 땅이 얼었다 녹았다가 그래서 땅이 움푹움푹 패이고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스팔트는 생각도 못했을 때니까 그래서 부역이라고 다 나와서 이 자리에 말뚝을 박아 놔요 말뚝을 박아 놓으면 그 안에 돌 자갈을 쌓

아 봐야 돼 어느 날 공동으로 모여라 그러면 여러 사람이 삽괩이 가지고 씻어서 정렬을 시키는 거야

애들이 적은데(어린데) 쫓아가서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안 할 수 있나 거의 열다섯 열넷 됐을 거예요

도로 주변이 다 논밭이고 밤에 학교에서 늦어서 혼자 오면 무서워

내 외갓집이 반월인데 구반월 거기를 걸어갔어요 힘이 들어서 못 걸어가면 아버지가 등에 업고 걸어서 갔다고 그게 지금 얼마나 맴니까? 그런 상황으로 이 교통이 좋지 않았고 비포장 때는 도로 주변이 다 논밭이고 밤에 학교에서 늦어서 혼자 오면 무서워서 그게 왜 그리냐면 비포장에서 차 사고로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밖에 실어 놓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거적

때기로 덮어놔 그게 이제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한잠가 그거 덮어놓으면 다리가 다 보여 지고(자 사고) 나면은 밤 같은 때 그 근처를 가기 싫어요

당시 일명 주먹소굴이 광산 덕분에 박달동에 전기가 들어왔다

그때만 해도 송장을 무서워해서 사고 발생이 뭐냐면 그때 당시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 술집에 거의 다 여자가 있었어요 술 따르는 여자들이 있고 술을 먹고 그럴 때인데 그 양쪽이 다 논이기 때문에 가을 되면 벼를 전부 베어서 논두렁에 넣어놔요 그런데 술집에서 술을 먹고 그러다 보면 여자를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사고를 저요 그때는 순수한 때지 지금 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식이 벌어질 정도로 이 주위가 아주 뭐랄까 음침하고 어둡고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가로등은 찾아보지도 못하지 처음에 여기도 전기가 안 들어와서 호롱불을 켜고 살았는데 안양에서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온 것은 박달동일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도고내 광산이 있었어 그 광산으로 전기를 놓기 위해서 여기로 지나갔다고 그래가지고 박달동에서 전기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 이 근처에서 제일 우범지역으로 되어있었다고 주먹소굴 여기가 안산서 학교를 다녀도 안양공고나 안양중학교 다니려면 박달동을 지나지지 않으면 못가 안산에서 학교에 다녔으니까 안양중학교 안양공고를 그래서 나쁜 애들이 길목에서 텃세하는 거지 어른들 지나가면 나쁜 애들이 담배 한 대 달라고 그러고 그때 어른한테 그러면 맞아 죽었거든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범지역으로 찍혔던 곳이에요

중학교 땀 벼를 한 마차를 털고 학교 갔어

소를 키우고 그러니까 가면은 소 풀을 베어야 해 노인네들이 농촌이니까 밭을 팔아야 그거가지고 학교를 다녔으니까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가 통학을 하는데 안양역이 그때만 해도 하발 통이야 건물이 하나 있어서 들어가고 나오지 내려서 아무 데로 나와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하발 이었는데 새벽 통근자를 타고 새벽 다섯 시에 나갔는데 그동안 먹을 양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마차로 벼를 하나 실었다가 가져다 놓고 그거 탈곡기는 뱃이 있어야 밟으니까 둘이 밟고 양쪽에 짚을 넣어주고 빼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한 마차를 털고 학교에 갔어

(중학교 때 수업이) 보통 교련이라고 군사 훈련을 받았어요 목종으로 아침에 조회 한때는 소대별로 중대별로 조회를 했다고 그래서 1소대 2소대 소대장, 대대장 해서 군대식으로 조회를 했다고

수류탄을 가지고

이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군용지에 탄약을 쌓고 뭐 하다보니까 거기서 흘러나오는 수류탄이 있어 일본 애들은 수류탄도 구두에 탁 저서 던지면요 그게 다 폭발이 돼요 그게 지금 같이 (안전권) 빼는 게 아니고 그냥 신발창에 때려 던지면 터져요 그래서 이 근방에 있는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부락과 부락 사이에 있는 패싸움이 많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다른 동네 애들이 들어와서 싸움을 하면 박달리 애들이 이 돌을 집어가지고 죽인다고 하면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그만큼 부대일 때 군인들한테 깨지고 그래도 광산에 들어가는 전기가, 다른 데는 초롱불을 켜도 여기는 전깃불을 켜고 그래서 다른데 보다는 깨어났지 이 지역은 여기가 변두리라 원래 서면서 안양으로 행정 개편 때만 해도 존구석이야

기차소리 들으면 무작정 뛰다

군포 이런 데서 기차 소리가 나면 여기서부터는 뛰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기차 가는 거는 웬만하면 잡아서 타 손잡이 쥐고요 발을 띄면 괜찮은데 끌려가면 죽어요 기차를 못 타서 못 올 적에는 뭐, 어디 고개나 수로를 갈 때 그때 트럭 같은 거 길에서 몰래 잡아타요 그럴 정도로 버스가 있나요? 뭐 없지 집에는 서울역에서 다섯 시 반에서 여섯 시인가 그래요 집에 오면 아홉 시에서 아홉 시 반 저녁 어느 때는 서울역에서 못 타는 애들이 많아요 그 무슨 통근하는 애들만 취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으면 늦은 대로 해서 그냥 학교에서 서울역까지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한국전쟁, 우리 동네도 예외는 없었다

625 때 들어오니깐 지금 형제들 집이 3채였는데 그게 싹 다 타버렸어 피난 갔다 오니까 재만 있어 안양대교 그거 끊을 때예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후퇴하면서 최종적으로 끊은 게 안양대교인데 그거 끊고선 피난을 같이 가는데 엉켜서 가는데 다리 부러진 놈, 팔 부러진 놈 처음에 반월 우리 진적들이 거기 사니까 거기서 간다고 마자에다가 먹을 거 뭐 다 싣고 끌고 나갔다고 소 마자였으니까 근데 안산 거기가 삼거리인가보다 안산국민학교 그 앞에서 양놈 애들이 다 버리고 쌀만 먹을 거 싣고서 간 거야 그리고 간 데가 수리산 둔대리가 반월인데 거기 가서 전쟁을 거기서 했어 전투를 거기서 했어 비행기가 와서 하루는 때리는데 같이 피난 와서 살던 사람들이 배를 맞고 죽은 놈 이제 또 밤에 비행기가 소나무가 많고 그래서 거기다가 때린다고 밤에 나오라 해서, 베어서 피난민들이 (나무) 그거 끌어내리다 보면 어느 구렁텅이에 송장을 갖다놓고 그냥 덮어놓고 말도 못해

생활정치를 하다

의원 생활한 것은 어떻게 하게 됐느냐면, 윤국노 씨가 국회의원 할 적에 윤국노가 2년 선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했느냐면 근처에 벽돌 공장을 했어요 사업을 할 적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도 해서 도와준 것이 정당까지 간 거야

삼거리 육교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초대 적에 도로가 육자 도로인가 사자인가 그 도로가 넓혀진 거예요 그게 넓혀졌는데 그 넓은 곳에 건널목을 해놓고 학부모가 기 들고 와서 애들 건너는 것을 저걸 해줬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달초등학교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야 처음으로 그니까 그 들어오기는 그 이전에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학생들 어머님들이 건너는 것을 만들었는데 학교는 거기가 세워질 자리가 아닌데 세워진 거야 세우고 나서 그런 현상이 나왔고 그 옆에 산비탈 위에 서서 겨울이 되면 일조권에 의해서 학교가 음산해서 얼음관이 되어버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시정 질의 한 것입니다 학교 부지를 처음에 만들 때는 진입로부터 봐야 하는데 진입로 자체도 없이 학교만 세우고 해놔서 애들이 하나둘 스러져 가고 있는데 지하도라도 놓고 해야지 부모가 만날 나와서 해도 애가 쓰러져 가는데 그걸 보고만 있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최초로 만든 겁니다

두 번째는 안양천 옆에 금성방직 있을 때 앞에 내려오는 물이 동네 안양천 앞에 섬동네라고 그랬어 거기서 흘러서 했을 적에 공장에 폐수가 스며드는 저기 하천인데 거기서 물이 뭐야 지하수를 뽑아서 그 물을 그냥 먹었다고 물론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옆으로 때려 박아서(쟁점화하니까) 그래서 한번 내가 나오니까 반상회 이런 데서 나 좀 보자고 해서 나갔더니 이것을 해결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하수관을 뽑았어 하수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끌어내서 수도를 바꿔 놓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삼봉초등학교 거기가 처음에 입학식을 하는데 교장 선생이 인사자 왔어요 그때 이야기를 했다고 입학식을 하는데 배수로가 잘 안 돼서 논바닥이야 그래서 내가 애들이 당장 뛰어놀 곳이, 운동장이 그게 뭐냐 그 후에 부대 사람을 만났어 부대 들어가려면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가로등을 끝까지 다 해주고 자가 부대까지 가지 않고 중간부대까지만 가니까 자의 안장을 해 달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배수관계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줄 테니까 바로 할 수 있냐? 자기네들도 해주면 바로 하겠다는 거야 지금 박달 초등학교보다 배수로가 잘돼 그걸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교장이 고맙다고 내가 부대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차피 내가 손댄 거니까 자매결연을 해라 신설학교니까 많이 도와줘라, 그랬더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자매결연 식을 해서 지금 우리 집에 가면 교장하고 원 스타가 표창한 거 다 있어요

박달2동을 그리다

그때 당시나 지금 똑같은 건 군부대 각 골짜기에서 한데 합쳐져서 그 부대 중간 쪽으로 개천이 있어요 수암전이라고 그러는데 수암 있는 데서 그게 흘러가지고 안양전하고 합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암전을 따라 열두 굴이 양쪽에 다 있고 농토가 그 지역 가운데 있었어요 전부 농사를 짓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자 그것이 왜정 때 일본 애들이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강제 매수 한 거지 거기가 군사지로서는 아주 요지야 비행기가 폭격을 할 수 없는 지역이 거기이기 때문에 아주 요지여서 일본 애들이 탄약고를 잡은 거야 그다음에 강제매수를 한 다음에 탄약고를 잡으면서 지금 그 입구에다가 경비실 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농사지려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은 띠른두르고 거기다가 멧패를 달고 출입증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제 일본 애들이 망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이게 국방부에서 측정한 거지 그래서 강제매수한 그 땅을 이제 주민은 그걸 내세워서 그 땅을 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그게 군 관계 국방부를 상대해서 싸우니 안돼서 지금도 그게 법에 계류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박달동이 앞으로 발전을 잘하려면 군부대 거기가 최대한으로 민간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것 그외의 것을 꾀조해서, 지금 제일 문제는 박달동이 공한지가 하나도 없다고 휴식을 할 만한 데가 하나도 없다고 박달동에는 그래서 그쪽



1960년대 박달동 사진 왼쪽에 보이는 비포장 길이 탄약고 가는 길

으로 들어가면 공기도 좋고 부대는 그쪽에 있으니까 그 농경이 일대를 사실은 안양시에서 흡수해가지고 거기에 대학교가 들어가도 세네 개가 들어갈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부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지경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국방부에서 그걸 받을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협조해서 공한지로 이용하여 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안 나가 지금 실정입니다



박달동 주진동

부대를 통해서 골짜기 산을 넘으면 거기가 안산시에요 근데 수암 장군재라고 길이 왜정 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길을 쓰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비에 뭐하고 길이 망가지고 그래서 부대에 있는 데에서 그 넘어가는데 까지 그거(길)를 들여 놓으면 교통이 직접 거기로 갈 수 있지 박달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군용지를 이용하는 길이 제일 빠르지 그래서 거기를 공한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고 부대에서 자기네 땅을 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군용지) 사용하게 만들어서 진짜 저녁이면 안양천이 이제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운동한다고 그걸(군용지) 사용해서 휴식장소로 재택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박달동도 사는 것이 다른 동과 다름없이 되는데 지금은 박달동이 집값도 그렇고 형편없는 게, 공한지가 없어요 이제는 뭐 여기서 지을 때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박달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군용도로(를 사용)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알 적에는 안양전에서 사실은 거기 모여가지고 거기서 목욕도 하고 고기도 잡아서 전렵이라고 그럴까 모래밭이 있었으니까 (안양전처럼 여기도 주민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구술자 주진동(39년생, 남) 구술일자 2011년 7월 17일

제지산업의 심장 삼덕제지 이준열

섬유제지산업은 한국의 근대화 전략산업 중의 하나였다 물이 풍부했던 안양천 덕분에 안양은 한국 근대화의 과정에 쉽게 편승해갔다 그리고 전국 팔도에서 많은 젊은이가 안양으로 모여들었다 안양의 사는 어르신 가운데 많은 분의 다수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고향이다

제지산업의 심장, 삼덕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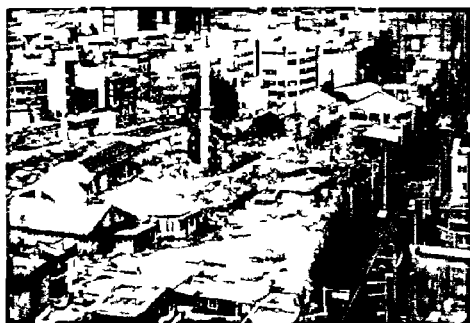
학교는 안양상고 나왔고, 삼덕제지 입사할 때는 참 어렵게 들어갔어

지금은 돌아가신 회장님을 옛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구두쇠고 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

아오신 분이에요 자기의 전 재산이 한 몇천만 원, 몇억을 가지고 있어도 돈 있는 집인데도 일찍 돌아가는 날에 사람이 한 일고여덟 명이 오면 자기는 뒤로 가서 전철 타고 나머지는 자가용으로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삼덕제지가 옛날에는 폐수가 나왔다고 회사는 시의 정책도 있으니 폐수를 정수장에서 걸러서 아래는 피해 없게 내보내려고 그러고

내가 할 이야기는 뭐냐면 (폐수) 내보내가지고 여기 주민이 (있는 곳) 시켜명게 그랬었어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폐수가 나오는데 회사 안에다 묻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건 절대 없어 아주 안에 그 폐수를 묻었다면 파이프 하나가 250kg 나가고 그걸 15개로 그러니까 250kg짜리 15개 묻었다면 그거 몇 톤씩 되는데 무거워서 가라앉지 묻었다면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나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중요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그 땅을 그 아들들하고 상의해서 땅을 내놓은 거예요 폐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생했다고 땅을 시에다 준 거예요 그 아들이 과장도 아니고 바닥부터 시작했는데, 제일 겸손한 아들이 자기가(노력해서) 지금 사장이 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들이예요 (삼덕제지 터에) 지하 주차장을 640평을 넣으려고 그랬데요 굴뚝을 없애지 말라 했던 거예요 시에서 이미 땅은 시행사에 줬으니까 그거는 자기는 이미 줬으니까 우리가 용도를 변경시켜서 지하주차장 하려고 했던 건데 640평이 되려고 하려면 먼저와 마찬가지로 그래야 안된다고 그래서 재관까지 갔는데요 삼덕제지는 그런 실정이에요



삼덕제지 공사

그 양반이 재산이 무지하게 많은 양반이에요 빌딩도 세 개 있고 마산에도 파이프 공장, 제지 공장을 만들었고, 울산에도 파이프 공장이 있고 그 양반이 성함이 전세 준 사장님인데 잠 좋은 분이에요 빌딩도 내가 알기로는 세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장이 전 안에 있고 경택에 있고 여기 있고, 장원에 있었어요

하루 100톤 생산하다

공정이라는 게, 십만 톤 몇십만 톤 쌓아놔 인천에서 25톤 트럭으로 걸프 원료가 오고, 그리고 활석이라고 종이에 글씨를 쓰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원료인데 한 자루가 1톤이고 트럭에 16자루가 올라가 그



삼덕공원 굴뚝

렇게 종이 원료가 들어왔어 이 안에 칼날이 있는데 이런 칼날이 있는데 그게 돌면 막 갈린다고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했어 돌가루 그놈이 무게가 나가고 그래서 아주 한 1톤씩 되는데 인전이나 외국으로 가져가기도 해요

약품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냐면 조종실이 있어요 모터가 일고여덟 개가 되는데 거기서 모터로 저저 나가면 갈려져 탱크로 가요 (저기에) 돌아가는 게 있어 풀 밑으로 받치는데 풀을 만들어 이놈이 쏘주면 붙여나가고 앞에 와서 종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드라이가 한 20개가 있어 앞에서는 금방 바짝 말라서 나가요

하루에 생산량이 많을 때는 내가 알기로는 100톤 정도예요

60명의 여공, 700% 보너스

그 당시 여공들은 60명이었어요

100명 있을 때도 있었고 60명 있을 때도 있었고 100명 있을 때에는 두꺼운 파지로 종이를 만들어 낼 때는 사람이 30명이 필요했었고, 나중에 기계를 시켜서 바로 녹여 갈아서 파이프에 투입해서 바로 나오니까 파이프가 한 300-500M짜리거든요 나중에 사람이 필요 없었어요 앞에 포장하는 사람만 60명 있었어요

여공들은 처음에는 마미라지 두꺼운 거, 그걸 만들 때 접지는 신문지 같은 걸 절사 같은 걸 고르느라고, 이것저것 고르느라고 사람들이 60-70명이(있었지) 그렇게 지금은 다 자동화 돼서

월급이 나오고 보너스가 700% 나왔어요 많이 준거죠 봉급을 하루도 미루는 날이 없었어요 그리니까 그날이면 무조건 다 술 한잔 마시고 그랬지

전국 각지에서 모이다

여기 삼덕제지 있을 때는 사람 살기 좋았지 일터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300명 있었어 가족들을 따지면 1 000명 정도가 있었을 거야 그 때 공장에 삼백 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처음에 1,000명 있다가 60명 아니 남 자들도 있으니까, 여자들은 단순 노동을 할 거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60-70명 있었고, 위에 몇 명 있었고 따져보면 백 사십 명 정도 있었



삼덕제지 이준열

지 (구성원 중에는) 안양 토박이들이 많이 올라오지 경상도에서 오고, 전라도에서도 왔는데,
안양 사람이 많지

구술자 이준열(44년생 남), 구술일자 2011년 11월 4일

따뜻한 햇살 같은 마음이 있는 터, 원명상 어르신 댁

마을 사람이 한 우물을 같이 사용한다는 의미가 동네다 물을 같이 쓰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같은 물을 길어 쓰던 동네는 동네 어르신에 있거나 동네에 자리 잡고
사는 입향조 이야기가 늘 따라다닌다 원씨의 집성촌으로 알려진 양지마을도 그 중 하나다

제일 먼저 해가 뜨고 부지런한 동네 양지마을

35년 10월 29일 태어났어 애들은 4남매를 두었지 동네가 삼십 가구 정도고 옛날 사람들
얼마 되지도 않고 서로 다 알고 젓가락(갯수)까지 다 알고

우리가 군자에서 나왔거든 시종시에 가면 군자동 있지

부모님도 다 3대째 살았고 고향이 여기지 부모님은 계속 여기서 농사를 하시고 농사는
생활하실 만큼 넉넉하셨어요

군자동에 우리 10대조 할아버지 비석이 있었어 병자호란 때 삼부자가 전사를 당해서 비



1960년대 양지마을과 수암전

를 거기다 세웠어 여기는 타성이 몇 사람 안 됐어 박달동은 권씨, 비산동은 심씨 저기 4동은 강씨 어른들하고 친구들하고 왕래하니까 자연적으로 알게 되더라고

옛날에는 가을에 농사를 지으면 고사를 지냈어 집에서 그래서 향아리에 잔뜩 떡들 찌서 나눠 먹고 겨울에 야경 돌잖아 그럼 먹고 그 제사 지내면 음식 와서 먹고 야경 도는 사람들 목탁을 들고 다녔어

양지동 마을이 여기는 다 공터였고 꼭대기에 지금의 과학대학 있고 거기 공원 조그마한 것 있지 거기는 다 논이야 그 뒤는 다 밭이고 그러면 집 드문드문 몇 개 있고 이쪽은 집이 없어 허허벌판이야 집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조금조금 집 지으면 쫓겨든 여기 동사무소 여기도 공터였고 여기서 조금 비켜서 여기 서호공원 저기도 집 하나인가 두 개밖에 없었어 집 짓고 살아서 그리고 뭐 집 몇 채 있었어

양지마을은 해가 가장 먼저 뜨던 작은 마을이었다

양지마을이 특별한 것은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동네, 부지런한 동네가 여기야 내가 자부해 옛날부터 안양 사시는 분들은 다 알지

여기는 재산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줄어 나가고 없는 사람은 늘어난다고 하지 공업 도시니까 일하면 돈 나오니까 먹고 살게 되고, 서울에서 온 사람은 편안하게 시골에서 살라고 왔는데 안 맞잖아

옛날에는 여기 조선직물이라고 회사가 있었는데요 지방 아가씨들 와서 일했지 그것을 해방 이후에 쌍용 김석원 회장이 그 건물 반을 인수해서 금성방직을 인수했어 625사변 이후 전부 통일했지

허릿심 겨루기 행사

(이 동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대보름 옷놀이 어느 지방이나 다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여기 그런 게 있었어 허리 힘자랑했다는 것은 어릴 때 들었거든 아무리 돌아다녀도 시합하는 것 못 봤는데 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모심으러 가서 아침밥 먹고 엎드려서 일하고 계속 밥도 엎드려서 먹고 막걸리도 엎드려서 먹고 점심도 엎드려서 먹고 허리 안 펴고 허릿심이 얼마나 세나 겨루기를 누가 생각했겠어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 권태평 씨야 내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일하러 가셔도 밥도 엎드려서 먹고, 술도 엎드려서 먹고 엎드려서 구부려서 하잖아요

제일 오래 걸딘 분이 그분이야

농사할 만큼 넉넉한 터와 인심이 있던 곳이 양지마을이었다

동창 4명의 학창시절

여기서 농사짓고 동장이 4명밖에 없었어

과학대학 거리에 비행기가 딱 뜨는데 유원지야 12시 경인데 비행기가 날고 그때가 1950년 6월 29일 16살 중학교 4학년이야

중학교 4학년 그걸 내가 설명하면 안양에 중학교가 없었어 그래서 고등국민학교라고 강습소가 있었는데, 조선직물 자택에서 몇 명 놓고 그러다가 1948년 1월에 안양중학교가 창립돼서 시흥군청 회의실에 강연회를 했고 거기서 그래서 그때 안양초등학교, 시흥서면초등학교, 동면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 과전초등학교, 군포초등학교 이렇게 모였는데 학교들이 공부할 길이 막힌 거야 그때 그렇게 되니까 나이 먹으나 적게 먹으나 시험을 쳐서 들어간 거야

그러니 안양초등학교에 우리 때 들어간 애들이 나이가 다르죠 그때 들어간 아이들이랑 우리 동갑이 안산초등학교 나와서 들어온 애가 목영부 경원대학교 박사과정 경원대학원장까지 한 애가 제일 어렸지 그래서 중학교를 내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빼고 띄웠고 2년 또 띄웠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지 그래서 우리가 5살 자이가 나 내가 14살에 뒤늦게 들어갔는데 과천 애들은 19살, 17살, 18살이 많았지 영등포초등학교도 많았어 오산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안양의 여기 안양공고 지금 안양 어디냐면 뉴코리아호텔 앞이거든 군정 경찰서 읍사무소 삼각형으로 여기가 초등학교였다가 가는 바람에 안양중학교가 설립했어 그때 그제 교무실 하나에 1학년 2학년 이렇게 있었지

여기 맨날 돌 나르고 그랬는데, 그때 4학년쯤에 625 사변 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그때 나이 먹은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네 사람씩 해서 훈련을 시켰어 어디나 학생들이 훈련받은지 몇 달 만에 625 터졌어 그 친구들은 나이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사병 했다가 시험 봐서 장교하고 전투하고 다 살았어

나가 살던 고향은

여기가 서이면이다가, 안양면이었다가 안양읍으로 되었다가, 그제 인구가 늘어나니까 안양시로 돼서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갈라진 거지 그때 만안구 될 때는 벌써 도시가 형성될

때로 다 형성되고 목욕탕이라고 안양역전 옆에 목욕탕이 한군데 있었어 이거 나무 때고 할 때 니까 일 년에 두 번 세 번 가면 많이 가는 거고 지금은 때를 불리면 때가 붙어서 그대로 일어나 지 그때는 비누도 제대로 없었어 비린내 나는 비누 그거 하나지

비누인데 생선 기름으로 만든 것인데 비린내가 나 그거 목욕탕을 누가 했느냐면 우리 김 무재라고 하는 그 친구가 했어

그렇게 목욕하고 나오면 지금은 깨끗하지만, 그때는 내복이 제대로 있어, 거기에 양말이 제대로 있어 고무신이 저우지 운동화는 부잣집만 운동화 신고 내복이 어디 있어

60년대는 농지였는데 80년대는 벌써(변했지)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분가하고 집성촌 안데 지금은 뽕뽕이 여기저기 가고 여기는 얼마 없지

그때 60년도까지도 공장 있는 거 회사 다니고 변화라는 게 없었지 공업 도시니까 여기가 물이 좋아서 안양 포도밭하고 배 그게 왜 유명하냐면 일본 사람 오우끼라는 사람이 2동 농장을 가지고 있었어 그 사람이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동네 안에서 어묵 생선 뼈다귀를 가져다 (저름으로) 사용해서 맛이 좋았어 그래서 안양 포도, 안양 포도, 그랬는데 자꾸 발전되면서 떨어지고 있어 그때는 비료가 좋아서 그랬고 부천한테 졌어 당분이 떨어져서 지금 대부분 그 쪽으로 거기도 바닷바람 불고 괜찮겠더라고 그때는 여름 되면 물이 안 끊겼어 그때는 나무가 많아서 여기는 여자 목욕, 여기는 남자 목욕 칸을 나눠서 지금은 전부 (폐수) 흘려보내지만 지하로 안 흘러가 안양에 공장이 많은 게 물이 좋아서야 안양대교 있지 거기서 다 (물을) 뽑아서 여기가 공장이 있는데 다 뽑아서 썼어

일제 강점기 시절, 안양천은 일본이 세운 공장에 공업용수 공급원이었다

그때 여유가 있었나? 뭐가 있어 없지 눈 덮이면 길이 어딘지 몰라요 마차가 밭으로 들어가 논으로 들어가고 그랬지 그리고 화장지 있잖아 지금은 화장지도 고급을 쓰지 신문지 지푸라기를 배배 틀어서 그걸로 썼지 그때 그런 세대였어 70년도에 그래도 그때 인심 좋고 어른을 알아보고 그랬지 담배는 뭐 나이 많은 사람 근처에서 필 수 있나 그 대신에 막걸리 주전자 심부름하면서 한 모금 맛보고 그것도 맛있는 거야 그렇게 먹고 물 부어 댔지 소주도 집에서 내려 먹지 그때는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막걸리 사발 대접으로 먹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인심 좋고 도둑놈 없었지 6·25 나면서부터 도둑이 생겼지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때 다 만나던 사람인데 가져갈 게 뭐 있어 가져가 봤자 쌀이나 고추장이나 그렇지 6·25 사변 나고 고추장 항아리도 들고 가고 그랬어 어린이 기저귀 넣어놓은 것 가져가고 그랬어 기저귀가 있어야지 애를 낳았는데 그건 뭐 시대의 흐름이니까

기저귀도 도둑질하던 가난한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여름에 어른들은 지금은 나이롱 끈(고기담는 것)이지만 그때는 풀에 (물고기) 몸뚱어리 꿰어 허리에 차고 전진하는데 물살 빠른 걸 피하려고 흐르는 물 안에서는 그걸 탁 몰아서 건넜지 여기 고기 많았어 뱀도 많고 고기도 많고

땅꾼이라고 하지 그때는 뱀도 많았어 뱀 뱀, 도롱뇽, 가재 도롱뇽은 1급수에 살잖아 수리산 올라가면 도롱뇽이 많았어 그리고 여기 이 도로가 지금은 이리 가지만 그전에는 서울에서 넘어와서 이리 갔다고 수암봉이라고 하지 초등학교 다닐 적에 여기서 걸어가서 개를 잡고

10리 20리 걷는 것은 보통이야 우리가 안양중학교 다닐 때 혼련할 때 여름에 담요도 매고, 더울 때인데 운동화 신고, 배낭 짊어지고, 학교에서 판교 있지 거기까지 하루 만에 걸어갔고 그때는 비포장도로야 지금 생각하면 과전에서 안양중학교를 걸어 다니면 그게 얼마야 자가 어딴지 다 걸어 다녔지 그때는 여기서 인천도 영등포도 걸어 다녀오고

그때는 잵가방이 잵 두 줄 딱 넣으면 얇은 거 있어 그런데 그때는 절대 딱딱하지 않았어 서로 돕고 살았지 안양초등학교 다니던 친구는 두 명 밖에 안 남았어 그다음에 한 반에 60명 정도 중에 일고여덟 명이 남았나?

잭가방을 둘러메고 판교, 영등포까지 잔걸음으로 걸어 다녔다

전 친구들과 그전에는 매월 한 번씩 모였지 전부 옛날 학교 다니던 그대로야 어른 애도 없어 어느 학교에나 우리가 서울모임에 갔는데 모이는 장소가 저기 이문설령탕집 동우초등학교 다녀가지고 학도병 나갔다가 와서 모이는 사람이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까딱없어 다섯 살 차이 나는데도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반에 86명이었어 겨울에 난로 하나에 도시락 쌓아놓고 그랬지 그 후에는 고구마 찌고 감자 찌고 그랬어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 탄약고 있었어 탄약고 저기 있어서 군용지에 가고 산에 가서 관솔 따고, 기름내는 것 송진도 가져오고 (부대사랍) 개네들이 개도 잡고

산에 널린 머루가 먹을거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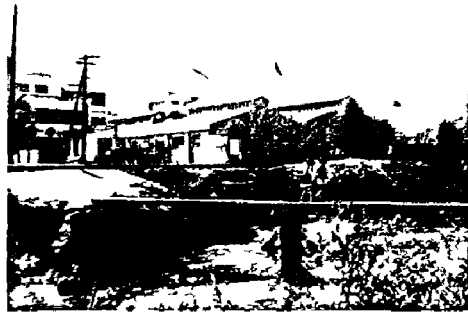
어디 가서 무개 먹고 그때 과수원이 많았지 산에 가면 머루 다래 그게 수리산에 굉장히 많았다고 다래는 그거 고급이야 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배 채우고 잘살고 못살고 별

자이가 없으니까

산토끼도 여기서 잡았어 노적봉 꼭대기
거기에 토끼가 얼마나 많은데 쫓아다녀서 노루
도 잡아오고 그랬어

거기서 산삼 세 뿌리 나오고 그 뒤에는 없
어 어디지 8동인가? 거기 사는 사람이 땔나무를
하러 갔다가 발견했지 그때 항간에는 수리산은

숫산이고 관악산은 암산이래요 짐승이 다리에 걸리잖아 다리가 부러져서 도망간다잖아 정
제산은 돼지 한번 나타나면 못 잡아요 강원도로 내뺄어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수리산 남태령
여기는 수리산 김포까지 가고



1960년대 삼영하드보드

졸업 후 취업을 하며

학교 졸업하고 회사 다녔어 성원아파트 있는데 공장 있었거든 거기 다니다가 그다음부
터 기술 배워서 인전 뭐 의정부 영등포 사방 돌아다녔지

삼영하드보드에서 삼 년 일했는데 사고가 났어

다이제스트라고 나무해서 송진 나무에서 진을 빼야 제품이 만들어지거든 그런데 내가
야간근무인데, 그거 하는 과정에 그날 밤 공장에 있는 사람 중에 공작실 책임자가 온양온천에
서 조카딸이 시집을 가는 날 가봐야겠다고 교대하자고 그랬고, 그러자고 해서 그날 근무를 했
어 그리고 (사고가) 그제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폭발을 했어 증기를 안 빼고 열어서 여기 터지
고 여기 터지고 내가 늘 하던 것이니까 내가 올라가서 한다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사람 셋
은 와이어가 끊어진 거야 셋이 한꺼번에 떨어졌지 떨어져서 내가 정신 자려서 살아서 나왔어
나하고 교대하자고 한 사람이 사고를 났어 죽었어 그 자리에서 앞에 그냥 압(력)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바람에 마음이 너무 아프지 그리고 그 일 그만두고

고향을 떠나 같은 업종의 일을 했지 내가 절공소를 했어 81년도 1월 21일 지금도 불편
하고 (손가락이) 따로 따로 고생이야 죽을 고비 많이 넘겼어

일이 위접하지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뭐 대장일도 해야 하고, 배관도 해야 하고, 난방
도 해야 하고 배관 전문이란 게 그제 65년도인가 66년인가 기술이 도입되면서 그 사람들도 한
가지 밖에 못해 여기서는 이것저것 다 해야 하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중학교가 공업중학교로 변경되었어 그때 금성방직 공장들이 와서 가
르지고 그랬다고 그때 뭐 정식 교사들이 별로 없잖아 중학교 1학년 때는 일본 애들한테 배운

저지 배울 때가 없잖아

고향에 다시 돌아와 그때부터 농사를 부모님과 같이 지었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지금은 나이도 먹고 지금은 재력이 달려서

농사짓는 사람들 그때는 소로 일을 했지 그때 소 한 마리 가지고 학생 대학교 졸업시키고 그랬지 지금은 소 한 마리 400만 원 500만 원으로 등록금도 안 되잖아 송아지 사다 길러서 크면 팔고 그런 저지 돼지는 짧게 기를 수 있지 일 년 기르면 60kg 나가고 그때는 사료가 없지 그땐 배가 고플 때인데 8 15 해방되고는 먹을 게 있어? 쌀이 아니고 설탕 그거 가지고 견디고 그랬지

고생 많이 했어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전북 전주 팔복동 전주제지에 기술자로 갔는데 황달에 걸렸어 전주에는 황달로 죽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콩나물을 일주일에 한 번 기본적으로 끓여 먹어야 하고 대지라고 요만한 조개도 먹고 전주는 교육도시야 모시 한복 입은 한의사 지금 그렇고 그런 데가 있을까? 여름에 한옥집에 문 열어놓고 전주 그 북문 밖인가 거기 가니까 있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찾아갔지 거기 가서 잠 황달 약을 지어 먹었지

철공소, 대장장이, 배관 등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하다

가정을 이루고

다른 데서 회사 다니면서 결혼하고 내려왔어 파주사람이지 중매로 만났어 동네 분이 소개했어 서울 아현동 서대문 다방에서 처음 만났어 몸이 째마르지 않고 처음 보고 마음에 들었지 서울에 있을 때 결혼하고 여기서 큰딸이 태어나고



결혼할 때 해온 혼수 낫그릇 세트

아이들이 작해서 그리고 둘째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내막염에 걸려서 감기로 (병원에) 갔는데 치료가 안 돼서 큰 병원 서울대 병원에 가서 치료했는데, 목의 움직임이 굳어가는 거 그렇게 진단이 나왔어 그래서 지금 마흔다섯인데 장애인이야

1985년에 지금 집을 지었지 업자가 집을 먼저 짓고 세놓으면 돈을 받아갔지

(주거환경이) 시대변화가 5년마다 주기가 변해 그때는 연탄 아니면 다른 것은 비싸니까 그때 싱크대고 뭐고 전부 필요 없는데 연탄 난방을 하고 5년 지나니까 석유 또 5년 지나니까 석유 그러니까 내부 시설, 주차하고 저기 풍진 시설 다 구비를 해야 해 방도 크고 주방도 크고 화장실도 크고 넓게 해야 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집 가격이 안 올라 처음에는 수리비가 안 들어갔는데 이십 년 삼십 년 되니까 그게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하나까 체력의 한계도 느끼고 정신도 흐려지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지금도 밭농사 조금 짓고 있어

슈퍼는 처음에는 나이 먹어도 일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심심풀이로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거에 손을 쓸 수가 없어

슈퍼를 85년도에 하다가 90년도 끝냈다가 99년도에 다시 시작했어

지금은 큰 게 생겨서, 그때는 뭐냐면 웬만하면 집에서 김치거리도 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화하면 가져오잖아 물건도 싸고 우리가 사는 가격에 (대형마트) 개네들은 관다고 그리고 유통기한이 전부 있어서 물건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어

작년 김지 아직도 조금 남았을걸 그전에는 김지 담그면 땅 파서 항아리 묻고 거기다가 얼지 않게 무도 구덩이 파고 묻고 그게 진짜 맛이라고 그전에는 걸어 다녔는데 자 타고 다니잖아 여름 겨울이 없어졌지 마진이 점점 줄어 가잖아



양지마을 원명상



절구



옛말 밥그릇과 국그릇



양지마을 원명상

안양이 편안하게 사는 동네가 되었으면

그때는 발전이 지금 민심이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먹고 살까? 돈 되는 것은 뭐든지 했어 우리 세대는 노후대책을 지금 생각나는 게 중학교 1학년 한문 선생님이 학생들 눈 똑바로 떠 하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는 책장을 버리지 말라고 나중에는 인분제조기가 되지 말라고 하셨지 지금은 노인네들 그게 바로 인분 제조기야 생각하면 참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 노인인구 많아지고 일자리 당장 줄고 편안한 일만 찾고

안양 편안하게 사는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어 625 나서 안양이 거기서 그 사람들은 내가 일 나가면 전원을 벌 수 있지만, 전 원짜리 없으면 백 원짜리를 해 백 원짜리를 하게 되면 일하는 동안은 돈 쓸 일이 없잖아 내가 버니까 그 사람 일 잘하면 자꾸 그 사람 시키고 하면 이 백 원짜리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일하고 그런 보람이 있는

구술자 원명상(35년생 남) 구술일자 2011년 11월 15일

여성이 여성을 읽다, 이금연

1969년 9월 10일 완공한 근로자회관은 안양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한다. 근로자회관은 고향을 떠난 근로 청소년들에게 안정된 숙식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건축된 기관이다. 1998년 4월 <전진상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그 이후 <전진상사회복지관>이 소멸하는 그 순간까지 안양 여성노동자를 위해 몸으로 실천한 이금연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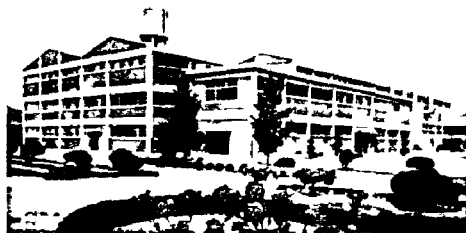
삶을 가르쳐준 시몬느 베이유(Simone Weil)

그런 사람들이 청소년기에 10대에 잘 몰랐죠 누구인지는 잘 몰랐는데, 잘리 재플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단편적인 정보로만 10대에 알게 됐고 예술가로서, 그 다음에 시몬느 베이유는 20대 대학생 때 그런 사람의 책을 읽고 사회 롤모델처럼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했었던 사람이 시몬느 베이유예요 그랬지마는 그 나중에 오히려 근로자회관에 가서 그 잘리 재플린의 영화를 옛날에 그 영상기로 봤죠 그러한 게 뭔지 몰랐을 때에 왜 재플린의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그 자료로 돌렸기 때문에 그때에 필름 영화를 보고서는 막연하게 좋아하고 막 이랬었던 사람들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많은 기쁨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다 소개하는 것 하고 그 사람이 실제 했었던 작품을 만나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랬었던 게 80년대 그런 것을 만나는 게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으면 그런 곳에 가서 일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죠

그 과정이 벌써 있나요, 그때 홍천여고를 다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학교 그만두고 그러고선, 다시 학교로 돌아갈까 그런 가족들과 의논이 있었죠 아버지하고 이상하게도 저 학교 돌아가는 것을 동네 분들이랑 아저씨들이 왜 학교에 다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막 그러셨는데 그때 제가 아마 다시 학교로 다시 가지 않기로 마음으로 결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제가 학교 휴학을 하는 과정에서 홍천여고 선생님들에게 가졌던 어떤 실망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린 마음에 그 실망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에게 갖는 기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장례는 지렸는데, 그 분명히 기억이 나요 동네 아저씨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학교 다시 가라 막 그런 것이었었죠 그랬는데 제가 안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큰오빠가 안양에 사세요 한국제지 다니셨어요 한국제지 다니는 노동자였기 때문에 큰오빠와 올케를 따라서 안양으로 오게 됐지요 큰오빠네 집에서 지내면서 그냥 일하면서 공부하는 길을 내 스스로 선택하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으면 그런 곳에 가서 일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죠



1970년대 한국제지

근로자회관 인연 “굉장히 새로운 세상이었던 거죠 굉장히 새로웠어요 ”

그러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가 인덕원, 아! 인덕원이 아니고 그 명학동 있는 그쪽 공단쯤이었던 것 같아요 명학역에서 이쪽 공단 이렇게 명학역에서 철로를 위로 이쪽 말고 이쪽에 공단 쪽이었던 기억이 나요(시정방향 현재 만안구청) 시정 그쪽으로 지금 뭐 덕전마을인가 뭐 그 밑에 왜 명학역에서 그 공단이 막 그때 벌판에 공장이 지어졌을 때였었는데, 그 어떤 전자회사를 올케가 알아봐 줘서 잠시 다녔었어요 아마 그 근처인 것 같아요 무슨 전자회사였었는데 거기를 한 5-6개월인가 다니고 그다음에 인제 그 군포 구사거리에 있는 금성통신 있잖아요 옛날에 키폰 만들고 전화기 만드는 데로 옮겼어요 금성통신은 이르면 8-9개월 다니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때에 근로자회관을 안 거예요 (000 79년에요) 79년에, 79년 1월에 근로자회관에 들어가서 살았죠 그래서 가톨릭의 문화하고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가 지금 살고 있는 AFI(아피)라는 회원들을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로자회관(기숙사)에서 그때 우리 독일에서 오셨었던 서정림(말가리다) 선생님과, 한성인 선생님하고 또 여러 스텝 선생님들이 계셨죠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그 안양근로

자회관에서의 어떤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세상이었던 거죠 굉장히 새로웠어요

모이고 공부하는, 근로자회관

그때가 79년이었으니까 남자기숙사, 여자기숙사 상당히 활발하게 콕콕 찌었을 때죠 그런데 뭐가 달랐냐면은, 안과 밖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바깥세상은 매일 그때 아침에 그 성당하고 근로자회관 사이에 금성통신 출근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밥만 먹고 나가면 되고 6시 반이면 그 자를 타고 일찍 출근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술렁술렁 대는 곳이었죠 매일 그 노동자들이 많이 올라오고 살고 그러는 안양이었는데 그 바깥세상은 오직 일터밖에 몰랐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안에 들어오면 그곳에 도서관 있었고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래든 언니든 동생 또래든 같은 여성들이 뭔가 그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놀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죠 그다음에 정성들인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더없이 좋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그런 생활훈련 같은 것, 생활교육 이런 것들이 재미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가끔 성당에 따라다니는 것 그 안에서 작은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기존에 제가 그때까지 10대에서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 학교에서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일단 정결

하죠 그 정원있었죠 탁구도 칠 수가 있었죠 문화가 있었죠 문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뭐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노래도 부를 수가 있었고 가끔 집단놀이들이 있었죠 우리들이 스스로 하는 연극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이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 할까? 이런 문화가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상 저한테 굉장히 새로운 것을 주는 곳이었죠



1969년 근로자회관 준공



1970년대 근로자회관 거리

그때에 기억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피정이라는 형태로 토요일 날 같은 때에 일찍 퇴근해서 오면 주말에 그 노동자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뭐 자기들 나눔을 한다든가 이런 피정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교댄스 같은 것 있잖아요 포크댄스 이런 그룹이 있었고 들어가서 젊은 정준의 남녀 노동자들이 그렇게 품

음악, 커피, 과외 그리고 대학 시절

(바로 대학교에 입학한 것은) 아니죠 그 이후에는 그 금성통신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근로자회관을 나와서, 서울에 있는 어떤 다른 저희 가톨릭의 대모라고 하는데 친구들이 또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일하는 곳에서 같이 일하면서 그 공부하고, 입학했고, 입학할 때는 다시 큰 오빠네 집에서 다녔어요

아르바이트를 했죠 어떻게 학교만 다닐 수 있어요? 저기 커피 그때 난다랑인가? 무슨 커피 전문점 있었잖아요 그때 마침 학교 앞에 친구의 진적되시는 아주머니가 우리 학교가 화양리에 있었어요 세종대학교 다녔는데, 화양리에 건대하고 갈라지는 그 변화가에 그것을 자린 거야 그 난다랑을 그래갔고 친구들이랑 재미로 아르바이트하고 그때 대학동기들 진한 친구들 네 명어서 같이 우리 아줌마가 하나까 같이 일하자 해서 그래서 같이 일했죠, 저한테는 재미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음악 좋아하죠 이런 커피 같은 것 가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좋아하



근로자회관 서정림 말가리다 관장과 기숙생들



근로자회관 기숙생들 나들이

니까 정말 커피 마시러 오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커피도 날라다 주고 아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커피도 끓이고 지금 이렇게 핸드드립 하는데 그때 핸드드립 했죠 그러면서 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입시과외 했어 그리고 졸업했어요

82년 입학했고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입학하자마자 뭐 비자금 그때 김대중 씨가 해금 됐다는 등 어쨌다는 등 그래서 신문일간 뭐 이런 것 그런 것 준비 다니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3학년인가, 4학년 때쯤 돼서 복학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와서 학교가 계속 재단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단에 그 이사장들이나 뭐 그분들이 학교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가시게 하고 거기를 점거하고 농성도 하고, 교생실습도 나가야지 학교에도 그런 것이 있지, 다 혼란기여서 아무 기억도 없어요 지금도

86년에 그 졸업을 하고 그 근로자회관에 있었던 제가 지금 만나 뵈었으면 좋겠다는 한성인 선생님이 저한테 ‘근로자회관에 와서 일을 하면 어떻겠냐’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혼자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인생의 고비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고비들의 고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많이 느끼고 그것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저희 친척 고종사촌 오빠가 그때 학원도 차리고 이러자고 했었는데 제가 그런 사업을 하거나 학원을 하거나 이런 동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졸업하고 그 고종사촌 오빠랑 그 일을 그때부터 했었더라면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랬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무조건 내려가서 혼자 오랫동안 사셨던 아버지하고 한 8-9개월, 9개월 정도 같이 살았는데 안양에서 인사 와서 일하자고 그러시기에 그러자고

다시 안양으로 그분들이 달달 거리는 봉고차를 타고 저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달달 거리는 봉고차를 타고 저를 데리러 오신거 예요 우리 아버지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그때 독일 회원이셨던 서정림(말가리다) 선생님, 한성인 선생님, 죄병렬 선생님, 그다음에 또 다른 AFI 회원이셨던 양금자 선생님 등 네 분이 또 그 우리 김경웅 기사님이랑 같이 포그만 봉고차가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하직 인사드리고 올라왔는데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한성인 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분한테 그랬대요 다시는 돌려보내지 마시라고

우리 아버지도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아버지가 아셨던 거 같아요

그게 아버지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할 기회였죠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농부이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세상과 만난 첫 번째 권력이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

들이었고 그런데 그 첫 번째 권력이셨던 아버지하고 우리 가족의 형제들 중에서 유독 많이 싸웠어요 대항해서 아버지랑

아버지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었죠

대학 졸업하고 아버지랑 지낸 9개월간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었죠 그래서 나도 성장했으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었죠

왜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힘들게 수박에 없었나? 우리가 밥을 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산업사회가 되게 야만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다 우리 어렸을 적에 땅도 많았고 그렇게 모두가 열심히 농사일을 했고 밥을 굶은 것도 아니었는데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했나?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라는 사실이었지 그다음에 흥전여고 다니면서 그만두게 된 것도 우리 엄마가 암에 걸리셨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소 팔아야죠, 땅 팔아야 되죠 우리 아버지한테 미안해서라도 제가 혼자 스스로 가서 아버지 도장을 들고 휴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럴 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현실 앞에 그 뭐 장학제도를 마련한다거나, 그런 걸 알아본다거나,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뭐 부모님이 와야지 받아주는데 너니까 아버지 도장 하나 찍고도 받아준다는 식으로 주무과장 선생님이 그러시는 모습 앞에 저는 뭐 이런 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죠 어린 나이에 저는 제 안에 깊은 곳에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그- 실망스러움이 굉장히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는 것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뭐냐하면 너희는 가난했다 평가하는, 가난 안 가난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게 어디있어요 저는 제가 사회주의자들이 뭔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교육은 정말 공부하고 싶은 누구나 공부해야 된다” 돈이랑 그런 걱정 없이

두 번째, 의료 우리 엄마 그거 농촌에서 그렇게 열심히 농사짓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어느 날 암 걸리셔서 서울에 원자력병원에 왔는데 병원비 대야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일 걱정하시고 뭐 어디서 돈이 나오냐구요? 시골에서 일 년 농사 다 지은 것 팔아도 엄마 그 병원비가 안 되는 것인데 그래놓고 어느 날 너네 가난하니까, 농촌에서 가난해서 학교 올라온 그 이런 식의 집단으로 이렇게 그 뭐죠 레벨을 붙여대는 이 세계가 저는 이보다도 더 야만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짜 그런 거 마음이 계속 분노로 남아 있었죠 그랬는데 학교 다닐 때 그 데모를 했다고 그 학과 우리 지도교수가 불러서 자기 그 연구실로 불러서 한다는 얘기가 나가 가진 개인적 불만을 데모로 풀어 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면담을 하는 이 교수가 나중에

는 학교 뒤에다가 슈퍼마켓을 사가지고 슈퍼마켓 주인이 되는 어용교수들을 보면서 저는 대학교를 들어가면 그 뭔가 새로운 세상을 체험할 줄 알았어요 정의롭고 평화로운 그래서 아~ 아카데미 공부 좀 하고 공부는 무슨 공부예요 그런 것 안에서 그 안도 시끄럽구나 그 돈도 벌어야 되지 학교 공부도 해야지 어쨌거나 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경이롭고 정직한 선생님이 되고 싶었죠 학생을 진짜 생각하고 잘 가르치는 실력 있는 그랬는데 제가 4학년 때 그 순위교사인가? 뭔가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졸업정원제 실시, 입학하는 세대였는데 82년에 시작인가 그랬을 거야 잘 찾아봐야겠지만 그게 없어 진거야 그래서 그냥 에이 휴~ 그냥~ 관두자! 그러고서 아버지한테서 내려가서 지내는 동안에 아버지하고 대화하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어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땀벌에 혼자 나가서 일을 그 밤낮 없이 해도 엄마가 막상 아프니까 병원비 제대로 대기에는 너무 힘든 거지

그때는 뭐 구제역인지 뭔지 몰랐지만 이상하게 소가 병이 들어서 죽을 때 가족들의 그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그 소도 가족의 일부였고 지금 생태주의 생태주의 하지만

생태주의의 모든 원리는 아버지, 어머니 시골에서 다 배웠거든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100%로 순환되는 것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줌도 싹혀가지고 삭혀서 보리밭에 갖다주고 이랬으니까 그릇 씻은 물까지 다해서 소 돼지 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100% 순환하는 그 생태적인 삶을 살았었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다시 생태 생태 이런 거 그렇게 살아왔던 부모님들은

가난한 시절의 농부에 대해, 이러는 이런 제가 50초반인데, 그때 그 어린 시절의 그 조금 세상이 뭔가 모순이 있네 뭔가 잘못됐네, 왜 이렇지 이런 눈을 뜨고 봤었던 게 초등학교 4 5학년 때인데 11, 12살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세월 안에 완벽하게 이렇게 다시 사람들이 주장과 이념으로 이념화된 생태주의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을 수 있을까? 이렇게 50년 앞도 못내 내다볼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의 어떤 감, 감각 내지 직관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스스로 하게 되죠

올라오자마자 청소년들이랑 같이 살았죠

86년 10월이에요 10월 한 20인가? 그때 가을에 그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청소년들이랑 같이 살았죠 사감이에요

기숙사 여성들이 여자애들이 청소년 여자 50명, 남자들도 한 40명 그렇게 됐었어요 4~50

명을 다 하면 8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한 30명이었던 것 같다

(기숙사 입소) 자격조건 있었죠, 일단은 생산직 노동자들 중심이었었고 그다음에 임금이 적어야 했고, 25세 미만이어야 했고, 지방에서 올라왔어야 됐고, 그러한 청소년들이 이제 기숙사에 올 수가 있었죠

생산직에서 서비스업종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이미 80년 후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면, 아시안게임이 86년에 있었고 88년에 올림픽 이런 게 큰 줄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투쟁이 87년에 있었다면 이미 제조업이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조업이 막 붐을 이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안양의 그때 지금 1번가에 무슨 동부다방이니 뭐니 다방 몇 개, 술집 몇 개 또 그때 금성통신 제가 80년 다닐 때 79년 다닐 때 무슨 뭐 그 안양1번가에 무슨 삼겹살집에 가서 또 뭐 화진정 한식집 이 정도 있었는데, 노동자들이 갑자기 그때 금성통신 때 기억나요 월급을 탔다 하면 갑자기 쏟아져 나와서 뭔가 그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생긴 게 이제 유흥문화죠

3차 산업이, 제가 연구자는 아니지만 뭔가 전제적으로 이게 뭐지 이렇게 계속 이게 뭐야 하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러네 이게 이렇게 여기에 영향을 미쳤나 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공장에 다닐 때 79년, 80년에 막 사람들이 쏟아져 나가서 막 그냥 사람들이 이것저것 구매도 하고, 그대에 노동자들의 월급이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소비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생산직에서 이런 서비스업종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제가 다시 대학을 졸업하고 근로자회관에 와보니까 이미 그때는 벽산 그 슬레이트가 있었던 자리에 벽산 쇼핑이 생긴 거예요 제조업이 있었던 자리에 벽산쇼핑이 생기니까 뭐가 생겼어요 쇼핑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걸까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제조업자들의 노동자들이었는데 와보니까 3차 산업 서비스업종에서 일하는 슈퍼마켓의 캐시, 캐셔하는 사람들이 기숙사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우리 생각은 또 뭐였냐라면, 사고를 바꾸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제조업의 노동자가 노동자라고 생각한 거야 근로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슈퍼마켓의 캐셔라든지, 엘리베이터 걸이라든지 너희들도 노동자야 너 서비스업에 일하잖아 우리 스스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 사고를 났던 것이 그대에 87년 그쯤에 독일에서 가톨릭 노동장년회 운동을 하는 분들이 근로자회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방문하면서 그 사람들이 독일의 임금노동자는 다 노동자다” 했어 어! 우리는 그 사고를 좁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노동자라는 생각을 하게끔 했는데, 어렵게 가졌죠 쉽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숙사에 많이 들어오고 그 대신에 뭐가 생겼냐 하면은 서서히 이제 집단생활을 하는 걸 선호하지 않았죠

그때만 하더라도 여자기숙사 한방에는 4명 5명 우리 살았을 때 5명 가득 살았는데 그래도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왔을 때는 이미 5명을 다 채울 수가 없었어요 많아 봐야 4명이나 대부분이 3명 그러니까, 옛날에는 6~70명이 살았지만 그때 되면 보태봐야 50명밖에 잘 수가 없었죠 그래도 아이들이 자그만 방이라도 내 방을 가지고 살고 싶다고 생각했죠 이제 들어오고 싶은 사람보다는 그곳에서 살았으면 하는 사람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어야 했죠

그러면서 87년 그런 과정을 거치고 88년, 89년, 90년이 되면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 하나면, 그전에는 집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길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만 알게 된 거예요 가난하다고 우리가 집단으로 싸잡아 말한대거나 두 번째로는 여자아이니까 집안의 뭐 생계를 책임지거나, 언니 오빠들 아니 오빠들 남동생 학비를 대거나 이런 명분이 있었겠죠 여성노동자들이 올라오게 된 것들이 그 대신에 남자기숙사는 학력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부산기계공고 졸업하고 금성통신에 와서 그런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학력이 조금 있었죠 하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학력이 낮았죠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여성 근로자들도 야간고등학교를, 근명여상에 다닌대거나 이렇게 되었는데 3차 업종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무슨 문제가 발생 하나면 옛날에는 그런 게 문제도 되지 않았었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 어떤 집의 오빠가 여동생을 때려가지고 피할 데가 없냐? 그러니까 기숙사에 들어가면 안되겠냐?

그다음에 엄마가 가출을 했는데 어린애가 갈 데가 없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중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연락이 돼서 올라온,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그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완전히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문제에 이제 막 드러나는 아이들이 기숙사에 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런 복지의 문제 현재 세계의 문제들이 80년 말 90년 초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게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고 가난이 먼저 문제로 드러났죠

그러나 80년 말 90년 초로 오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엄마가 가출했다든지, 아니면 애가 어디로 갈 데가 없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개인주의가 등장하면서 집단으로 사는 것보다는 내가 나가서 사는 것, 이런 문제가 기숙사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지 고민들이 많았어요 제가 있을 동안에는

근대화의 그늘, 그리고 기숙사

많이 등장했죠 그때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 기숙생들이 많이 등장했죠 잠 기가 막혔어요 저희들이 매년 임금을 평균을 냈었어요 그런 정보들이 어디로 다 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거기 기숙사 생활비를 내야 되는데 월급봉투를 다 가지고 오게 했어요 (월급) 쓸데 그래서 우리가 신용협동조합을 사실 불법으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라도 월급 받을 때 ‘야 얼마라도 출자를 해라’

단 2-3만원이라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몇 년이라도 해야 네가 나갈 때 방 보증금이라도 얻든지 다음을 뭘 하든지 지금 이주노동자들에게 똑같은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탁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런 협동조합 운동이 뭔지를 훈련한 거예요 저희들도 같이하고 스텝들도 뭐 감사도 하고, 이사도 하고 이러면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누가 우리 출자금이 얼마고, 빌려주는 것 용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여신 있잖아요? 신용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있다든지 얼마만큼 갚은 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집단구매를 했지 녹음기가 필요하다거나, 등산장비가 필요하다거나, 이러면 도매시장에 와서 집단으로 구매해서 우리가 같이 싸게 좋은 물품을 살 수 있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초기에 저희가 기숙사에 살 때는 소비조합도 했었어요 우리가 음료수라든지 비누라든지 생필품이 필요한 거면 그 안에서 사 먹고, 그것에 대한 남은 돈을 유가증권처럼 해서 소비한 사람이 다시 그 이익금을 돌려받는 이런 운동을 그 안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비와 우리가 저축과 내가 받는 돈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이런 게 됐죠

그런데 내가 느낀 게 뭐냐하면, 내가 79년 80년 다녔을 때에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86년, 87년 이때에 와서 임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진짜 지금 돌아보면 뭐 무슨 박정희가 잘했니, 전두환이 잘했니 못했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모르지만 정말 진짜 기업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었을까? 정말 이렇게 이윤이 남으면 지금도 한진중공업 김진숙 씨가 크레인에 올라가 있고 92년 박장수 씨가 안양병원에서 떨어져서 죽은 것 그래서 근로자회관에서 밥 가지고 국이랑 나르고 이랬었던 그것이 개인적인 연결이 돼서 사실 한진중공업 김진숙씨가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양에 너무나 이미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지금 돌아보면 제가 그때 와가지고 우리 기숙생들이 월급봉투라고 선생님가지고 와서 뭐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뭐가 달라졌냐? 여전히 아이들은 돈이 없고 옷 하나 사 입으려면 여전히 힘들고 그다음에 저축하나 하려면 너무 힘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90년대 초에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것은 더 나

빠졌죠 왜냐하면 연수제도라 해서 현지의 임금 수준으로 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산업사회는 완벽하게 야만적일 수가 없어요 제 제점으로 그리고 그런 기업의 사장님이든 이사님이든 재벌의 회장님이든 정말 양심 손에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성찰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때에 제가 지금 학교 다니기 입학하기 전에 여기 서울에 있는 어떤 골프공 그 뭐야 장갑 만드는 공장에 다녔는데 저희 대모가 그 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다녔었던 그 친구들이 주로 다녀가지고 같이 집에서 살면서 일을 했는데 수출하는 날 짜에 이렇게 맞춰야 되면 막 그냥 24시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무슨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중에 들은 얘기는 어디에 뭐 땅 샀데 어디 뭐 샀데 그거 조그만 공장이니깐 다 알게 되죠 그럼 대기업들은 안 그랬어요 지금 온 나라를 이렇게 부동산 투기 열풍에 자기네들 골프장 짓고, 건물 짓고 또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온 이런 건데요 저는 제가 볼 때에는

그 노동자들은 무죄예요 죄가 있다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그렇게 근로청소년들이랑 90년대 초 이렇게 살면서 기숙사는 어쨌든 계속 유지를 해왔죠 그러자 제가 거기 근로자회관에 있으면서 92년 93년 이제 서서히 우리 근로자회관 근처는 중앙시장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보러 오는 노동자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이



1969년 3월 금성방직 여직공들

런 노동자들이 주변에 왔다갔다하고, 그 안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중전화를 쓰기 위해서 들어오면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우리 돌아가신 독일 발가리다 선생님이 코리아헤럴드 매일 아침에 함께 보는데 그 헤럴드 뉴스에 외국인노동자들에 관한 게 많이 나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300인 이상 업체의 10% 정도는 현지에서 데려온 노동자들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독일의 사례를 얘기해주시면서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가 어떻게 되고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제가 영문과를 나왔으니 까 그래도 그나마 영어로 한두 마디를 한다는 핑계로 어떻게 왔냐, 어디에서 일하냐, 바자회를 한다면서 초대를 하고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근로자회관 일하면서 제 개인사조 완전히 거기서 이런 일을 했다는니 마느니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93년부터는 안양근로자회관에서 사감하면서 이주노동자 상담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로자복지관에서 전진상복지관 관장으로

90년에 처음 갔어요 90년에 그렇게 그 87년 하여튼 안양도 시끄러웠잖아요 87년에 뭐 안양1 대로가 가득 잘 만큼 시끄러워 보였을 당시 우리 기숙생들이랑 나가서 뭐 같이 뛰어다니고 데모하고 밤낮 그랬죠 그러다가 우리 그 강당이 있었잖아요 그 강당에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때 그 강당에 뭐 매일 그냥 87년 6월, 7월이 뜨거웠죠 그 강당 그래도 안양지역에 쓸 만한 강당이 거기였기 때문에 무대도 뭐고 가득 밤낮없이 토론이 벌어지고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다 지켜봤죠 저는 뭐 관찰자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거기에서 에너지가 굉장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단체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저런 운동들이 안양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았었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우울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앞날이 안 보였었어요 세상은 시끄러워지고,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기숙사 사감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삼협전기다 무슨 전기다 뭐 어디 전자회사다 우리 기숙생들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청소년 여자 근로자들이 매일매일 회사에서 노조 만들어져서 좋았다가 힘들었다 막 이랬었던 거예요 그러면 밤에 노조 만들어주는 것 좀 도와주세요 자기들끼리 할 얘기가 있으면 밤에 기숙사에 와라 막 정관이니 뭐니 이런 것 배끼고 가서 노조 만들었다 뭐 이러고서 왔는데 그게 좋지만 한 것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너무 아픈 것들이 많은 거예요 뭐 분위기가 좋았다가 노조가 만들어지니까 험악해지니까 굉장히 고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마음이 아픈 게예요 사실 그게, 노동자들의 조건이 좋게 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나 그 투쟁과 개인적으로 막 대치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단으로 볼 때는 힘인데 개인적으로 와서는 집에 와서는 막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보람들이 자꾸 떨어지고요 사회는 시끄러

운데 개인적으로 와서는 뭐 계속 조금만 노조에 가입했다고 그러면 어느 날 발령 내고 막, 어느 날 이 일을 했던 애들을 저-쪽에 갔다 막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갔다 와서는 우리 같이 자는 기숙생들이 막 아프거나 못 일어나거나 그다음에는 거기 회사 다니기 싫어지고 맨날 3교대 돌아가다가 아프고 사실 그렇게 일을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나면 아파요 그러니까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똑같은 부품의 하나예요 그냥 그 기계의 부품의 하나 일회용품처럼 처리되는 거예요 일 그만두고 퇴직금 조금 받고 나면 아프고 아프면 온통 병원비로 다 들어가고 이러면 뭐가 남아요

그러니 저 개인적으로 그런 기숙생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자꾸 우울해졌어요 자꾸 우울하고, 80년 말 90년 초 이쯤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죽겠더라고요 이게 뭐가 좋아지는 세상인지? 어떻게 앞날을 볼 것인지? 그러는 차에 그때 여행자유화니 이런 게 생기면서 우리 가톨릭 내에서 사회교육협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전국에서 우리 근로자회관처럼 유럽에서 오신 신부님들이나 우리와 같은 기관들이 전국에 많이 있었어요 안양에는 근로자회관, 대구에도 근로자회관, 구미에는 근로자센터, 마산에는 가톨릭 여성회관, 장원에는 사회교육센터, 이게 다 오스트리아라든지 독일에서 오신 신부님들이 지으신 또 안양에는 AFI들이 지었고, 이런 곳이 같이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사회교육협의회를 가톨릭집단 내에 거기에서 유럽에 사회교육기관들을 방문하는 세미나가 89년 시작이 되었는데 2회 때 90년에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처음 가보면서 막 눈을 떴죠 이런 사회도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닫힌 곳에서 우리들이 쏠려가며 우리는 아픈가? 그때가 동독하고 서독하고 동독되기 바로 직전이었던거예요 둘러보면서 우리와 차이가 뭐고 다른 게 뭔가를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와서 노인대학 상담을 하고 이러면서 그만 근로자회관을 떠나고 95년 2월에 다시 오스트리아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한 달 훈련을 받았죠 지금 하고있는 훈련프로그램인 감마를 거기서 한 달 훈련프로그램을 받고 돌아와서 실습을 하고 7월에 그쪽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트레이너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때 이런 비영리단체 바꾸자 아니면 교회도 달라지자!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95년에 다시 필리핀에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감마니 뭐니 일로써 공무를 하게 된 거고, 한 축으로는 제가 근로자회관을 교회신분인 AFI라는 공동체인데 일 년부터 거기에 수련자로 입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다가 95년에 8월에 벨기에 가서 서약을 했어요 벨기에에서 한 달 수련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고 그리고 나서 국제수련을 해야 했기 때문에 10월에 필리핀에 갔죠 1년 동안 지내면서 신학공부 하고 가난한 지역에 가서 살기도 하고, 96년에 다시 와서 근로자회관 관장으로 준비하고, 97년에 안양전진상복지관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거예요 관장을 하면서 왜냐하면 복지문제들이 막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97년에 대학원 과정을 다녔죠 가톨릭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금 신학공부하고 있어요 서강대학교에서 지금 3학기 끝났어요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전공 왜냐하면 계속 질문이 올라오니깐? 대체 이 복잡한 문제, 이 90년 중반 이주노동자들이 올라오면서 너무 복잡한 세상이 되고 이러면서 저 스스로 갖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답을 밖에서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찾고 그러한 사람들하고 연결 그래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인간이 무엇인지? 신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보자 하고 이제 3학기째예요

나눔과 쉼터의 설치, 이주노동자상담소

근로자회관에 이제 안양전진상복지관이 되기 전에 근로자회관 시절에 돌아오자마자 이주노동자 상담소를 설치했죠 97년에는 그 이름으로 개소식을 한 것이고 오자마자 이제 이주노동자 상담을 97년 3월부터 실무자가 정식으로 있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같이 일했었던 성미영 안젤라라고 지금 과테말라에 가 있어요 매리놀 수녀가 되어 가지고 같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그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집에서 상담을 93년에 시작을 한 것이고 관장이 되면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집권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안양시 '노동자의 집'이라는 걸로 이렇게 실무 일을 성미영 안젤라가 시작했죠 97년 3월에 그 일을 실무로 해서 세팅을 하고 그 해 97년 10월인가에 개소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나서 여러가지 여성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1366이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성을 위한 특별법들도 생기고 이런 변화도 있었으니까 가능하게 된 거죠

샤말 타파와의 인연

한국감마연구소 소장인데 그것도 이제 곧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서 후배들에게 전달을 해주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제가 복지관에서 2004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느냐면 복지관 안에 이주노동자 쉼터에서 와서 아파가지고 쉬었던 샤말타파라고 있는데, 샤말타파가 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그 지부장이었어요 우리나라 기록은 잠 꾴한데요 지금 현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있는데요 그런데 1대에 그것에 전신이 이제 그 '서울경기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을 평등노조이주지부, 이주노조 처음에는 이은주라는 한국인이 지부장이었는데 이후에 처음으로 이주노동자로 지부장이 된 게 샤말타파예요 안양에서 노동자였죠 이주노동자 그러다가 이제 이 이주노조로 독립해 만든 게 지금 현재 이주노조거든요 사실 그게 나오기까

지는 이주노조지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지부장을 맡았던 샤말타파가 안양에 같이 살았었는데, 고용허가제법이 만들어지고 명동성당에서 2003년 11월에 농성이 크고 길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4년에 샤말이 경찰에 연행이 되어가지고, 여수보호소에서 오랫동안 수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단식하던 중에 2004년 4월 1일 날 만우절 날 자기 생일날 그 출입국관리국 직원들이 양쪽 손을 팔짱 끼고서 네팔까지 송환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바로 네팔로 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샤말이랑 같이 연결해서, 그전에는 IMF 때 98년에 1세대가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한 사람들이랑 약속한 게 있었어요 네팔에 돌아가면 사회복지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지원을 어떻게 해보마 해서 내가 네팔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복지관에 자원봉사를 오랫동안 했었던 김옥기 선생님이 이제 그쪽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후원자가 되어서 그 전에 많이 왔다갔다해서 학교도 설립이 됐었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가게 된 것은 2004년이에요 2004년에 가서 샤말이 만든 샤말이 여수보호소에서 편지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었죠 그것 판매를 해서 기금을 가지고 가서 샤말이 그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때부터 2005년부터 아동노동 하는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5월에 아시아어린이와 함께 라는 NGO를 서울시 국제협력과에 등록했어요 그것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교구를 맡았겠죠 그리고 인재 서정림 선생님 돌아가시고 제가 96년에 와서 준비하는데 97년에 관장이 되자마자 그때에 그 죄티기 주교님께서 주교님으로 작좌를 하셨어요 그때에 97년에 96년, 97년에 그러자 어느 날 제가 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 관리국장 신부님이 오셔서 가지고 뭐 집을 한 바퀴 쓱 둘러보시더니만 그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집이

그 집은 근로자들의 집이에요 수많은 사람의 집이죠

운영을 지금까지 교구 소속으로 잘했으니까 뭐 10년을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연장을 할 수 있다 사업 승인 뭐 이런 걸로 한다 갑과 을의 계약을 계약서를 써서 보내 줬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그리고 인재 그걸 아피(AFI)랑도 우리 거기 설립자이신 한성인 선생님이랑 의논해서 우리가 10년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있는 한은 하겠다 (일을) 하는 한 뭐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10년 하고 연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서는 그때 제가 도장을 팡 찍어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사업을 저희는 그것 때문에라도 못할 것 없으니까 계속 사업을 이어왔는데, 저 스스로 그 10년을 다 제우고 그다음에 어떻게 도모하는 것보다는 너무 내 개인적으로 지쳤고 힘들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후임자로 관장을 좀 이렇게 물려나서 다시

협력해서 이후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모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후임 관장이 오자마자 그 약정서를 근거로 뭐 문을 닫으라고 하기 시작했죠 그걸로 이제 끝내는 걸로 하라 교구에 서 신부님들하고 교회 방집으로 결정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것에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죠 완전히 저는 교회를 믿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도 하고, 우리가 해온 역사도 있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그 사업을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어떤 임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 과정을 의논하면서 나가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후에 연장을 할 거냐 이것을 계속해 나가더라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 이런 의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새내기 후임자가 되자마자 갑과 을의 관계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것 저는 교회에 대해서 뭐 너무나 참 실망을 하고, 교회 안에 오랫동안 해왔었던 일들이 도대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한 인간으로서의 그 허탈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약하죠 저의 존재가 그곳에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은 근로자들의 집이에요 그곳을 그 자기 집처럼 생각해 왔던 그리고 해외에서 왔었던 그 노동자들도 누구나 도와가며 그곳에 가야 될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집이죠 한 공간 자체가 그냥 하나의 이래도 그만 저래도 될 공간은 아니죠 이런 프로젝트도 왜 하겠어요 만안구라는 지역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삶에서 터, 그 삶의 터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될 텐데, 뭐 단순히 누가 사업을 하고 안하고 이 문제가 아니죠 거기는 우리 아피들이 삶을 가꾸어 놓은 곳이죠 그런 곳을 어느 날 약정 기간이 있으니까 떠나주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지낸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는지

한두 달 사이에 싹 정리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진통을 알았죠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이렇다저렇다 속 시원히 공개하기도 참 힘들었고 그 모든 원인을 제가 제공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도장을 찍어 줬으니까 저 때에 시작할 때에 그런데 저는 시작할 때에 뭐 이런 식으로 처리될 거라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죠 그것이 우리에게 갖는 어떤 그 공적 개인적, 단체 하나 이 시대 역사가 고스란히 있는 곳이니까 물론 뭐 집도 낡았고 수리비다 집도 전제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별도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뭐 그렇지만 신부님들이 우리가 잘 해볼 테니까 당신들께서 떠나도 그것을 유지하겠습니다 뭐 그런 뜻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참 여성들이 발붙일 곳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신부님들이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뭐

지금도 아마 거기 근로자회관 기숙생들의 모임은 계속 그 뭔가 그 카페도 있고 근로자회관 다음카페 지시면 뭐 몇 명들이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

여서

안양근로지회관 지면은 있을 텐데 저로서는 특별히 모임 하는 것 없어요 거기 스텝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 이렇게들 하시는데 저는 특별히 모여서 그럴 일도 아닌 것 같고 그 안양이주노동자의 집이 이제 군포 아시아의 장으로서의 이제, 그 실무자들이 자기들이 남아서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잠 반가운 일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시아 어린이와 함께 그 몇몇 이렇게 운영사업 하는 분들이 있고 옛날에 실장님이라든가 자원봉사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모이고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하자 이러지는 않아요

전진상복지관에서 생산된 기록들이 많았었는데 없어요 저는 그냥 그때에 저는 35년 되기도 전에 빨리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그때에 그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것도 있고, 이거라도 정리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내가 뭘했나? 이러한 그런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분산해서 해도 되겠죠, 그렇지마는 거기를 짓고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혼신의 힘을 쏟아 붓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융합돼서 일구어냈었던 그 인간적인 에너지, 그 에너지, 그 삶을 좀 더 낮게 갖고자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에너지를 담아내겠느냐 고민 무지 많이 했어요

그러고 보면 까딱했으면 시기적으로 35년사를 못 할 수도 있었겠죠 그 사(35년사)를 쓰기 위해서 3년 이상 걸렸었던 것 같아요 준비하고 이렇게 뭐 어떤 선생님이 먼저 시작했다가,



근로자들의 집

그다음에 또 다음 선생님이 그 필진도 그 두 번 두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상저죠 저희가 거기에서 그렇게 나온 것 자체가 상저죠 그냥 그걸 교회가 원망스럽다 주교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일단은 좀 더 우리가 논의가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가 아닌가? 함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구가 그런 것을 지금 정말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의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이 여전히 남죠 신부님들 주교님들이 그냥 단독으로 결정하게 무조건 하시는 건가? 그러면은 우리 이런 그 여성들이 그런 40년 동안 가까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해왔던 역사는 뭔가? 하는 의문이 남죠 잠

관심을 갖고 계획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영리단체들에게 가서 학사 지도하고 지도력 교육이라든지 감마프로그램은 95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복지관에도 감마연구소가 있었고 안양에 그리고 전국에 트레이너도 100명 이상이 있고, 이것은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룹이 함께해온 거죠 직책과 상관없이 이것은 저희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온 것인데, 이것도 인제 올해 아마도 정리해서 3/40대 젊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인제 물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7월 15일 12주년 기념식도 하고 잘 물려줄 거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노동자들 만났던 80부터 지금 살아왔었던 사람들, 이주노동자들 또 이런 사회운동을 이주노동자 운동을 했던 친구들을 후배들을 만나고 지금까지 관계를 해오면서 갖게 되는 고민은 사람들이 자기가 꽃피어지고, 좀 더 자기답게 성장하고 좀 생명력을 잃지 않으면서 소실되지 않으면서 더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활동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아픈 거예요 소진되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뭐 월급을 많이 받아 활동비가 많이 있어요? 저희 이주여성인권연대, 이주노동자연대 이주연대 두 개 네트워크를 2000년 이후에 함께 해오면서 거기서 만난 활동가들이 제가 접한 가까이 접한 사람들인데, 대부분이 다 아- 뭐 개인적으로 힘들어하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사람들이 아프면 자유 받으면 참 좋겠다 사람들이 더 이렇게 깊은 곳에 스스로에 내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참 좋겠다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상담도 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도 해주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앞으로 미래에 뭐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요 이런 영성이든지 명상이라든지 상담교육인지 이런 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심한 고민도 하게 되는데 구조나 이런 것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안양집을 그 60년대 그렇게 근로자들을 위해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 집으로 인해서 제가 한 것은 없는데 그런 노동운동분야의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다는 것 알게 됐다는 것은 저에게 큰 그 행운이고, 그다음에 이주노동자 운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게 됐다는 게 큰 행운이고, 그다음에 감마를 하면서 전국의 여성복지나 사회복지 또 NGO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런 속살을 열어 보이는 것이잖아요? 자기 조직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 같은 몇 박 며칠 워크숍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 통해서 젊은 사회복지사들이나 NGO 활동가들이나 여성 관련된 상담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뭘 가지고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지를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은 저 자신에겐 큰 행운이자 자산인 것 같아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자산으로 사람들이 더 잘 성직자답게 자기답게 성장할 수 있는데 제가 함께 이렇게 동반을 할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지금 현재 계속 질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이런 것을 하겠다 뭐 크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만 만나서 서로 밥 먹고 대화하고 자 마시고 이러면 서로에 회복되고 좋고 막 이러면 좋겠다 뭐 이러는데 지금 환경 이 공사다 개발이다 뭐다 다 파헤쳐지고 이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어디 지금 여기는 공동제이니까 와서 그나마 두 경짜리 방 한 칸이라도 살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고 그다음에 몸 뉘을 곳이라도 있을 것인지 그런 궁금증이 들죠.

근로자의 심장, 만안

만안이라고 하면은 저희에는 안양4동 중앙성당과 그 안양역에서부터죠 그죠 안양역에서 쪽 내리면 일번가를 지나서, 사거리 외환은행 지나서, 그다음에 성당 있는 그 앞길을 지나갔고 근로자회관 중앙시장 그리고 이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살았던 덕전마을 그냥 안양5, 6동 이쪽에도 굉장히 조그만 공장들에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거든요. 그런 기억들 그다음에 박달동에도 우리 그 नेपाल 노동자들이 진짜 몇 100만 원 월급을 안 줬다고 제가 이 신협에서 대출까지 해줘서 월급 좀 주세요 돈 2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저한테 갚지 않고 도망간 사장님도 있어요. 저 없는 살림에 그것을 일 년 동안 한 달에 20만원씩 대부를 갚았어요. 그런 노동자들을 봐주러 사장님 만나러 갔다가 있는 대로 욕을 들어먹었던 박달동.

그다음에 유원지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소풍도 가고 관악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던, 이런 그 지역 전제가 추억이고 삶의 터였었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항상 우리 집 중심으로 생각했으니까 그 근로자회관이 있었던 자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생명이 숨 쉬는 곳이지요.



1970년대 안양4동 백산로

여기는 안양이 어떻게 허파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간 자체가 가지는 정원 식물들, 그리고 그 체육관 옛날에 있었던 그 방안에서 체육관 우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정원을 내다보면 파라다이스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걸 체험하는 것들이 그 체험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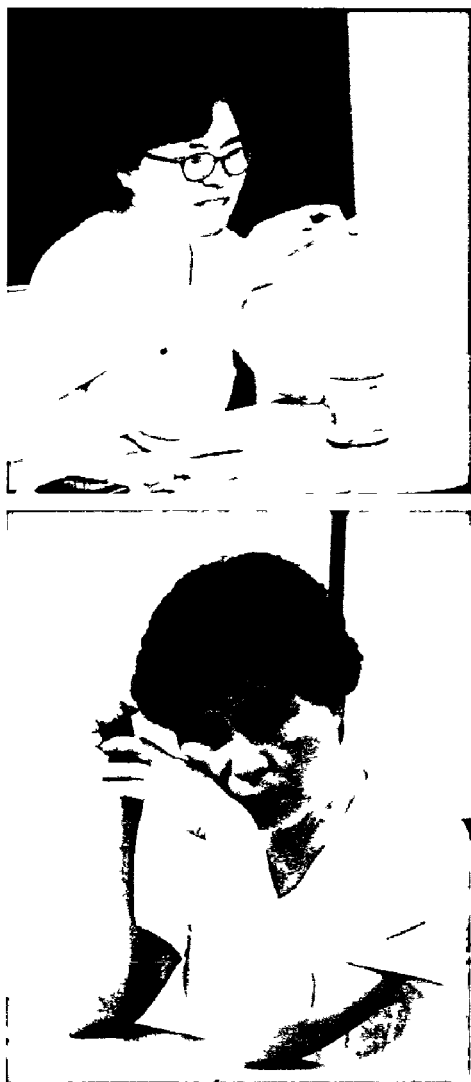
그때 복지관 안에 나누리예술단이라고 엄마들의 공연예술단이 있어서, 그분들이랑 사이판도 가고 독일도 공연하러 갔었거든요 그분들이 거기서 춤 무슨 민요 이런 것들을 다 지하실에서 하고 그 체육관에서 연습했었는데 그분들의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이곳은 정말 영적인 기운들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라는 것을 그저 오면은 저절로 기도가 일어나고 저절로 치유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자기들끼리의 작용이 일어나서 따로 치유니 뭐니 할 말을 할 필요도 없었죠 그다음에 그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생명력, 그리고 중앙성당에 모여서 새벽이면 모여서 기도하던 그 아주머니들, 그리고 그 하나하나 상가 상가마다 있었던 분들의 어떤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기쁨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만안구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제각각의 제주를 가지고 그 작지만 그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일구어내는 어떤 문화의 그 생산지 인간답게 어우러져 어우렁 어우렁 투박하게 사는 생산지다 이런 곳이죠 만안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곳이 시멘트 바닥이 되는 곳은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전진상이라는 곳이, 근로자회관이라는 곳이 그 안에서 자원자, 이용자, 그곳의 스태프들 모든 사람들이 아! 여기는 우리들만의 어떤 그~ 공간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곳이다

그러니까 저기는 정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해요 어디를 생각하면 가고 싶어야 해요 그리고 그곳을 생각하면 누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아! 거기 가면 저기 자 한 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해요 그저 가면 진짜 그런 곳이어야 해요 그럼 거기 가서 그냥 차도 마시고 밥을 먹고 막 웃고 떠들면 어느새 회복됐구나, 그런 곳이 어딘가는 있어야 해요 우리 마음 안에 고향 같은 곳이 고향이 그런 데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슬퍼진다는 거예요 시멘트가 해결해주지 않아요 저녁에 퇴근하는 곳이 그런 것을 절대로 해결해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뭐 너무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몇 개 문을 지나가서 만나야 되는 그런 곳으로 해결해줄 수 없어요 접수실에서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사람은 못 만나고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가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어디라도 저도 뭐 관장이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접수실에서 ‘어- 지금은 만날 수 없습니다’라고 이랬나 봐요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 높은 사람 아니니까 오면 누구라도 만나겠다 하면 만나자! 그래서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느냐면 거기서 무슨 국선 아니 태극 태극권 프로그램을 한번 열었을 때인데 약간 정신장애인 남자 분이 오셔서 가지고 관장님을 만나고 싶어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태극권 도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태권도 도장하면 관장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태극권을 하니까 그 태극권 선생님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관장님을 만

나고 싶다 내려가니까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태극권 배우러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태극권 선생님 있어요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 접근성이라는 것은 위치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접근성이라는 것은 그곳에 가면 열린 곳이다 누구도 만날 수 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다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전진상이라는 곳이, 근로자회관이라는 곳이 그 안에서 자원자 이용자 그곳의 스텝들 모든 사람들이 아! 여기는 우리들만의 어떤 그 공간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곳이다 그다음에는 그 돈으로 도저히 환산할 수 없었던 유형무형의 가치가 있는 곳이었다 인간적으로 그것은 문화이기도 하고, 예술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하고 하나의 사회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시멘트로 모든 것이 덮여지는 순간에 그리고 그냥 하나의 그냥 공간으로서나 이렇게 개념화될 때는 이미 그것은 사라진 거다 그리고 우리가 떠남과 동시에 그곳은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갔었던 그 모든 것은 추억으로 남았다 남았는데 그것도 가고 있는 사람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없다! 남아있는 신부님들이 그런 걸 잘 만들어 내서라 어 그리고 싶죠



전진상복지관 이금연 관장

저는 지유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가능하다고 하면 동네에 생긴다면 좋은데, 군포에서 지난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군포를 떠나 안양 군포에 있던 지하철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있었던 애기지 거기 안양 집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과 원망과 막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랬는데 나름대로 그 지하에서 여성들 송용미 신용선 선생님, 수원여성의전화 최종숙 선생님 윤순영 선생님 영성모임을 하면서 그때 여성분들끼리 모여서 자 마시고, 밥해 먹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생산적인 에너지가 나는 것 그런 시간 좀 갖고 싶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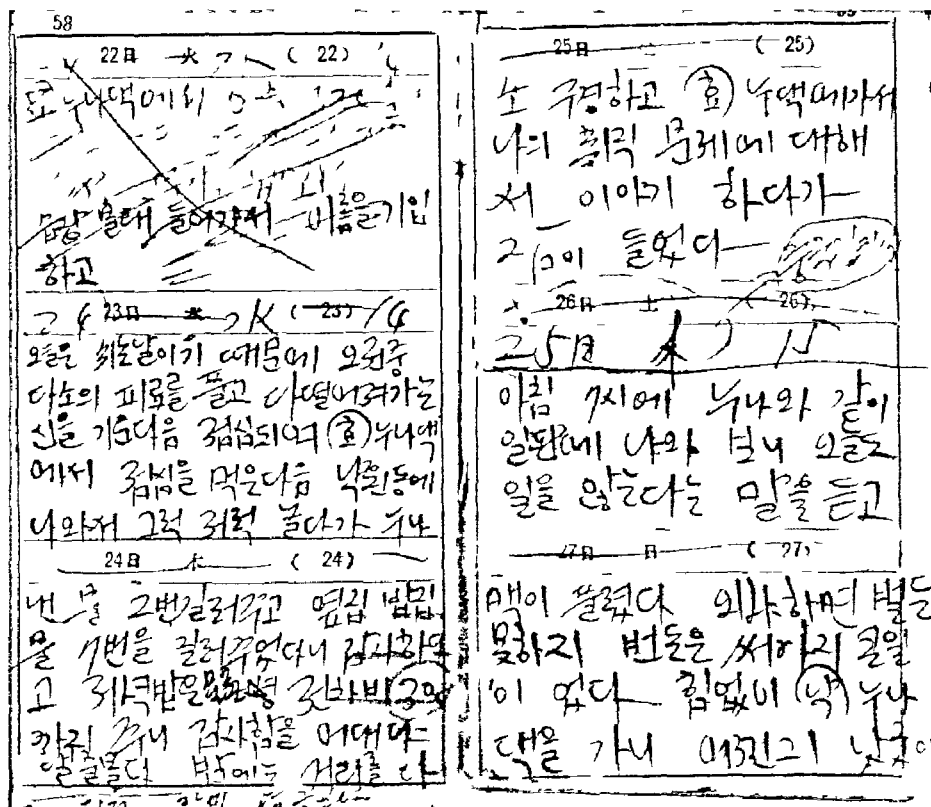
구술자 이금연(61년생, 여), 구술일자
2011년 7월 2일

책 72권으로 대동문고를 이룬다

안양의 자존심 대동문고, 현재 안양1동 668 33 본프라자 1 지하 12층에 약 1000여 평 넓이로 자리 잡고 있다 종업원 50여 명,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도서는 줄잡아 40여만 권 운영하는 규모로 보아 명실상부 수도권 최고 최상을 자랑하는 대형서점이다 단돈 1만 원으로 시작한 책방을 오늘날 대동문고로 일구어낸 사람은 전영선님이다

전영선 씨는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영광에서 서울로 상경했다

나야, 고향을 떠난 것은 뭐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가난한 정말, 돌밥 속의 조밥 순갈로 찌르면 아주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난한 처진 동네고 그래서 떠날 돈이 없으니까 중학교만 나오고 상급 학교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밥이나 얻어먹으라고 남의 집에 양자를 보냈는데 그 양자 가지고도 그냥 공부만 하겠다고 하니깐 그 집에서 벼 한 가마니를 주더니 나가라고 하더군 우리 집에는 하도 가난하니까 단 십 원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영광 거기에서 시간이 꼭 16시간 걸렸더라고 영광에서 서울역까지 오는데 서울 책가방 하나 들고 공부하고 싶어서 떠난 거지 그리고 가난하니까



오래된 일기장 물 7번 길러주고 저녁밥과 전차비까지

서울에 올라와 처음 시작한 일은 물을 길러다 주는 일이었다

맨 처음 한 일이 종로2가 낙원동에 거기 가면 공동수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음식점이 아래층위 따다닥 붙어있지 관자집처럼 공동수도가 있어서 물을 길러다 줘야 하니까 벼 한가마 가지고 서울 와서 내복도 없이 1958년 12월 1일 날 왔는데 와서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 밥은 인제 물을 7번 길러다 주면 밥 얻어 3번 길러주면 누룽지 얻어먹고 연명하고 거기 장갑이 없잖아요 거기서 장갑을 빌려가지고 하루노동하면 예를 들어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현금을 안 주고 전표를 주잖아 거기서 또 아리짱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만원 현금 받아야 할걸 종이로 받으면 팔전원에 장갑값이 없어가지고 빌려가지고 하루하고 그때는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꿀꿀이 죽 있잖아요 점심에는 삼원짜리 그거 먹어봤잖아

그 후 그는 중국집에 취직하게 된다

그때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그때 겨울을 지내야 하잖아 12월 1일 날 나와 가지고 12월 이십 며칠부터 저기 했더라고 도저히 어려우니까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을지로2가의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았지 회영루라는 있어 회영루라는 중국집의 주방에 취직을 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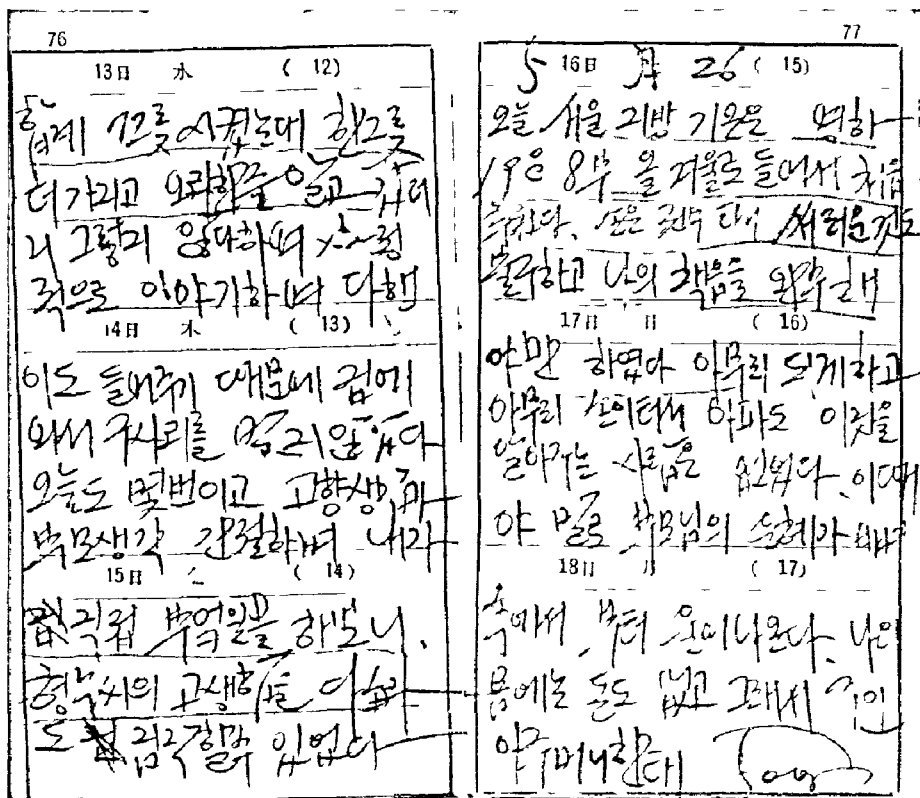
4日 金 (4)	7日 月 (7)
손을 씻고 물이끼를 물고 은 길러다니는 날 하루 전 은 배고파서 신사리집 한대기 물은 원고리까지 미군부대에 가서 장갑 2 5日 土 (5)	3
6日 日 (6)	8日 火 (8)
	1일 손 씻고 물고 한대기 물은 원고리까지 한대기 물은 원고리까지 한대기 물은 원고리까지
	9日 水 (9)
	이날 나쁜 바동은 조으 리야 바는 인제한 고생이 인제한 바는 인제한 고생이 클 하기 바는 인제한 고생이

오래된 일기장 물 3번 길러주고

거기 주방에 취직을 했는데 이게 그릇을 씻고 말이야 그러니 뭐 서투르니까는 뼈뚜르면 그릇이 깨지지 그래서 우동만드는 주방장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하나씩 깨지면 나중에 깨지면 몰래 눈치 보고 감주는 거야 중국 사람이 12시에 끝나면 뭐 석탄 같은 거 그런 거 끝나고 제일 하바리 주방에서 한 놈이 다 깨서 아침에 난로를 다 피고 또 주방에 피고 창고에 가서 영하 18도 20도 그럴 때라고 구정물 같은 거 문 열고 버리면 잔바람에 아가리 쪽쪽 갈라지는 거지 그리고 그냥 창고에 가서 이게 깨면은 이 저기하고 올라 보면 씻다 보면 얼굴이 거기도 까맣게 되어있더라고 석탄의 까만재 다다미방에서 뭐 이불이 있어 뭐가 있어 새벽에 벨 울려서 또 깨우는 거지 또 그때 일어나는 거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주방에 있는데 야 저놈의 폴에 우동 배달이나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원인이 돼서 배달을 했어

중국집에서 일하던 시절 그는 공부하고 싶은 의지를 신문 읽기로 대신하곤 했다 하지만 그에게 신문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다

내가 공부하려고 나온 놈인데 이런 데서 이 짓이나 해야 하나 그러다 보니까 피할 길은 화장실밖에 없잖아 화장실에 신문이라도 가져가서 읽을 라고하면 거기 팔년이 말이야 똥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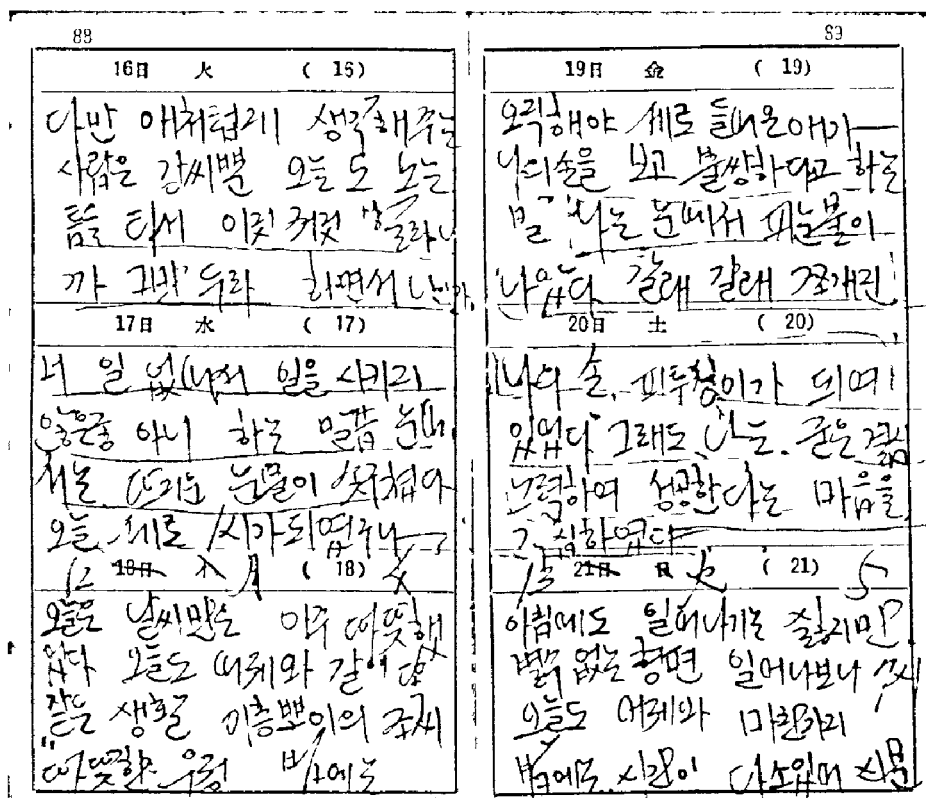


오래된 일기장 서울 기온 영하 19C 손이 터서 아파도 이것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때야 말로 부모님의 은혜가 뼈속에서 부터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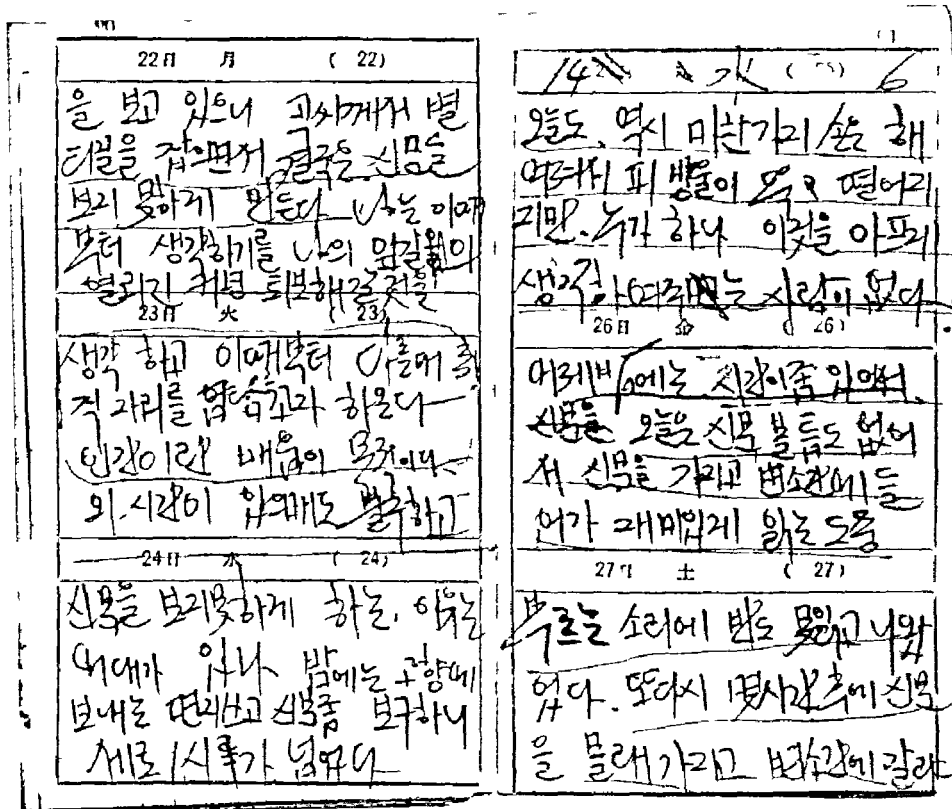
한데 말이야 신문 가져가면 풍냄새 나니까 가져가고 말라고 더럽게 신문을 꼭 붙잡고 뺏어버리고

1960년도 그는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봄이 되자 따뜻할 때 그때는 아이스께끼 있잖아요 아이스께끼 아이스크림 집에서 거기서 이놈의 아이스크림 소리가 나와야지 골목에 가서 외쳐보는 거지 아이스께끼 옛날에 병 같은걸 받고 아이스께끼를 주는데 그 병이 아이스께끼를 예를 들어서 세 개를 주면은 고거 병을 팔면 네 개 다섯 개 값이 된다고 맥주병이 비쌌다고 현금으로 받으면 예를 들어서 전원어지면 세 개인데 고거는 전 이삼백원 벌 수 있다는 거야 아이스께끼 집에서 다 수거하지 아이스께끼 끝나고 그다음에 등등 미는 거 등사 이런것도 땡튀기를 했잖아 땡튀기를 내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다 해가지고 실로 다 꺾서 양쪽에다가 매고 산동네 구멍가게 다 매고 구멍가게 마다 다 외상으로 까는거야 그다음에 동대문에 가서 머루지 장사를 했어 등에다가 한 열 포 사면은 의정부 동두전 할 것 없이 팔려다녔지



오래된 일기장 나는 눈에서 피눈물이 나왔다 갈래 갈래 찢어진 나의 손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래도 나는 굳은 결심 노력하여 성공을 다짐하였다



오래된 일기장. 오늘은 신문 볼 틈도 없어서 신문을 가지고 변소에 들어가 재미있게 읽는 도중 부르는 소리에 반도 못 읽고 나왔다. 또다시 몇 시간 후에 신문을 몰래 가지고 변소에 갈라!

1961년 5월 15일 친구의 권유로 그는 책자판을 시작했다

친구가 나보다 네 살 더 먹었는데 그놈이 고향의 동장은 아닌데 이장도 십삼 년 하고 그 런데 그래가지고는 야 이 새끼야 너는 전낭 책장사나 해먹을 놈이다 거기서 계기를 준 거야 왜그러냐면은 이게 단어장을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보고 거기서 계기가 되어서, 책장사 하려면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한탄장 여기가 괜찮을까 그래서 글로 간 거야 그 자리까지 가가지고 리 어카 팔고 그래가지고 인제 소자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인제 드디어 61년도 그때 61년도 4월인가 거기 저거였는데 내가 생일이 음력으로로는 4월 20일인데 내가 태어난 날이 양력으로로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이거든 그래서 내가 스승의 날이 태어나고 서점을 한 동기가 장사가 아니고 교육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했기 때문에 아 스승의 날 태어났구나 해서 내가 장립기념을 저기 를 장사 일을 내가 5월 15일로 날짜를 그래서 리어카 팔아가지고 그 앞에 포천상회라고

책이 72권이더라고 그래서 인제 돈을 계산해서 21만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그 양반이 내가 지금 안양에 와가지고 신세를 좀 평생 동안 갚아 야 하는데 그 기독교를 다니는 아주머니 한분이 있는데 거기서 팔죽장사를 서울에 인제 와서

결혼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진정에 와서 외동딸인데 나보다도 계산해보니까 열열살인가 지금 팔십칠팔세 되겠구나 그 양반이 앞에서 하다가 내가 조그마한 가게는 한 세 평정도 되나 방이 다섯 평 정도 방이 있길래 그 앞에 있길래 가게를 얻어가지고 하는데 앞에 팔죽장사를 하면서 나보고 자꾸 그러는 거야 젊은 사람이 이런 데서 있으면 전망이 없으니까 자꾸 나가라고 자꾸 나가라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사고는 안양과 연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그러자 사고가 났어 동맥정맥 다 잘리고 거기서 미군부대 의정부에 다 후송 되가지고 동맥정맥 다 이어서 지금 내가 병신이 됐어 군부대가 시설이 잘됐으니까 헬리콥터가 빨리 저기해가지 의정부 해가지고 후송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거기서는 1막이 끝났지 치료도 하고 서점도 하고 저기하는 동안에 아줌마가 하여튼 돈 얼마인지 털어서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저기저 안양에 발을 디더가지고 드디어

사고 이후 그는 안양에 정착하게 된다



1970년대 안양여고 사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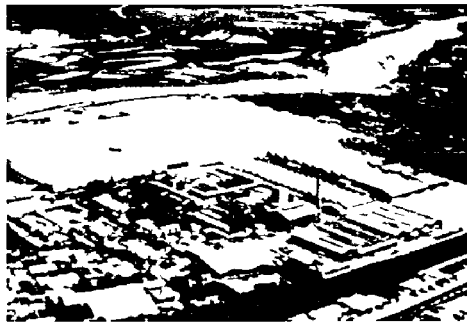
안양에 63년도 7월에 인제 안양여고 앞에 그때 옛날에 콩밭 수수밭 있는데 딱 집 한 채 있더라고 거기 콩밭 수수밭 집 한 채 안양여고 바로 앞에 그래가지고 내가 안양여고 그때 내가 와가지고 이제 거기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연탄불 피우고 그래가지고 좌판을 손수 사다가 짚지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군용 야전용 침대 놓고 자면서 국수먹어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전번에 그 아주머니 만났는데 나보다 한 살 나

하고 동갑이던가 그런데 거기 아주머니가 보편하고 그러는데 지금 살아있어 가끔 만나 저번에도 왔어

안양 금성방직과 태평방직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그는 좌판 장사를 시작했다

가장 크게 좌우된 것은 금성방직 태평방직이 좌우가 됐고 몇 시에 교대냐면 아홉여섯시에 교대가 들어가는 사람은 한 다섯 시반이나 들어가고 오는 사람은 여섯시 교대로 가서 장사해야 돼 일찍가서 주운데 거적대기 같은거 물고 딱 깔아놓고 자리찾고 있어야 돼 새벽 다

섯 시까지 나가서 좋은 자리 잡고 있어야 돼 거기 앞에다가 장사꾼들이 꼭 이렇게 양쪽에 길을 내야 될 거 아냐 정문에서부터 꼭 양쪽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책 대여섯박스에다가 그때 지금 생각하면 지금 돈으로 삼십 만 원 정도 됐다 그렇게 양쪽에다 쪽 놓고 나는 책 다섯박스 정도 거든 그전에는 책 박스가 덮고 열고 있어 책 두줄로 하면 박스가 요만큼 책도 들어가고 요런정도 다섯박스정도 실으면 그러면은 다 실어서 이렇게 놓고 옛날에는 카바이트 불빛이 있어 카바이트 불빛 꼭 켜놓고 거기서 이제 외상도 주고 아는 사람들이니까 수금도 하고 새벽에 다섯 시나 짓고 있다가 여섯시 일곱시면 다 끝나 이제 들고 나와 한 두 시간 두 시간 자야지 아침에는 본 점포를 열어 또 가져다 본점 이제 학생들이 또 몇 권 팔아 또 이제 짐싸 각 공장 회사 정문으로 가 회사 직원들은 책을 많이 봤어



1960년대 태평방직



1960년대 금성방직

좌판 장사를 하면서 그는 새로운 인연을 맺기도 했다

책을 많이 봤어 각 공장마다 순회하는 거지 동공물산 유유산업 아트제지 한국제지 뭐 그런데 다니면서 정문에다 점심때 깔아놓고 예들 들어서 한국제지 같은 그런데는 정문수위가 정진황 씨라고 나하고 잠 끝까지 인연 되다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딸이 정은혁이라고 남편이 한미은행 다니는데 그 인연이 지금까지 되는데 정진황 씨가 수위를 할 때 많이 권리를 봐주고 그래가지고 55세 때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또 다른데 취직해서 육십세 정년퇴직했는데 칠년인가 내가 서점에 있어가지고 77세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서 퇴직한 그런 인연도 있고

그에게 편의를 봐줬던 수위아저씨의 정년퇴임 이후 그는 서점에서 일하게 되었다

68년도 1월 7일날 이사 갔는데 거기다 세평 네 평 저기하고 서점하고 세 평 네 평은 방인데 거기서 뭐 가난하니까 여동생도 오고 남동



1960년대 한국제지

생도 오고 우리 어머니고 오고 서너평에서 자면서 거기서 68년도 1월 19일날 그래서 결혼을 7일 날 해가지고 그니까 한 19일 이니까 12일 만에 결혼한거지 금반지 하나 해줬지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금반지 잠깐 빌려달라고 그거 팔아서 그걸로 빚 갚아버리고

그는 대형 서점에 맞선 자신의 서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내가 서점을 시작했으니까 서점은 책을 통해서 교육이란 말이야 교육 쪽은 안양의 나는, 내가, 그 정말 어떻게 말아야겠다면 잡 건방진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에 자꾸 작고 큰 것을 양심껏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자동차를 비오는 날 뒤에 헤드라이트를 보고 가면 실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누구는 지난번에 대학에서 리포트를 쓰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어머니라고 리포트 썼다고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내가 아주 감동해서 칭찬했는데 난 그거야 뭐 지금 현재 책을 통해서 위인전의 무슨 공자다 맹자다 하느님이다 부처님이다 무슨 뭐 베토벤, 아니 언제 봤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이야, 신념이나 의식이나 행동이나 그것도 채우지 못하면서 그 유명한 사람은 왜 그거를 읽어가지고 실천도 못하고 하냐는 거야 나는 그런 주의야 내가 이렇게 자취 하는 거 보다는 노점장사 그때 돈 21만원부터 이만큼 일어났으면 뭔가 그 사람들 신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7평부터 9층까지 해서 서점 하나를 일궈냈으면 현재 바로 옆에 인물 있잖아 내가 가장 여기서 실패한 게 교보 저놈 새끼들이 와가지고 오기로 저게 그대로 있어야 내 인생도 그렇고 안양의 문화나 정서나 말 이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멋있게 게임이 끝나는데

그의 서점은 아쉽게도 2008년 11월 26일 부도가 났다

구술자 전영선(42년생, 남), 구술일자

2011년 7월 14일



대동문고 전영선

서민의 발이 되어준 신관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이 대중교통이다 안양에서 판교까지 그리고 영등포로 등집을 지고 가던 시절에 서민의 발이 되어준 버스는 커다란 위로가 아닐 수 없다 다 쓴 드럼통을 망치로 퍼서 자재를 충당하고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희미한 백열구 하나로 버스정비를 하던 노고들이 모여 안양 대중교통의 산실이 되었다

안양 대중교통의 산증인, 신관선을 만나다

안양 공립 초등학교 17회 졸업생인 신관선 씨는 안양 중학교에 다니던 중에 6·25 사변을 겪었다 아버지 고향인 충남 예산으로 피난을 갔다 온 신관선 씨는 이후 자동차 관련 일에 몰두하였다

17살 때 왔다 갔다 했어 폭격 맞아서 다 없어졌거든 없어졌는데 우리 집이 역전 앞에 롯데 백화점과 맞은 편인데 거기 집이 타다 말았다고 그래서 그걸로 거기에 살기 시작했지 그때는 내가 면허증도 없었지 내가 18살 19살 때 운전하기 시작했지 눈에 세워 놔던거 타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면허증을 56년 8월 10일인가 따고 58년도 군을 갔어

신관선 씨는 제대 후 본격적으로 자동차 관련 일에 종사하였다

69년도 그전에는 자동차가 별로 없었죠 56년도 그때에는 그런 게 두들겨서 만들고 타서 시작을 한 거지 제일 처음에 운수사업 시작을 한 것은 서울역에서 전호동 가는 차를 했었다고 그때는 서울에 전자가 있었지 그런데 전자가 없어지고 거기서 서울역에서 쫓겨나서 저기 을지로 6가에 국민의료원이 있었다고 거기서 전호동 가는 차를 했었고, 그리고 정량리에서 화랑대까지 가는 차를 했지 그전에 안양에서 서울을 가는 버스가 없었고 합승차가 있었다고 9인승 합승 절로에 마루 깔고 넘나드는데 그 당시에 버스는 노량진까지 밖에 못 가고 이 합승이 수원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합승이 있었다고 그래서 전호동까지 가는 우리 합승차가 덕수운수라고 수원까지 다니는 합승운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서울에서 잠시 서울 차를 샀다가 그 차를 바꿔서 수원에서 서울로 다닌 거야

이후 운수 사업은 활성화되었다



1980년대 신관선 회장



1980년대 삼영운수 7번 버스



1980년대 삼영운수 버스 안 모습

수원에서 서울까지 다니는 회사가 덕수운수가 있었고 협진운수가 있었다고 협진운수 사장이 수원 시 의회 의장까지 한 이지원이라는 사람인데 그 자를 갖게 된 거지 서울 자나 경기도 자가 병합해서 다니는데 나중에는 통합을 했죠 경기도 협진운수를 계기로 자가 마이크로 버스 그러니까 17인승으로 커졌지 그 연도는 그때가 61년이었지

그는 61년도에 생애 처음으로 버스를 샀다 버스 운영에는 안내양과 운전기사의 식사 제공, 심지어는 숙박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가 버스 땡기고 나서 이듬해에 화폐 교환이 됐다고 화폐교환이 됐는데 다른 데는 돈이 없잖아 우리는 버스가 땡기니까 금방 돈(현금)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돈(현금) 만진 기억이 나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해

협진여객에서 12대 가져왔을 때 이 당시에는요 협진여객으로 가기 전에 개별적으로 자가가 되었잖아요 그때에는 우리 자가 여기 안양에 열 몇 대 되었을 때 당시에 역전의 마당에서 다녔을 때인데 안내양, 기사를 우리 집에서 밥을 해먹었다고 거기다가 세워놓고 막 뛰어와서 밥 먹고 점심때 또 나가고 그래서 유원지도 가고 삼부리도 가고 정계도 가고 지금처럼 정기적으로 자 시간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차가 있어

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식구가 고생을 많이 했어 밥 해먹이느냐고 아주 안내양 밥도 먹여야 하고 안내양 잠자리도 제공하고 운전사는 자기 집에서 다니고, 안내양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텔레비전 드라마 나오고, 텔레비전 와서 구경하고 차도 집으로 가져와서 고치고

69년 12월 22일 삼영운수에 대한 창립과 이후 성장 과정을 그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윤장로라고 윤금로 사촌 형인데 지금은 80도 넘었죠 그때 당시에 안양읍 당시인데 자가 그때는 열대 이상이었는데 그래서 13대를 가져왔다고 수원서 안양으로 와서 안양서 유원지도 다니고 3번지도 다니고 그러다가 시흥에서 서면 4대가 있었고 전부다가 자동차가 13대 있었다고 그래서 시흥 군 안양 읍 당시에 13대로부터 이제 간관을 달고 상호가 생긴 거지 그랬다가 69년 사장님이 자가 35대까지 늘어났어요 나중에 번장해서 그러니까 번장을 했는데 윤사장님이 경영도 그렇고 옛날에는 자 운영을 기업으로 한 게 아니라 개개인이 회사는 삼영운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세금이며 뭐며 돈을 내서 돈을 벌었어 지가(자기가) 월급 주고 지가 운영을 한 거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기업화라는 문제가 생겨서 회사에서 기사한테 월급 주고 그런 시대가 들어와서 그게 70년도 안양이 73년도에 시가 되었거든 그때부터 어려움이 있어서 회사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나도 자가 몇 대 있었고 자주가 그때는 자주라 그랬거든 차주가 서울 사람도 있고 시흥 사람도 있고 뭐 정계 사람도 있고 많이 있고 그랬는데 사장이 못하게 되었어요 이후 77년 9월 13일 날 임시 주주 총회를 해서 내가 사장이 된 거지

이후 날로 높아지는 대중교통의 수요로 인해 삼영운수는 부광교통으로 분리되었다

안양시가 번장을 하다 보니까 자가 많이 늘어나, 늘어나서 79년도 그니까 77년 78년 79년도에 자가 82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 것 아니네요 뭐라 그럴까 의견들도 그렇고 그래서 79년도 말로 버스 자격 면허 분리인가를 해준다는 공고가 있었다고 12월 말로 다 부광교통이라는 것이 탄생이 됐지 그래서 80년 1월 5일 자로 부광교통 회사가 분리됐지 삼영운수는 그대로 있고 부광교통이 분리된 거지

버스 운수 계속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는 서울시에 토큰이라는 게 있었어 그런데 경기도에는 토큰이라는 게 없거든 그래서 우리 자가 서울로 다니고 영등포로 다니고 다니니까 토큰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토큰을 서울에서 찍어서 서울버스만 쓰는 거라고 경기도는 토큰이 버스 회사에 반 이상 그걸로 들어왔다고 교환을 해야지 월급도 주고 그러니까 경기도에 가서 이야기할 것 아니야 경기도에서는 답변하기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



1980년대 삼영운수 차고지와 직원들

다 서울이 만든 것이다 서울 가서 만든 것이다 서울 가서 이야기하면 받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경기도 업자들은 다 그랬을 것 아니에요 행정계장이 그 당시에는 대위급 이런 사람들이 과장 사무관 그걸 했거든 그렇다고 이야기를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안양시 그전에는 통일주체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걸 교환을 그전에도 교환을 해줬다고 업자들끼리 통해서 그랬는데 조금이라도 뽕따구가 나면 안바꿔주고 동결시키고 아주 고질적인 나쁜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완전히 통일시켜서 바꿔줘라

버스 노선에 대한 사연도 깊다

서울 노선 새로 생기면 서울 신계에서 서울 쪽으로 15km를 우리 경기도 자가 갈 수 있고 시계에서 15km 경기도로 올 수 있고 이런 교통 사업법이 있다고요 우리가 15km를 가려면 여기서 시흥으로 해서 사당동으로까지 밖에 못 간다고 못 가는데 서울 고등학교가 서초구에 있거든 서울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 가야 하는데 자가 거기까지 밖에 못가니까 수원시에서 학교에서 들고 일어난 거지 그래서 거기까지 가게 되었다 그런 여러가지 말도 못해 지금은 안정이 돼서 고정된 것 같지만 그때는 법이 라는 게 없는 시대야

그는 만안구를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만안구는 발달이 거의 없었죠 뭐 아파트도 현대 아파트가 삼익아파트가 처음 생기고 두 번째 현대 아파트 단지가 생긴 건데 이쪽으로다가는 아파트 단지도 없었고 그때까지는 평촌이 생기기 전에는 평촌이 절대 농지였기때문에 이쪽으로만 발전이 있었는데 평촌이 박정희가 짓고 나서 절대 농지가 없어져서 근대 신도시가 된 거죠

버스 운수업 종사자답게 그는 안양시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안양은 내가 뭐 안양 본토고 그러니까 사는 동안 여기 살 테니까 안양이 잠 좋아요 그런데 행정관 몇 사람이 결과적으로 시장이랄까 관공서 직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몸을 던져야 한다' 시민한테 던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눈물 나는 일이 있었어 2002년도에 모든 버스를 안양시에 헌납한다는 공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시장한테 주고 나는 잘 못하겠다 나중에 추진위원 선정해서 해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안 되면 팔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지금은 6월 공용 자고지가 됐지만 그전까지는 안양 공용 자고지가 없었다

고 그러면 안양 시장이 늦게까지 광명이고 의왕
이고 군포고 뭐 이렇게 됐는데 안양은 없는 거
북이 행정은 이걸 운수업자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잘 한 게 아니고 이게 급해요,
유원지 그게 급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돈 580억
들여서 유원지 만들고 장사꾼들 그거 장사 잘돼
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분위기에 따라서 먼저



신관선

만들고 나중에 할 게 있는데 뭐든지 그렇지 우리 버스 터미널 만든다고 그럴 때 노력을 했다
고 지지만 결과가 없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지 평존에 예를 들어서 신도시 만들 때 공영 자고지
1000편 마련을 못하나

신관선씨의 생애사를 만안과 안양시의 기억과 연결시켜 보려 했다 그 중 버스 운행
및 관리에 대한 안양시에 대한 그간의 감정은 당분간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듯 보였다
구술자 신관선(36년생, 남), 구술일자 2011년 9월 6일

두레정신을 싹 띄운 새마을금고

안양의 대표적인 사회 조직으로 협심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끈적끈적한 전인적 관계는
사람 간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고 사회관계를 윤택하게 해주는 순기능이 존재한다 인간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충족하고 이웃끼리 화합하며 서로 돕는 삶을 위해 협동을 통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사회 조직을 형성한다 이러한 사회조직의 틀 속에서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협동사회의
모습을 추구한다

조합원 모두가 주인,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서로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생활 전반을 향상시켜 이웃끼리
화합하여 서로 돕는 가운데 조상전래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상부상조의 윤리와 근면
하고 절약하여 저축에 의한 경제력 증진원리를 통하여 더불어 잘 살아 보자는 목적 아래 자
발적으로 조직된 협동제이며 그것이 곧 새마을금고 기본 이념이다

새마을금고의 이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상부상조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력 증진의 원리이다 다시 말하면 서로 돕고 협동하여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고 개인적으로

는 근검 절약하여 저축을 통한 소득증대로 지역 경제력 증진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개인 및 지역에 기반을 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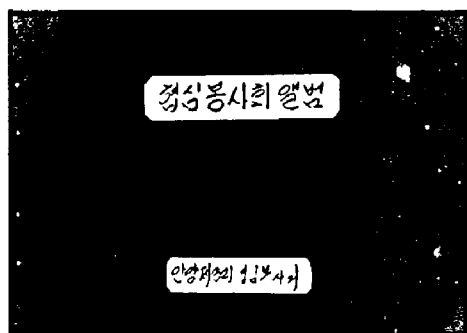
새마을금고가 주민의 자발적인 협동조합운동인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협동조합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서 차용할 수 있다 우선 보수적 견해로 경제 약자가 자본주의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의 모델이 있다 반면 자본주의의 비판적 대안제도로 ‘협동조합’은 현행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려는 진보적인 협동조합 모델이다 이러한 협동조합론

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이념적 성격은 전자 쪽에 가깝다

새마을금고는 “자본주의에서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고 경제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해 조직한 결사체”이다 다만 협동조합이 구성원 스스로 “자발적”인 결합체인 반면에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결사체인 성격보다는 관변적인 성격이 강하다 새마을금고의 관변적인 성격은 우리 역사의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

1961년 5 16 군사혁명은 대국민 의식개혁 운동인 재건국민운동의 도화선이었다 박정희 군사정부가 내세운 ‘혁명공약’의 최우선 과제가 낙후한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재건국민운동은 우리 민족 인고의 세월인 36년 동안의 일제 식민지, 6 25 동족상잔의 비극, 자유당 정권의 부패와 핏박을 겪으면서 도탄과 실의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준 거국적 의식개혁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마을금고운동은 빈곤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근검절약의 철학을 일깨워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준 협동운동의 실천이었다는 점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재건국민운동이 주창한 자주, 협동, 개혁의 지도이념과 운영방향은 마을금고 지도이념의 줄거리 또한 70



안양3리 협심봉사회 앨범

지역사회 발전은 위해서 역군이 모였나(현충기념)



1971년 협심봉사회 회원

이렇게 길고 (금정방적살~와드보드길까지)



1971년 협심봉사회 활동

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인 운동으로 생겨난 새마을운동 이념의 뿌리로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왔다(새마을금고 25년사 p 92) ”



1977년 8월 4일 개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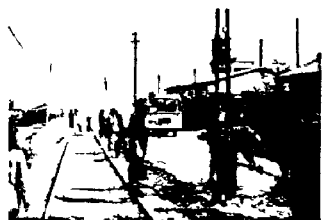


1977년 8월 4일 개포동

내고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우리들은 청년봉사대를 선봉이 되어 일한다



1977년 8월 4일 개포동



1977년 8월 4일 개포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청년봉사대

1964년 관 주도형의 재건국민운동은 사단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주요 사업의 중 하나로 마을금고 운동을 추진하였다

“절미운동을 통한 마을금고(재건 신용조합)운동은 중앙회 사무국 산하 개발국에서 담당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이의 담당자들에 의해 주도된 강습회는 정제된 농촌사회를 일깨우는 동기를 부여하고 마을금고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몽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설립에 이르기까지 적게는 두 번에서 많은 경우 서너 차례 강습회를 통하여 비로소 하나의 금고가 탄생되는 수순을 반복하였다”(새마을금고 25년사 p 97-98)

하지만 새마을금고가 여타의 서민금융기관의 설립 목적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서민 금융기관의 분류는 특수은행인 국민은행과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저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명	목적
국민은행	일반목적이나 소규모기업에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 경제적지위를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호신용금고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거래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용협동조합	상호유대를 가진 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구성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국민정신의 배양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마을금고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지역개발”과 “국민정신함양 , ‘자주적인 협동정신’을 강조한다 이러한 설립 목적의 취지는 현재까지도 남아서 지역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08년 현재 안양에는 10개의 새마을금고가 존재한다 전제 자산액은 812,403백만원이고 711,342 예금액, 578,115 대출액이다 회원 수는 263, 123명이다

마을 조직, 협심새마을금고

1963년 이래 재건국민운동 향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마을금고는 주요 시책사업으로 육성되었다 새마을금고(Community Credit Cooperative)는 이웃 간의 서로 돕고 사랑하며 협동하는 우리 고유의 자율적 협동조직인 계, 향약, 두레 등 마을생활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협동조합의 원리에 의한 신용 사업, 공제사업 등의 생활금융과 문화복지 후생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회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국민 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금융협동조합이다

1970년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자 협심새마을금고가 창립되었다 이 모임을 주도한 변원신 씨는 협심새마을금고의 창립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1969년 4월 19일 당시 내가 안양3리 이장으로 있었는데 그 일을 해보니까 60년도에 걸려온 길을 보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도로가 포장도 안되어 있고 괴난 나오신 분들이 동네 많이 사시고 그 당시에 관자존으로 봐야 되고 사는 사람들이 어렵고 마침 그 당시에 조선직물주식회사 일제 때 있었던 거에다 금성방직이라는게 들어 와가지고 경북이나 이런 여러 군데에서 여공들을 많이 와서 직물을 짜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 안양3동이 가난하지만 셋방을 그러는 그 사람들이 많이 살은 시기가 그때라고

사회간접시설이 지금처럼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봉사회를 중심으로 동네 복구 사업이 진행되었다 동네 복구 사업을 하던 중 지역에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마을금고 설립은 필수적인 과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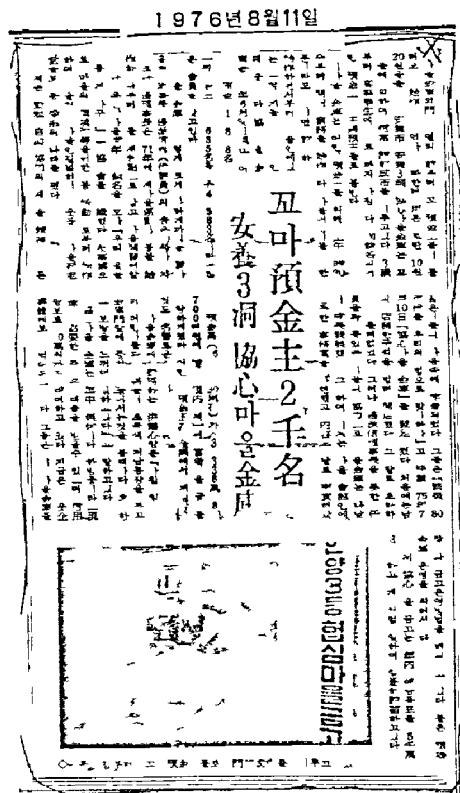
‘마을금고를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72년도까지 봉사를 하면서 이전에는 동네에서 그냥 일만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동네에 하수도를 만들어 줄래도 이때만 해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봉사회가 손으로 삼으로 팡이로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돈이 있어야 하니까 마을금고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72년 4월 19일날이 장립 발기인 총회를 하는데 당시 우리가 30명이니까 그 당시에 돈이 전원씩 해서 삼만원이 있었는데, 에~ 삼전원은 먹는 데 쓰고 이만 질전원가지고 장립총회를 만든 거예요

창립 이후 마을금고는 명칭이 바뀌면서 지금의 안양 협심새마을금고가 되었다

새마을금고를 72년 5월 5일 마을금고 설립 등록을 하는데 73년도에 그때 시흥군 시대니까 나중에 안양 협심으로 되는 과정은 동기 내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동참해주시고 이거 만드거지 우리들 협심 새마을금고에 협심 봉사회가 물론 앞에서 섰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해주신 거야 호응을 해주셔야 하니까

1970년대 당시 안양 협심새마을금고는 지역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의 믿음과 신뢰성 같은 거는 조금 보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봉사를 했으니까 이런 거 만들어도 잘 해주리라고 동참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당시에 사실 조금씩 저축을 해줘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정부보다는 마을금고 자금 운동 본부에서 굉장히 우리가 인기가 있었어요 교육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하는 거니까 운동을 잘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래저래 초대 이사장이 취임이 돼



1976년 협심새마을금고 신문기사

요 73년 5월 31일부터 75년 5월 30일까지 내가 이사장을 하고 마을금고 등록을 하고 시흥 협심 새마을금고 만들어서 초대 이사장이 내가 되는 거죠 그게 73년 원래는 72년도에 했다고 봐야지 장립총회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설립등기하고 이사장 취임을 하고 73년 5월 31일부터 75년 5월 30일 마을금고 연합회에 가입도 하고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마을금고니까 가입을 해서 마을금고 육성을 잘했다고 해서 최우수 금고를 받았고요

협심새마을금고의 지난 과정들

- 1972년 4월 19일 시흥협심새마을금고 창립 및 발기인 총회 발기인대표 변원신 외 29명 자산 2만7천원)
- 1974년 6월 18일 마을금고 연합회 가입
- 1975년 7월 11일 마을회관 준공 여수신 업무 개시 회원 909명 총 자산 4 109천원
- 1979년 3월 4일 새마을금고 지도자 전진대회 대통령 표창
- 1979년 10월 16일 시흥협심새마을금고에서 안양협심새마을금고로 변경
- 1980년 1월 29일 총자산 10억원 달성
- 1980년 11월 17일 총자산 10억원 달성탑 수상
- 1983년 12월 16일 경기도 새마을금고육성 최우수금고 표창
- 1988년 1월 3일 총자산 50억원 달성
- 1990년 8월 28일 총자산 100억원 달성
- 1992년 9월 1일 새마을금고 공제 새마을금고 임직원 상조복지회 업무 개시
- 1992년 10월 27일 안양시 공과금 수납 대행 계약 체결
- 1992년 11월 26일 연합회 제1회 새마을금고 특별포상 동장 수상
- 1994년 12월 22일 총자산 200억 달성
- 1997년 5월 26일 제2회 새마을금고의 날 내무부장관 표창
- 1997년 11월 17일 총자산 300억원 달성
- 1998년 7월 20일 새마을금고 전국 온라인망 개통
- 2000년 6월 21일 총자산 400억원 달성
- 2002년 4월 18일 총자산 500억원 달성
- 2005년 총자산 700억원 달성
- 2000년 1월 16일 제2지점 대농지점 개점
- 2006년 12월 7일 총자산 800억원 달성
- 2008년 6월 11일 수표발행 실시
- 2008년 6월 30일 총자산 900억원 달성
- 2010년 11월 26일 총자산 1000억원 달성
- 2011년 4월 40일 자산 1 061억 공제 700억 달성

변원신 씨는 개인적으로 마을금고를 만들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는 근면과 협동보다는 두레 정신 품앗이 정신을 강조했다

원래 일을 해보니까 동네가 가난하잖아 그 당시만 해도 가난하니까 가난한데 돈 버는

거 밖에 더 있겠어 협동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협동정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류달영 회장님은 두레 정신이라고 그랬거든요 두레 품앗이 어떻게 보면 근면 자주 협동은 새마을 운동에서 이야기한 거고 류달영 회장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두레협동품앗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
다 그 당시 말은 우리가 교육받을 때 그런 말을 받았지 근면 자주 협동은 그 후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회원이라는 게 출자금은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단 말입니다 출자금은 이 마을에 자산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출자금 그다음에 적립금 그게 자산이거든 근데 마을금고에 회원들이 가져다 놓은 돈을 가져다 넣어서 대출받고 예금하고 그런 사람들은 준회원이라고 하는 거고 원래 이제 그런 사람들도 출자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상부상조라고 할까 두레정신이라고 할까 좁혀가면은 그렇게 되고 넓으면 협동정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옛날로 말하면 두레정신 품앗이 운동을 한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안양3동의 지역이 발전이 된거죠

협심새마을금고가 마을에 기여한 점을 변원식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육대회 등 마을 곳곳의 복지를 제공해준 것이다

마을금고 운영해서 어떠한 주민에게 환원 사업을 뭐했냐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
요 마을금고는 보험금이나 타 먹고 그런 건 아니예요 우리가 한 게 매년 그 당시는 제육 대회 이런 것이 안양시의 예산이 적어가지고 우리가 많이 도와줬다고 마을금고를 만들어가지고 순이익을 그다음에 동네에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게 없었어요 지금은 정부에서 복지혜택이라고 해서 별의별 혜택이 다 있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지 마을 경로당에서 모두 한 곳에 마을금고에서 5만원 정도를 지원해드렸지 동네 제육대회다 동네 이웃돕기 뭐 이런 거 있다던가 동네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환자가 발생한다 하는 데는 마을금고가 나름대로 개입이 안 된 데가 없었죠'

근래에 여타의 은행이 넘쳐나면서 협심새마을금고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는 그들만의 자력갱생을 시도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일을 나의 일처럼 서로 돕는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여타 은행들은 경제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것에 비해 새마을금고는 아직까지 초심인 두레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인기가 엄청 많이 떨어졌지 그나마 시에서나 동에서 공무원하고 연결해가면서 안양시에서 무슨 단오제 행사한다 그러면 단오제 행사는 시에서 돈이 나와요 제육대회도 돈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못한다 이거예요 뭐 교통비 해가지고 못한다 그러니까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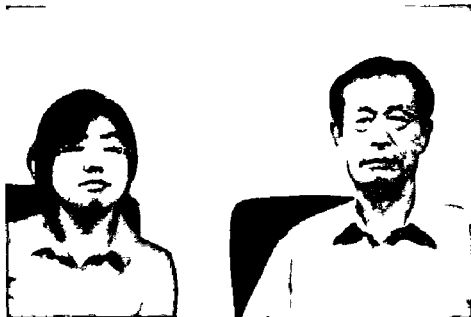
금고에서 지원은 해주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우리 마을금고에 뭐 특별히 봉사 하는 것은 없는데 여기 우리 안양 3동 협심은 여성 마을금고 부녀회라는 걸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내가 알고 노인네들 한 달에 한 번이고 밥을 해주면 안 되니까 부녀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삼계탕도 만들어 준다던가 마을금고 자원봉사자 부녀회 그러니까 일일 찻집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요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음식 만들고 다과 같은 거 사가지고 과일도 짹아주고 뭐 이런 거지요

그는 안양 협심새마을금고가 자산이 튼튼하다는 점에서 특색을 자랑스럽게 설명한다. 타 새마을금고가 부실하고 자산이 적다는 점보다 안양 협심새마을금고는 투명하게 자산이 관리되고 자산의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든든하다.



협심새마을금고 연혁

2008년 이후부터 부실 저축은행과 엮이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경제적 부실에 대한 이야기도 술술 나오곤 한다. 은행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두레정신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새마을금고의 설립 정신이 남아있기에 지역적 연고가 더욱 공고화되어 있는 곳이 바로 새마을금고이다.



면담자 김민정과 구술자 변원신

금융화의 시대에 두레정신에 기반 한 새마을금고가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지, 여타의 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새마을금고가 투명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지역주민과 ‘정’을 쌓을 수 있는 관계 설정이 관건일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의 두레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현재 새마을금고가 지역적 협업정신을 고양할 수 있을 지가 사회조직으로서의 새마을금고에게 기대하는 바이다.

구술자 변원신(33년생, 남), 구술일자
2011년 8월 1일



협심새마을금고 전회장 변원신

물로 맺은 나눔공동체, 충훈 약수탕

대형 찜질방에 밀려난 동네 목욕탕, 그러나 목욕탕 옥상에 바람이 사뭇히 흔들리고 있는 목욕탕 수건은 지나가는 중년층에게는 아련한 추억 중의 하나다. 명절 즈음이면 목욕탕에 북적대던 아련한 추억 하나쯤은 만들어 주던 곳이 목욕탕이다. 아직도 안양의 공간 한 켠에는 그 추억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충훈약수탕이 있다.

충훈 약수탕과 인근 지역민들의 지하수 사용

대도시 특히 수도권에 살면 수도물사용을 당연시한다. 2010년 안양시 상수도 보급률은 99.9%이다. 수도물 보급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0.1%가 존재한다. 충훈 약수탕을 사용하는 지하수 이용자가 그런 사람들이다.



충훈약수탕

석수3동에 있는 충훈약수탕

석수3동은 조선 시대 충훈부 관아였다. 옛날에 충훈부는 지금의 보훈과 같이 공신들의 집과 농토가 있었던 곳으로 경주이씨가 10대째 살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충훈 약수탕이라는 목욕탕이 있는데 그 탄생 배경과 사연이 매우 독특하다.



1970년대 충훈부 파란색 지붕 옆으로 비닐하우스가 보인다

이천우 씨의 부친은 경주이씨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충훈부에서 논농사를 크게 지을 만큼의 넓은 땅이 없었다. 그래서 6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꽃끼를 수입해서 꽃 재배를 시작했다. 당시에 하우스재배를 시작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70년대 이천우 씨의 부친은 꽃 재배에 이어 당시 수원농촌진흥청에서 시험재배 중이던 느타리버섯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느타리버섯을 키울 물로는 공업화로 오염된 안양천이 어렵게 되자 지하수를 개발해줄 것을 요청하고, 70년대에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된다. 지하수 개발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던 중 80년대 충훈부 들녘을 토지공사가 주택단지로 개발을 하면서 농토는 단지로 편입을 시키고, 기존에 있던 자연마을은 토지 개발이 안 돼 보존이 되는 상황



충훈부 약수물



이천우

이 발생한다

농토에서 주택단지로 변화하게 된 마을에서 더 이상 농사는 힘들다고 생각한 이천우 씨의 부친은 지하수는 있고, 아파트가 들어서자 목욕탕을 하기로 하고 85년에 목욕탕 공사를 착공하게 되고, 지하수인 약수가 올라오는 물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약수탕으로 지으라는 충고에 충훈약수탕으로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지하수 개발로 천연암반수가 나오는 상황에서, 주택단지에 들어오는 상수도물 충훈약수탕 인근의 계량기 기준 30개(지금은 빌라로 변해서 100호 이상 사용)가 상수돗물을 거부하고 기존의 지하수를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하수 계량기 30개를 현재까지 충훈약수탕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천우 씨 부친이 살아생전에는 본인이 관리하다가 이후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30개 계량기 가구가 빌라로 전환된 상황에서 현재는 이천우 씨 모친이 관리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전의 지하수 개발과 택지개발에 대해 잘 모르는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지하수 물에 대한 고마움과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함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훈 약수탕을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인 이천우 씨(1964년생)는 충훈부 약수탕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업화의 과정 속에서 안양천이 더 이상 농업용수와 음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충훈부를 중심으로 지하수 사용을 추진했던 것이다

10여 년 전부터 농사를 짓던 안양천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던 지역인데 60년대 이제 안양이 공업화가 되면서 안양천이 매우 오염이 되었잖아요 그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도 없고 또 식용수로도 쓸 수도 없는 상황이니깐 75년 정도로 기억이 나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안양시에서 안양천 물로 농업기반시설인 식용과 농업용수로 쓰는 게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서 몇 개 마을에 간이 상수도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자체 주민이 약간의 자부담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중훈부 지역에 간이 상수도라는 것을 관거죠 지하수를 파서 이

용을 했는데 물이 좋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이 스스로가 약수 물이 나왔다 물이 좋으면 약수물 이라고 그랬지 옛날 사람들이 약수 물이 나온다고 스스로가 약수라는 명칭이 정해진 거고 이방 인이 정했다기보다도 만안 마을사람들이 스스로 입에서 입으로 나오게 된 거지요

현재 지하수 물을 이용해 목욕탕을 건설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농업과 도시 근 린 지역의 화훼농업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지자 지하수 물을 활용하게 된 방 도를 모색하게 되었다

안양전이 오염돼서 그 물로 농업용수를 쓰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오염된 물 이니까 그 물을 끌어서 벼농사를 지었거든요 물이 오염돼 더 이상 벼농사가 될 리가 없죠 그러 다 보니까 시에서 그 당시에 도시 계획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마을 주택 단지로 택지개발하는 걸로 조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토가 없어지다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님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뭘 할까 하다가 지하수 물을 활용 하자 이런 게 있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제 벼농사도 지었어요 느타리버섯을 대량으로 재배했었는데 그 버섯농 사가 지하수 물을 사용했어요 순수하고 깨끗한 물인 지하수가 자체적으로 그때 농업용수(지 하수)를 관 거죠 아주 깊이 그래가지고 깨끗한 지하수가 대량으로 자체적으로 약수물 말고도 나왔어요 대량으로 많이 나왔어요 좋은 지하수가 많이 나온 다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무언 가를 할 수 없을까 하다가 아버님이 목욕탕 사업을 구상하게 된 거고요 그 물을 이용해서 목욕 을 하다 보니까 이름을 지을 적에 약수물 가지고 목욕탕을 하니까 약수탕이다 해서 이제 약수 탕 사업이 시작이 된 거죠 사업장의 명칭이 그렇게 유래가 된 거죠

깨끗한 지하수 물인 약수물을 사용하는 목욕탕이 바로 약수탕이다 약수(藥水)는 먹 거나 몸을 담그거나 하면 약효가 있는 샘물이다 약수물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통 한다

현재 목욕탕 운영 상황은 어떤가가 궁금했다

요새 뭐 24시간 킴질방에서 대형으로 시설이 좋은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옛날 재래 식 뭐 동네 목욕탕이니까 잘 되지는 않죠 동네 그냥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예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순수한 동네 주민이죠 외부에서 시설 잘 됐으니까 찾아가고 킴질방 같은 것 젊은 사람들 멀리서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 목욕탕은 순수한 재래식 목욕탕이라고 봐야 죠 동네 재래식은 다들 안 되는 추세 아니예요 슈퍼마켓도 대형 마트나 이런 데가 잘되지 동

네 조그만 구멍가게 안 되잖아요 이지가 다 이런 상황이니까 마찬가지로 그럭저럭 유지해 가는 거죠

좋은 물을 사용한다고 하던 약수탕도 찜질방과의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대도심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목욕탕이 브랜드가 될 수 있다

도심에서 지하수를 음용으로 사용하는 공동체는 흔하지 않다 그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다 지하수 관리 문제가 관건이다

지금은 계량기 한 30개 정도인데 세대수로는 계량기 하나에 여러 가구가 쓰다 보니까 가구 수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60-70가구 이상은 쓸 거예요 계량기는 30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전에는 훨씬 더 많았죠 한 마을에 다 쓰던 거니까 물이 여유분이 생기니까 그 당시 85년도에 시작한 건데요 그 당시 그것만 가지고 가능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입주하고 빌라지역으로 완전히 주거지역이 돼버렸어요 손님들이 늘어나니까 약수물만 가지고는 이제 물 양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는 음용수로만 쓰고 버섯 농사용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만 가지고 지금은 목욕탕 영업을 하게 된 거죠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하수 계량기 관리를 누가 하는 것이 최대의 문제이다

지금도 계속해서 어머니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머니도 젊으시고 저도 활동을 하고 그럴 때니까 그랬는데 어머니도 관절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가지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전기요금이 한전에서 우리한테 와요 그주를 사용한 양을 다 이제 계량기를 30개 정도를 조사해서 1/N로 나누는 거죠 각 가정에 쓰는 집에 전기요금 받아요 그래가지고 모았다가 한전에 전기요금을 내는 거죠 그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고 연로하시니까 관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일부터 쓰시는 분들한테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분에게 의뢰를 하던가 지금 같은 세상에 자기 직장 생활하거나 자기 사업하는데 그걸 누가 관리를 하려고 해요 일일이 돈 만지고 계산하고 다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그 물을 없애자 뭐 그냥 상수도를 썼으면 편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도 변하고 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대부분 서민이고 수십만원의 돈을 대야 상수도를 대잖아요 안양시 상수도를 대려면 돈도 들어야 하고 수도물을 주민 입장에서는 목돈을 들여가면서 안 좋은 물을 들이는 거야 돈 안 들이고 그냥 깨끗한 약수물 마시는 거를 돈 들여가면서 수도물

을 대려고 해요 끓여 마셔야 하고 요금이 비싸요 상수도 요금이 이저는 전기세만 1/N로 나누다 보니까 리터당 가격이라고 해야 하나 가격이 싸요 사용요금도 싸지 목돈도 안 들어가지 깨끗한 물이지 그것을 누가 버리려고 하겠어요

지하수 관리를 노부모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사용에 난감한 상황이다 사용자를 위해서는 폐지하기도 난감하지만 관리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다

지하수 사용자들은 물에 대한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

종교 만족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그 물을 쓰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정에 전화 한통만 하면 시정에서 바로 다해주는데 물론 돈을 내야 하지만 뭐 자기가 일 년 365일 마셔야만 하는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물처럼 신제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해롭다고 하면 억만금을 줘도 본인들이 싫다고 하지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피해가 간다고 하면은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될 문제를 수십 년간 그렇게 하겠어요 주민이 스스로가 만족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 관리하기가 벅자니까 꺼리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건 봉사라는 게 원해서 불가피하게 또 해야 하는 상황도 있는 거고 봉사죠 스스로 어떻게 아는 사람들도 지금은 언젠가 한번 시정에서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수시로 터져요 지하에 매설된 관이 겨울에 얼기도 하고 옛날에 매설한 거라서 터지기도 하고 그런 거를 바로 설비업자를 불러서 공사를 하고 그런다고요 누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터진 관 밑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이 안 나오잖아요 불편하죠

이러한 지하수 사용에 대한 애로사항은 세입자들은 잘 모르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안양시청 담당 관련 부서에도 지하수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 제반 사항을 관리하기보다는 자율적인 역할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날이 갈수록 지하수 관리에 대해 어려움이 더해져만 간다

어머니께서 목욕탕 운영하시면서 에피소드나 약간 지역의 지하수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물은 공공사용하고 있지만 지하수 관리는 한 집안에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잘모르고 항의를 해요 마지 뭐 우리가 봉사하는 건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답답하니까 항의를 하고 그래요 자초지종 설명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옛날 충훈파출소 자리는 지금 카페로 변했다 저
음 이사 온 주인은 지하수를 쓰는 것에 대해 신기
했다고 한다

꼬덕꼬덕하고 알았다고 하고 가죠 그런 게 애로상황
이 있죠

지하수 사용에 가장 큰 어려움은 다음과 같
다 지하수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막대
한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의 문제이다 1996년
도에는 그나마 이천우 씨가 시의원이었기 때문
에 안양시에서 지원금을 제공해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난감하다

노후가 되가지고 큰 전환점이 그때가 96년인가 97년인가 시의원 초선 때인데요 그때 설
날 직전이에요 겨울이지 한겨울이지 그게 한 75년도쯤에 파고 나서 96년 정도니까 약 20년 정
도가 지나서죠 그때 이제 완전히 고장이 나고 지하 상태가 안 좋게 됐나 봐요 20년 지나가 보
니까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물이 안 나왔어요 겨울에 물은 안 나오지 설날은 다가오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지 화장실도 못 써요, 밥도 못해 담는 것은 고사하고 얼마나 큰 난리예요
주기적으로 교체공사를 하고 그래야 해요 교체공사를 근본적으로 20년 지나다 보니까 큰 공
사를 다시 해야하는데 그런 시점에 도달해서 돈은 없죠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 당시 구정장에
게 자초지종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만 해도 구정장 허가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산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임의대로 긴급 사항 때 투입할 수 있는 명정이 포괄 사업비인데 긴
급 시 투입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투입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목돈이 구정장이나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돈을 써서라도 급하니까 시급하니까 당장 밥도 못해 먹잖아요 해달라
고 하니까 그때 당시 구정장께서 큰 결정을 내려 주신 거죠 그때 재공사를 한 거죠 지금은 지
하 200m로 그 당시에 96년 정도니까 그것도 15년이 지난 거고요 그것도 5-6년만 지나면 또다
시 큰 문제로 봉작하는 거예요 다시 재공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이 올지도 모르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가서는 2-3년 뒤가 될지도 몰라 지하 200m에 있
는 상황이니까 시에서 예산 달라고 하면 아마 안 해줄
거예요 제가 현직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신경 써주
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주민이 큰 어려움이 그때 가서
닥쳐올 거라고 예상은 하죠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버
티고 사는 거죠



충훈부(2011년)

지하수 사용의 존폐여부는 지하수를 사용

하는 공동제 안에서 해결해야겠지만 좀 더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하수 사용에 관련한 업무에 대해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구술자 이천우(64년생, 남), 구술일자
2011년 8월 2일



자전거를 고치는 이천우

아버지와 아들, 대를 이은 자생조직, 양지회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면서 동네가 생겨나고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 만남 속에 동네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임들이 생겨난다 그 모임 가운데 대를 잇는 자생조직 양지회 가 있다

양지회, 단군전봉건회로 시작하다

“단군전봉건회 시흥군 지회 결성식은 1946년 11월 2일 오후 2시부터 안양공회당에서
한창수 시흥군수이하 회원 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는데 이날 피선된 역
원은 회장 박장동, 부회장 장배근, 정육조”라고 1946년 11월 8일 경향신문에 기록된 바 있
다 단군전봉건회는 단군전 제사를 모시는 모임이다 당시 단군전봉건회 시흥군 지회는 구
화단극장 바로 앞 과천향교건물 2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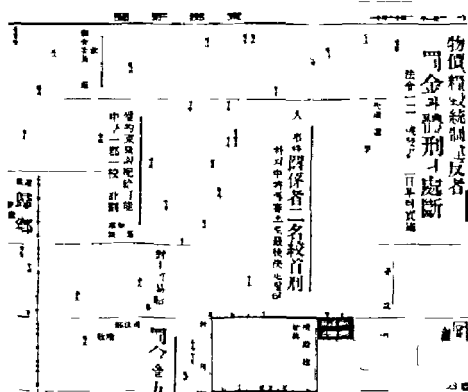
단군전봉건회 시흥군 지회가 자손으로 이어지면서 지금의 양지회가 되었다 즉 단군
전봉건회가 양지회의 전신이다

자손으로 이어지는 향토조직

단군전봉건회의 초대 임원이셨던 장근배 응의 자손이 지금 양지회의 회원이다 이분
들은 안양에서 유일하게 대를 이어가는 안양 양지회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회장을 하고 있
습니다마는 아주 자부심을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아끼신다

그리고 한 원로는 단군전봉건회를 이렇게 회고한다

단군전봉건회는 시흥군 시흥동에 단군전을 모셨어요 매년 제사 지낼 때 거기서 단군전
제사 모셨어요 예 그건 인제 옛날 식으로 이 저 한복입고 예 제사를 모시다가 몇 가지 문제가 생
겨서 제사 못 모시게 돼서 화단극장 앞에 과천 향교 건물로 옮겼습니다



경향신문 1946년 11월 8일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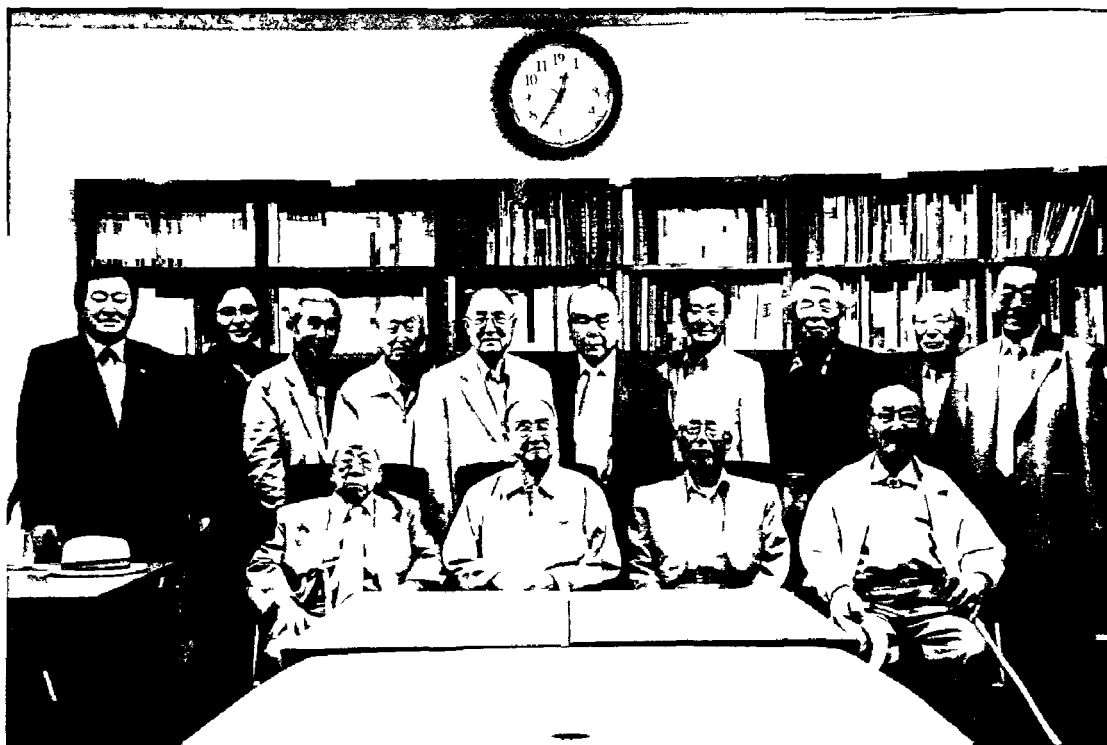
제목 단군전봉건회시흥지회결성

(안양)단군전봉건회시흥군 지회 결성식은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안양공회당에서 한창수시흥군수이하 회원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는데 이날 피선된 역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정동 부회장 장배근 정옥조

향토조직에서 지역조직으로

양지회는 특별한 활동은 없었다고 한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친목모임정도다 양지회는 과거 지명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당시 시흥군이 안양을 포함하여 수암(지금의 안산)도 포함하고 있어서 지금 양지회 회원은 수암(지금의 안산), 군포, 시흥, 광명 등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이 여럿이다

여기가 예전에는 시흥군이지 옛날에 시흥군입니다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양지회 회원에 수암면 사람 뭐 여러사람들이 많이 있어 당초 모임을 만들 적에 광명, 소하 뭐 등등 옛날에 시흥군을 보고 만든 거예요 옛날 시흥군, 과전 이쪽으로 쪽 가서 이거 남면 이쪽이고 다 맞아, 네 그러네! 강남에서도 오시고”



양지회 원로들

지금 관악회의 전신

양지회의 세월이 흐르면서 기관장 모임의 성격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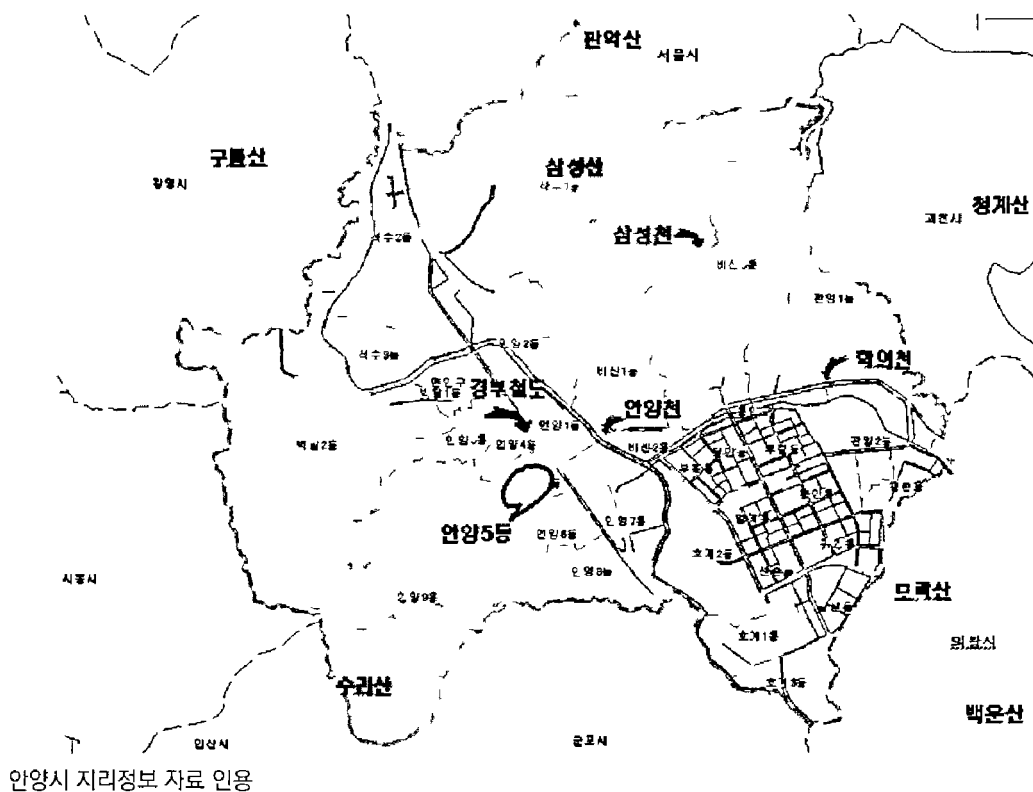
저음에는 상조회가 여기 시흥군 경찰서장이 같이 했었다고 “장수회로 내려오다가 양지회로다가 변경이 된 거지 그걸 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장수회가 기관장들이 참석했는데 지금 안양에 관악회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기관장을 맡거든요 저음에는 장수회에서 했는데 나중에 그게 관악회로 변경이 됐어요

양지회는 단군제사를 모시는 단군전봉건회에서 시작하여 자손과 자손으로 이어지는 지역원으로 자생조직이 되었다

구술자 양지회원로들, 구술일자 2011년 9월 26일

안양5동 냉천(冷泉)마을 “다 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

〈도판1 안양5동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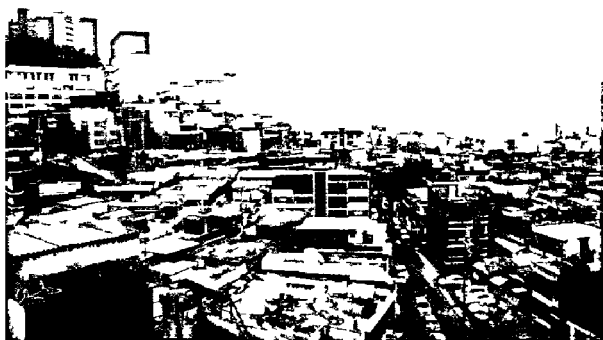


안양시 지리정보 자료 인용

〈도판2 냉천마을 구역도〉



안양시 냉천지구 계획도 인용



냉천마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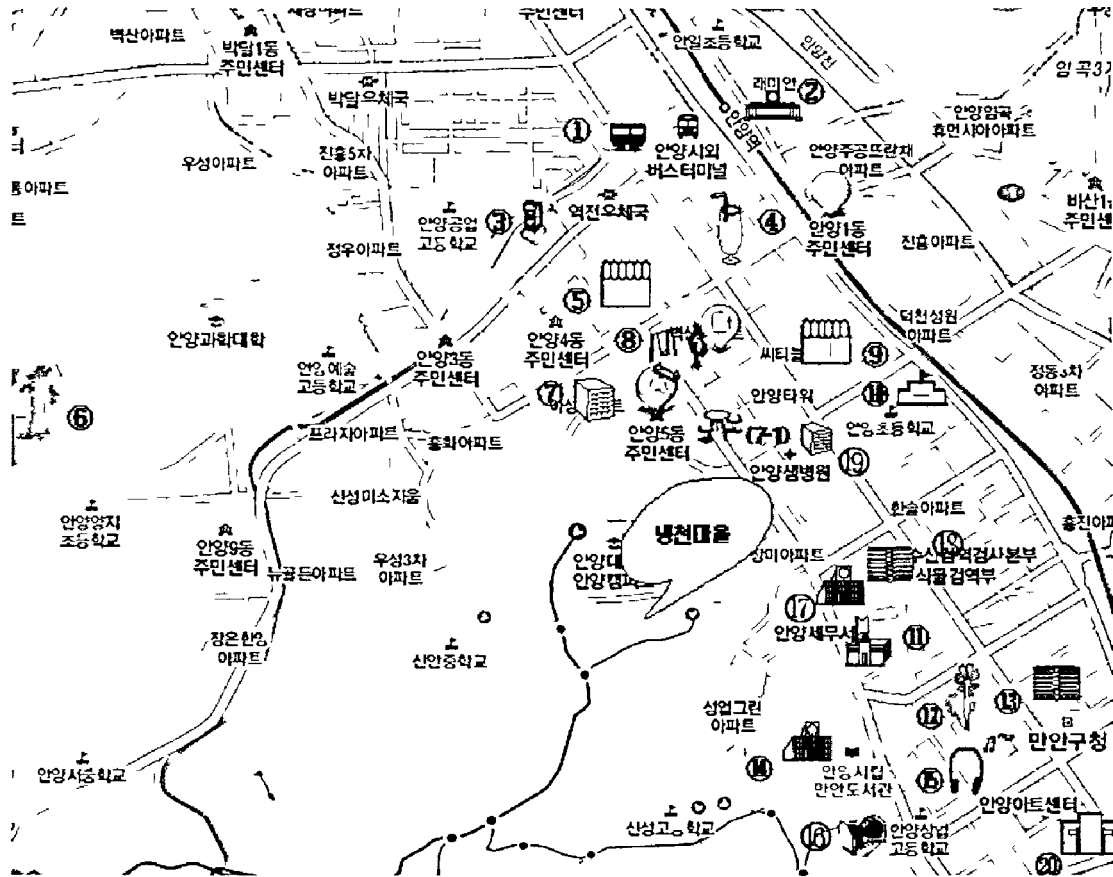
마을 보기

안양 5동은 안양시 면적 58 46km²의 약 0.86%인 0.50km²의 면적을 지니고 있다. 지리적 위치는 안양시의 남서향으로 북서향의 안양 4동과 남동향의 안양 6동 그리고 동북향에는 안양 1동이 인접하고 있다. 안양 5동의 서남향에 위치한 냉천마을은 면적 128 745m²에 전체적으로 수리산을 등지고 관악산을 향하는 자세인 동향을 취하고 있다. 마을의 배후를 둘러싼 지형을 살펴보면, 수리산 관모봉(426m)에서 흘러 내린 동북향 줄기의 한 자락은 오른쪽인 남북방향으로 흘러 안양 8동의 성결대와 명학초등학교 방향에서 끝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락은 왼쪽인 동북향으로 흘러 세무서 뒤에서 멈추어 소골안을 이루고, 이어서 안양대학교와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를 돌아 성원상떼빌 아파트에서 멈춘다. 따라서 냉천마을의 자연 지리적 경계는 남쪽의 소골안에서 충혼탑이 자리 잡은

능선 부근을 거쳐 안양대 입구를 지나 현대 아파트와 상떼빌이 위치한 옛 수태골 골짜기를 휘어도는 형태로 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마을 앞의 도로 냉천로와 현충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북쪽으로 삼덕로와 장내로가 만나는 삼덕로를 분기점으로 마을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연 수계의 흐름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은 흔적을 찾기 어려우나 1970년대까지도 냉천마을을 감싸는 개천이 남아 있었다. 개천은 소골안 골짜기에서 출발, 안양 세무서를 지나 남부시장을 거쳐 안양천에 합류하는 소곡천과, 안양대 정문으로 오르는 삼덕로길의 개천, 그리고 수태골에서 흐르는 개천으로 안양 5동 사무소 앞을 지나 남부시장에서 소곡천과 합류하여 안양천으로 연결되었다.

〈도판3 공공시설의 연계성〉



번호	명칭	도보 거리(km)	번호	명칭	도보 거리(km)
1	역전 버스터미널	1.25km	11	안양 세무서	0.68km
2	안양역	1.29km	11	안양 세무서	0.68km
3	역전 우체국	0.94km	12	명학공원	1.72km
4	안양 일번가	0.83km	13	만안구청	1.42km
5	중앙시장	0.54km	14	시립 만안도서관/ 수리 장애인 종합 복지관/ 만안 여성회관	1.1km~ 1.16km
6	병목안 공원	2.92km	15	안양 아트센터	1.7km
7	안양 5동 주민자치센터	0.18km	16	만안 청소년 수련관	1.36km
7-1	만안구 노인 복지 회관	0.102km	17	안양 소방 파출소	0.52km
8	냉천 놀이터/ 청소년 지원 센터	0.29km	18	안양 문화원	0.53km
9	남부시장	0.38km	19	서안양 우체국	0.37km
10	안양초등학교	0.6km	20	안양 만안 경찰서	1.82km

냉천마을의 입지 조건을 살펴보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양쪽 측면에서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자연환경은 배후에 위치한 도립공원 수리산이 쾌적한 자

연경관과 함께 휴게 및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인문환경은 마을 주변에 시장과 공원, 학교, 복지과 문화시설, 행정편의시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오래된 공공 시설로 만안구청(옛 안양시청 1973년), 안양 소방 파출소(옛 안양소방서 1976년)가 있고, 교육의 경우 안양초등학교(1929년), 상업 시설은 중앙시장(1961년)과 남부시장(1972년)이 있으며, 문화시설은 안양문화원(1970년) 등이 있다 마을의 연결도로는 마을 앞 도로인 삼덕로와 마을 내부로 연결되는 소곡로와 현충로 그리고 냉천로가 있다 도로는 도로변 주차 공간을 제외하고 2차선을 유지하며 인도는 비교적 협소한 편이다 도로환경과 함께 마을의 대중버스 교통여건은 안양 남부시장 입구에 서울과 수원 등 인근도시와 연결되는 버스정류소와 역전 앞의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다 그리고 냉천마을의 삼덕로를 따라 2번(예술공원 → 중앙시장 → 안양대 → 소곡마을) 버스와 10-1번(중앙시장 → 냉천마을 → 평촌 → 범계동 → 안양시청) 버스가 운행된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로 도판2를 살펴보면, 냉천마을의 경우 주변 시설물과 도보거리는 평균 1.3km에 활용 빈도가 높은 시설은 대부분 1km 이내로 평균 10분 정도의 보행 거리를 지니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와 함께 도시의 주요 필수 시설물 외에도 냉천마을과 주변에는 다양하고 오래된 종교적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음도 주목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마을 내에는 현충탑 주위로 회교인 이슬람사원과 함께 사찰의 경우 원불교 안양교당을 비롯하여 한미사, 천광암, 도광사, 법계사, 용천사, 장안사, 대각명사 등이 존재한다 교회의 분포는 규모가 큰 교회와 역사가 깊은 교회가 밀집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교회로 은혜와 진리교회(1982년), 구세군 교회(1961년), 안양5동 중앙감리교회(1967년), 안양중앙교회(1930년), 안양제일교회(1930년) 등이 있다 특히 안양4동의 중앙시장 앞에 있는 장내동 안양성당(1954년)은 시간을 알려주는 종소리와 함께 뽕족한 침탑과 교회의 조형물이 종교적 위엄과 경의감을 알려주는 명물이다

이 같은 안양5동과 냉천마을의 특징은 도심과 가까운 배후 주거지로 기본적인 공공 시설과 경제, 상업, 문화적 요소 등 삶의 질을 영위함에 있어 비교적 우수한 조건을 지니고 있음이 발견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배경은 안양지역의 근현대화 과정속에 만안구가 지녔던 역사와 함께하는데, 일제 강점기 외세자본에 의한 1905년 경부철도 개통과 안양역의 설치와 한국전쟁 이후 만안구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상공업의 발달, 현대화의 과정을 겪게 되며, 이는 동시에 전통문화의 해체와 외래문화의 유입, 농업에 기반한 삶의 기반 변화 등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소위 안양동이라 부르는 지역은 안양의 근현대화 과정이 모범답안처럼 나타나며, 지역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건에 있어서도 과거 시흥군의 중심 지역이었다

안양초등학교와 교하동(校下洞 教化洞) 유래

안양초등학교의 주변마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다 조선조 중엽에 이 마을에 어느 가난한 부부가 외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라 아들을 공부시킬 수 없었으나 서당 선생의 도움으로 무료로 글을 배워 노력 끝에 과거에 합격하였다 이에 나라에서 그에게 높은 관직을 제수하려 했으나 끝내 사양하고 이곳 마을에 향교를 짓고 백성을 가르칠 것을 임금에게 아뢰자 이에 감탄한 임금이 이곳에 커다란 집을 지어주고 교화당(敎化堂)으로 명명해 주었다 이후 1927년에 안양초등학교가 세워져 교육의 요람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안양지역의 개신교 전래

최초의 전래는 1895년으로 1900년에 발행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과천 덕고개교회에서 1895년에 허대진이란 인물이 세례를 받은 기록이 등장한다 이후 1897년의 「그리스도인 회보」에 시흥 범고개(현재의 박달동)에서 교회를 세운 기록과 1900년에는 석수동의 하영홍이 삼막골 교회를 세우고 봉헌하였다 이러한 초기 개신교 전래는 외국인 선교사에 의한 것이며 당시 교회가 남아있지는 않으나 1910년 미국인 선교사 피득에 의하여 전래된 부림교회(현 동은교회)가 있다

주요 교회 연혁

- 동은교회 1910 4 15일 과천군 하서면 일동리에서 부림교회로 설립하여 1911년 개인 초가집을 교회로 사용하다 1975년 동은교회로 개칭하였다
- 안양중앙교회 1930년 5월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현 안양1동)에서 기독교장로회로 창립 예배를 보고 같은해 10월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1934년에 안양4동 중앙시장 입구의 현 자리로 이전하였다
- 안양제일교회 1930년 안양중앙교회에 속하였으나 교파가 예수교장로회로 분파되며 1954~55년도에 현 위치(안양1동 남부시장)로 이전하였다
- 안양감리교회 1939년 9월 안양1동 대동서점 옆에서 창립한 후 1967년 안양5동 소재 중앙감리교회가 분리되었으며 2002년에 호계 2동으로 이전하였다
- 안양교회 1939년 8월 안양3동에서 예수교성결교회로 창립하였으며 1943년에는 일제에 의하여 반일교단이라 하여 일시 해산되었고 1947년 재건하였다



삼덕로에서 남부시장으로 연결되는 땃길로



땃길 놀이터와 정소년 지원센터



안양문화원과 소방 파출소



안양 구세군 교회



안양5동 주민자치센터

주거와 생활

〈도판3 마을 경관과 주거〉



다음(daum) 지도 인용

번호	명칭	번호	명칭
1	수태골	9	환경단체연합 광복회 서울음악아트센터 / 옛 5동 사무소
2	삼덕로 / 마을 외곽길	10	M 마트 / 옛 냉천목욕탕
3	흥전 고추장 화로구이	11	장미 아파트
4	안양대 입구길/옛 실개천	12	은혜슈퍼 / 해바라기 길
5	씨네마 델리	13	냉천 악수터(잔우물)
6	은행주택	14	원불교당
7	안양대/ 옛 은성고등공민학교	15	현충탑
8	이슬람 사원	16	소곡마을 / 소곡전

수태골 (안양5동 708번지 일원)

수태골은 근명여자정보산업고와 동덕아파트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지금은 현대 아파트와 수리산 성원 쌍떼빌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골짜기를 따라 작은 실개천과 샘이 있던 곳으로 땅이 질어 물탕골로 부르기도 하였다 이 골짜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진다 옛날 이곳에 금실 좋은 한 중년 부부가 있었으나 이들에게 자녀가 없어 오두막엔 항상 정다운

이야기와 맛있는 된장찌개가 있어도 어딘지 모르게 허전함이 있었다 생각다 못한 중년 부부는 골짜기 샘을 찾아와 치성을 드리게 되었는데, 목욕재계와 옷을 정갈히 입고는 정한수를 떠 놓고 촛불을 밝히며 산신령님께 온 정성을 다해 백일기도를 드렸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늘도 무심하지 않았던지 백일째가 되던 날 드디어 중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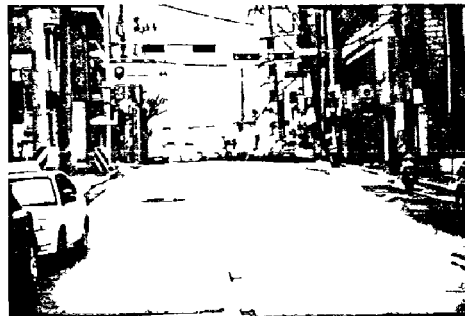
부부는 꿈에서 산신령님의 계시를 받고, 곧 부인에게 태기가 있어 탐스럽고 튼튼한 사내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 아들은 후에 큰 인물이 되었다고 하며 이러한 소문이 점점 널리 퍼지면서 자녀가 없는 부인들이 이곳을 찾아와 정성을 들이고 자녀를 얻었다고 한다 그러한 이유로 이 골짜기를 사람들은 ‘수태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수태골(현대 아파트 단지)

삼덕로(三德路)

삼덕로의 도로명은 안양4동에 위치했던 삼덕제지(三德製紙)에서 유래하였다 삼덕제지는 1961년에 조성된 인쇄용지 제조공장으로,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아파트 등의 용도로 매각하지 않고 2003년 7월 삼덕제지 전재준 회장이 안양시에 기증한 것이다 면적은 공장 부지 16,008㎡와 인근 사유지 3,368㎡를 합쳐 19,376㎡이며 안양시는 여기에 14만 그루의 수목과 야간조명 분수, 수암천과 연계한 폭포, 야생화 길, 소규모 야외무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2009년 4월 22일 삼덕공원으로 탈바꿈하였다 사업비는 123억원이 소요되었으며 부지를 쾌척한 전 회장의 뜻을 기려 전재준 회장의 흉상과 1960년대 지역의 산업시설을 상징하는 13m 높이의 굴뚝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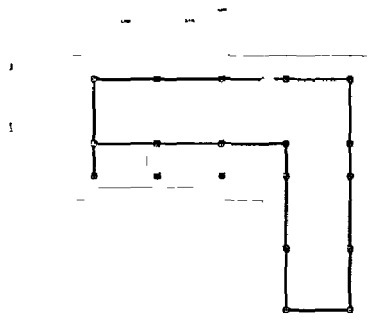
삼덕로(안양대 입구 앞)



삼덕로(현종탑 입구 앞)

홍천원조 고추장 화로구이

- 소재지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27-152번지



안채 평면도



가옥전경



내부1



내부2

- 건축 시기 1958년(상량문)
- 규모 형태 안채 8칸, 뒷채 8칸, ‘ㄱ’자형
- 가구 짜임 1고주 5량
- 지붕 형태 우진각, 시멘트 기와

안양5동에 소재한 홍천원조 고추장 화로 구이는 1958년에 건축한 한옥집으로 안채와 뒷채로 나누어져 있다 예전에는 살림집이었으나 지금은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안채와 뒤채 모두 남서향의 간좌곤향(艮坐坤向)으로 곱은자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전면으로 퇴가 있는 일고주 오량집이다

안채의 경우 몸채는 6칸에 날개채는 2칸이다 살림집 당시에는 전면에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 건넌방이 있고, 좌측으로 안방과 날개채에 이어진 부엌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형의 화장암 초석 위로 쇠시리가 있는 기둥을 올리고 굽지 않은 보와 도리로 가구를 구성하였다 납도리에 기둥 굽기는 115mm×115mm, 높이는 2,270mm이다 서까래의 경우 처마 내밀기가 600mm에 지름은 100mm 내외이다 마루의 높이는 약 320mm로 높지 않은 편이나 예전의 초석의 높이를 참고하면 평균 650mm 정도의 높이를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의 평면 공간을 이루는 칸 사이는 평균 2,400mm 전후로 8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안채 상량에는 “龍上樑檀紀四二九一年陰八月二十六日巳時梁家主丙辰生成造大運備人間之五福應天上之三光龜”라 쓰여 있다 즉 1958년 음력 8월

26일에 집을 지었고 집주인은 병진년생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안채의 경우 가구 짜임만 확인되며, 대청칸의 미닫이 창호는 원래 모습으로 파악된다 뒷채의 경우도 안채와 같아 가구 짜임만 확인되는 수준이며, 천장은 베니어판으로

막아 조성 시기는 파악할 수 없다 안재와 뒷재 모두 비슷한 양상의 규모를 지나는 집으로 표준화되고 세장한 가구의 짜임을 볼 때 1950년대의 한식집을 짓는 집 장사의 가옥으로 추정된다

“오신 손님 건강하세요”

홍천원조 고추장 화로구이집은 서안양우제국 사거리에서 서편으로 100미터 지점의 길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50대의 오은영 박종희 부부가 15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안재와 뒷재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식탁 20개에 한꺼번에 100명이 식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830제곱미터(250평 정도)의 넓이로 한여름에는 안재의 넓은 마당에서도 손님을 맞이한다

오은영 씨 부부는 직접 강원도 홍천의 화로구이집에서 ‘홍천사모님’에게서 양념기술을 전수받았다 양념은 여사장 박종희 씨가 직접 준비하며, 주방장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한다 고춧가루는 부안 태양초로 만들며, 모든 양념은 최고의 국산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명절날 3일 정도 쉬는 것 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장사를 쉬는 일은 없다

음식점 안에 들어서면 두 개의 나무판이 눈에 들어온다 하나는 “천객만래(千客萬來)” 천 명의 손님이 만 번씩 온다는 뜻으로 많은 손님들이 번갈아 계속 찾아오는 것을 말한다 또 하나는 “오는 손님 건강하세요” 이 집에 오는 모든 손님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몸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걸어두었다고 한다

단골도 많다 주로 주변의 보험회사와 은행, 샘병원, 안양대학교 등지에서 단제 손님이 많다고 한다 10년 이상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너무 고맙단다 처녀총각으로 만나서 찾아주던 손님이 결혼해서 아이들과 함께 찾아오는 고객도 있다 손님의 자녀들이 오영은 씨 부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할 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며, 여사장 박종희 씨의 얼굴이 환해진다 종업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집에서 식사하시는 분은 복 받으시는 분이예요”

음식점 방으로 들어서기 전 계산대의 벽에는 유명 연예인의 사진도 보인다 탤런트 이덕화 최수종과 함께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여사장님



사진을 비롯해 텔런트 박상면, 뽀빠이 이상룡, 축구인 신문선, 무술감독 정두홍 등과 각각 찍은 사진들이 쪽 걸려있다 방 안 벽에는 신문에 “맛집”으로 소개된 기사도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다 1998년경 경향신문에 “맛집”으로도 소개된 기사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암탉지의 삼겹살을 양념고추장에 재어 졸깃졸깃한 맛이 일품이다 주인 오은영 씨가 집에서 만든 양념고추장에는 더덕, 도라지, 배, 마늘, 참기름 등 10여 가지 재료를 넣었다 인공조미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참숯구이는 건강식으로도 좋다 일반 숯은 고기의 겉만을 태우지만 참나무숯의 연기는 고기 안에까지 스며들어 기름기를 빼내고 골고루 훈제시키기 때문 양념맛이 골고루 배어 고소하고 담백한 육질을 즐길 수 있다 고기의 단맛이 살아 있어 어린이들도 좋아한다 참숯은 강원도 인제에서 구해다 쓰고 있다”

(구술자 오은영(61년생, 여), 구술일자 2011년 8월 20일, 8월 28일)

씨네마 델리 최진홍 씨의 꿈 (안양5동 708-38)

최진홍 씨는 안양대 입구에서 샌드위치 전문점 씨네마 델리를 운영 하고 있다 10여 평 남짓되는 작은 점포이나 그의 꿈은 앞으로 요식업계, 특히 샌드위치를 주종목으로 하는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영인의 꿈을 꾸고 있다 현재 29세 서울 난곡에서 자라 고등학교를 마치고 안양대학교 관광학과 재학 중 군 복무를 마치고 학교는 졸업한 상태이다

졸업 후에는 동남아 등지에서 전문적인 관광 가이드를 계획하고 경험도 쌓을 겸 해서 필리핀으로 6개월 정도 어학연수 겸 관광을 했다 직접 경험하며 고객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거나 습득하기도 했다 국내에 돌아와 여행사와 이벤트사에 취직하여 직장 생활을 하였으나 본인이 원하거나 기획하는 의도와 차이가 있어 직장 역시 그만두게 되었다

직장시절에 최진홍 씨가 원하는 관광이란 1차적인 눈으로 보는 상품이 아닌 여행국의 내면적인 모습들, 즉 사는 모습과 문화적 현상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상품이 필요하며 그러한 면에 있어 본인은 가이드가 아닌 관광 상품 기획자로 일을 해보고 싶었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은 요구하는 여행자의 수요와 여행사의 경제성이 함께 맞아떨어져야 하겠지만 진정한 의미에 있어 관광이 아닌 문화 향유라는 점에서 그의 말은 진솔하고 깊이 있게 들린다 다른 취업도 고민했으나 여행사와 이벤트 중심의 기획사를 잠시 다닌 경력으로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 취업난은 어깨가 무겁지만 할 뿐이었다

그러던 중 2011년 11월에 샌드위치 전문점을 개업하였다 창업 자금으로 본인과 지인의 돈을 빌려 약 1,500만원을 준비하였다 우연한 기회에 미국 교포로 오하이오주에서 샌

드위치 전문 제인점을 하다 지금은 가족에게 물려주고 한국에 들른 동포를 만나 샌드위치 요식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영 등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 샌드위치 전문점을 차린 계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만 이곳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식성과 특성에 맞는, 더구나 학교 앞에서 젊은이의 기호와 주머니 사정 등에 맞는 경영전략과 수완, 사업 구상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샌드위치를 다양하게 하고, 가격은 저렴하되 맛과 재료, 신선도에서 승부를 걸려고 한다 샌드위치 가격은 평균 3,500원으로 7종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그 외 4종류의 추가적인 식사류가 이곳 점포의 메뉴이다 현재 하루 매출은 약 150,000만 원 정도 아직은 후배들도 들려주고 해서 다행스러우나 향후 연고 없이 들려주는 또 다른 고객 유치의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 최진홍 씨는 현재의 이득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실험적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우선 학교 앞 골목이 2005년을 기준으로 백반이나 면종류 등 분식 중심에서 지금은 커피점과 간단한 인스턴트류에 서구식 음식으로 바뀌는 추세다 향후 학교 앞 골목의 추이가 본인이 원하는 샌드위치 고객수요와도 맞물려 증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본인이 추구하는 샌드위치의 맛과 식재료 서비스로 맛과 영양이 있는 한 끼 식사대용으로 충분한 사업적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학교 앞 샌드위치 가게가 아닌 샌드위치 프랜차이즈로까지 그의 꿈은 넓고 크다

커피향과 빵 냄새가 가득한 점포 안에서 밝은 느낌의 병아리색 내부 치장은 마치 갓 구운 빵의 색과 같다는 느낌을 준다 그 벽에는 포토샵으로 고쳐 붙인 두 장의 영화 포스터가 찾는 손님들을 유쾌하게 한다 “두사부일체”와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패러디하여 “밀반찬 일체” “지금 먹으러 갑니다”로 바꿔 밀반찬 셀프 코너 안내와 식당 홍보를 겸하고 있는데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상쾌하고 즐겁기만 하다

2011년 11월 토요일인데 문을 열어 놓았다 안양대에 행사가 있어 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손님이 오던, 오지 않던 학교 가게 문은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사업가의 꿈도 있지만 최진홍 씨는 아직 젊은이다 친구도 만나 술도 한잔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조기축구회에서 공을 차기 때문에 쉬는 날이면 운동장에 나가서 뛰고 싶은 마음 또한 간절하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며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는 최진홍 씨의 꿈은 무지개처럼 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스터가 이곳에 붙기를 바란다 그가 좋아하는 축구, 한국의 꿈이 이루어지던 2002년 우리 모두의 꿈처럼 “꿈은 이루어진다 (구술자 최진홍(29세, 남), 구술일자 2011년 11월 27일)

집 장사가 지은 국민주택 - 안양5동 은행주택 한병하 가옥(안양 5동 708-128)

안양5동의 은행주택은 1968년에 준공된 단독주택이다 내부 평면 구성은 당시 유행 하였던 공영주택의 기본적인 평면 구성과 규모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1960년대에는 재래식 한옥 구조가 중심을 이뤘다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이에 따른 도시민의 증가로 인하여 60년대 이후 도시 주택의 심각한 부족 현상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주택 부족 현상에 있어서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부분의 주택 공급은 미약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주택업자에 의한 주택 보급은 활발한 편이었다

안양5동의 은행주택 역시 당시 주변에 살던 개인 주택업자에 의하여 지어진 집이다 지금은 이웃하는 주택들이 증축 내지 개보수되어 원형이 많이 사라졌으나 유사한 형태의 건물 외형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당시로써는 서구적 내부 구조에 중산층을 겨냥한 단독주택이었다 특히 은행주택이라 불리는 이유는 당시 건축업자가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지었다고도 하고, 은행주택 건축업자의 신랑이 은행간부였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도 하나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한병하 씨 집의 대지면적은 51 5평이고 연건평은 32 5평이다 1968년 준공 당시의 17 5평에 이후 1988년에 새롭게 증축된 2층(15평)이 포함되어 있다 집의 구조를 살펴보면, 서향으로 집이 있고 남쪽으로 마당이 있으며 마당에는 화초를 키울 수 있는 작은 화단과 함께 간이 창고 및 야외 화장실이 있다 가옥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마루를 중심으로 하는 겹집 형태로써 남쪽으로 문간방과 마루, 안방이 있고 북쪽으로 화장실과 부엌, 부엌방이 연결되는 평면 구조를 지니고 있다 각 방마다 독립적으로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굴뚝은 두 개였다 진입로는 남쪽 마당에서 봉당을 올라 마루로 오르는 진입로와 서쪽의 건넌방과 화장실 사이에 현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통적인 가옥 구조와 근 현대적인 가옥 구조가 함께 조합되어 있는 점도 이 집이 지닌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내부 구조에 있어 특히 부엌과 화장실은 당시의 시대 변화상을 가장 잘 보여준다 경제생활의 향상에 따른 가구 변화는 당시 건축 내부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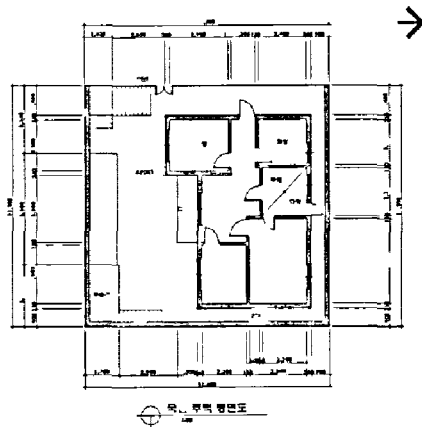
라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부엌과 관련한 시설물, 구체적으로는 상하수도의 보급과 취사와 연료 문제, 화장실의 실내화에 따른 내부 환경의 변화 등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집 역시 그와 같은 요소가 전형적으로 발견된다 건축 당시 현관 입구에 화장실이 위치하고 수세식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집이 위치한 지역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 까닭에 화장실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다 결국 1983년에 내부의 화장실은 바깥의 마당으로 나가고, 애초의 화장실 공간은 작은 방으로 바뀌게 된다

부엌의 경우 처음에는 레일식의 아궁이로 방에 직접 열을 공급하고 취사를 하는 방식이었다 현재 집주인이 1983년에 입주 하면서(당시 시세는 2천만원 이었다) 19공탄 2장이 들어가는 연탄보일러, 즉 새마을보일러로 교체하였다 이때 부뚜막은 솥 2개를 걸도록 되어있었다 1988년에는 19공탄 9장이 들어가는 연탄보일러 하나로 세 개의 방을 모두 돌렸는데, 다른 집들보다는 좀 늦게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1990년대 초에 다시 기름보일러로 교체하였다 최근까지도 부엌 위로 작은 다락이 있었으나 집을 수선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부엌 위의 다락은 깊은 부엌이 있을 때 가능한 공간으로 집안의 작은 물건을 수납하는 등 실제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었으나 지금은 부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거의 사라져 버렸다

살맛나게 해준 물

한병하 씨는 1983년 이곳 은행주택으로 이사했다 넉넉지 못해 집을 구입할 때 전세를 끼고 사서, 한 집에 2가구가 살았다 현관 옆방을 전세로 세를 주었다 은행주택은 안양대학 입구 산비탈에 자리해 있다 시내에서 보면 꽤나 높은 곳이다

이사 오자마자 제일 큰 걱정은 물이었다 수도는 설치되어 있었지만 물이 잘 나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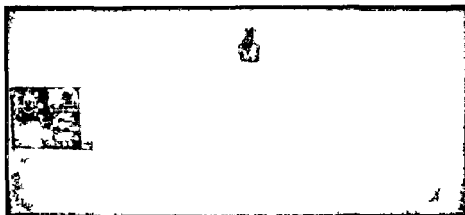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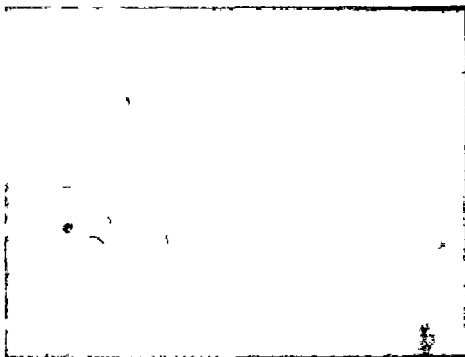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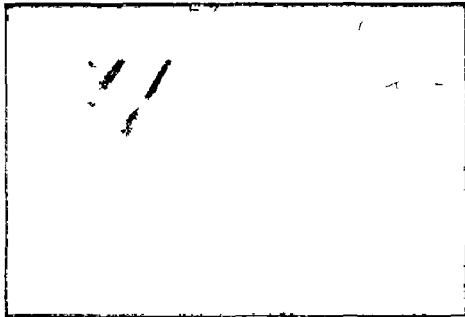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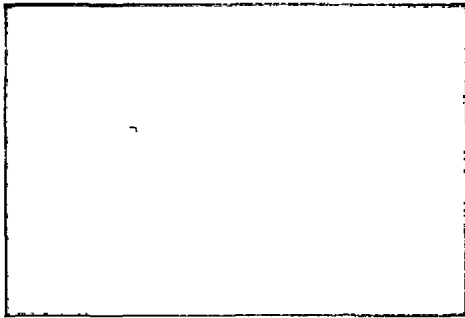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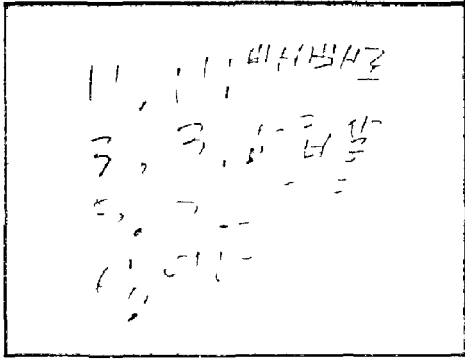
은행 주택 평면도



가옥전경(2층은 후대에 증축)



주택 정면



않았다 산 중턱에 있는 주택까지 물이 도착하기 전에 산 아래 가정집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면 밤 열두 시가 되도록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자정이 지나야 물이 졸졸 나왔고 새벽에 일어나 물을 받아놓아야 했다 실내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은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냄새가 심하게 났다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개조하여 방을 만들었고, 화장실을 집 밖에 새로 지었다

우물을 파기로 했다 혼자 해결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필요했다 옆집과 함께 담을 터서 공동 우물을 만들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물이 말라 들어가면서 물맛이 짹짹해서 먹기 곤란했다 이후 수도시설이 완비되어 수도물이 쿵쿵 쏟아졌다 한병하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한다 “살맛이 났다”

벽지, 메모장이 되고 도화지가 되고

한병하 씨 아래층 세입자의 방을 보면 참 재밌다 1층은 최근 짐수리를 하기 전까지 두 세대가 살고 있었다 두 집은 마루를 기준으로 동서로 나뉘어 생활했다 한 세대는 과거 현관으로 들어서서 좌우측의 방 두 개를 사용했고, 현관 밖에 부엌을 따로 마련했다 다른 한 세대는 마루와 부엌 및 좌우 방 두 개를 사용했다

서편의 현관으로 들어서서 왼쪽 방을 살펴 보면, 이곳은 ‘은행주택’으로 지었을 때 실내 화장실이었다가 개조하여 방을 드린 것이다 방의 한쪽에는 각종 세금과 월세 납부 일자가 기록되어 있다 그 맞은 편 벽에는 가수와 노래제목이 빼곡히 적혀있다 이 방은 거주자가 두 차례 이상 바뀌도록 도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까지 살던 가족의 큰아들 ‘홍규’라는 학생이 기타를 치며 노래하기를 좋아했는데, 노래제목은 아마도 그 친구가 써놓은 듯싶다 이곳은 건넌방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안방으로 쓰이던 현관 오른쪽의 방은 부모님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친지 및 각종 음식점의 전화번호가 벽에 쓰여 있었다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3월 3일 삼겹살 데이 등의 낙서도 있다 특히 방문 바로 옆으로 아이들 키를 재어 표시해 둔 것이 눈에 띄인다 2003년 8월 20일에서부터 2009년 8월 1일까지 여러 차례 표기되어 있는데, 마지막 키의 크기는 180cm 정도 되었다 이 집에 세 들어 살던 집의 큰아들 ‘홍규’의 성장과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사 와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평촌으로 이사했다 동편 또 다른 세대의 안방 벽은 온통 어린아이들의 그림판으로 쓰였다

평범한 부모 밑에서 자랐더라면

한병하 씨는 올해로 예순넷이다 여기 안양 ‘은행주택’에 터를 잡고 지내온 지도 어느덧 30년 한 세대가 흘렀다 하지만 이곳의 터줏대감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살아오진 않은 듯하다

늦가을 비가 내린다 현관문 밖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인터뷰 중 ‘개인정보’에 대해 매우 거부반응을 보였다 조금 전 보이스피싱을 당했기 때문이란다 아들 이름을 대면서 사고를 당했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으니 병원비를 보내라는 것이었다 강원도에 가있는 아들에게 연락이 닿아서 다행이었지만 남들에게나 있으리라 여긴 일이 자신을 대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에 몹시 분해했다 ‘덕분에’ 우리의 인터뷰 출발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평범한 부모 밑에 있었더라면 한자리했을 것이라며 혀를 찬다 인생에서 가장 아쉽다고 했다 공무원 시험이라도 봐서 공무원 생활이라도 할걸 “할 게 없어서 5급 공무원이냐” 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한병하 씨의 고향은 능곡이다 지금은 고양시 능곡동이다 일찍이 부모와 헤어졌다 세 살 때 아버님을 여의고,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출가하셨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따라가서 배다른 형 밑에서 생활했다 고향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의 배재고등학교에 진학했다 통근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등교했다 그의 얘기로는 처음에 경기고에 가려 했는데 서울역에서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배재고를 택한 것이라고 한다 중 고등학교에서는 줄곧 장학생이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재학 중 ‘장난삼아’ 육사시험에 응시해서 덜컥 합격했다 그것도 400명 가운데 73등이라는 사실에 놀랐다고 한다 하지만 육사를 포기하고 서울공대로 진학했다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위에 참가했다가 강제로 군대에 끌려갔다 1학년 재학 중에 27사단 이기자부대로 입영했다 1968년 김신조가 청와대 가까이 잠입했던 시절로, 이후 군복무가 3년으로 연장되었다 군대에서는 매일 맞았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다

35개월 24일 한병하 씨가 군복무한 기간이다 집에 돌아오자 형님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너 스스로 인생을 살아라” 너 스스로’ 실제로는 내쫓김을 당한 것이라고 그는 기억하고 있다 이후 노숙생활을 전전했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예비군 훈련통지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 향토예비군법 위반으로 즉결에 넘겨져 벌금을 두 번이나 내야 했다 그런데 속상한 건 그보다도 군대에도 다녀오지 않은 판점사에게 충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 즉결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었다고 그는 회고한다 군대에 가지 않은 이인제, 안상수, 그리고 몇몇 도지사들 이후부터는 예비군 중대에 전화해서 훈련 일자를 확인했다 당시는 라면 1박스를 중대본부에 가져다주면 훈련을 빼주던 시절이었다 그때부터는 예비군 중대장을 정말 싫어했다

서울에서 동아일보 답십리지국의 신문배달부로 일하면서 겨우 노숙생활을 면할 수 있었다 비록 사무실 책상 위에 마련된 잠자리이지만 예비군훈련 통지서도 꼬박꼬박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76년 특채로 동아일보 관매국에 입사했다 1983년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동아일보 관매국에서 일할 때 동아일보 기자 언론투쟁을 지지했다 이후 진급에서 누락되고 말단 지방부로 발령받아 고생을 많이 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약 20여 년 동안 근무했다 “이제는 기억도 하기 싫다”

나이 먹을수록 고독함,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한병하 씨는 퇴직 이후 자영업을 했다 동아일보 안산지국을 운영했다 1998년에 안양 중앙시장 옆에서 PC방을 냈다 IMF 때 실업자가 양산되던 시절에 그는 과감하게 1억 원을 투자했다 PC 한 대에 350만원 하던 때였다 PC방은 24시간 영업했다 직원을 두지 않고 낮에는 사모님이, 밤에는 한병하씨가 12시간씩 맞교대로 열심히 일했다 3년 정도 경영했다 몸이 많이 상했다 점차 여기저기 PC방도 급증했다 그는 지체 없이 문을 닫았다

나이가 50 후반만 되면 자기 몸 관리를 철두철미 잘하는 것이 큰돈을 버는 것이라고 했다 아무 병없이, 우환없이 사는 게 제일이다 “당뇨, 고혈압 몸이 아프면 말짱 개털이야’ 그는 고혈압, 부정맥 증상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무리하면 안 돼서 집에서 쉬면서 건강을 회복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1년에 마늘을 일곱 접이나 먹었다 우연히 TV에서 서울대 병

원 의사가 한 끼에 마늘 세 쪽씩을 먹고 혈압을 80-120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방송을 보고 서부터다 이때부터 마늘과 양파를 먹기 시작했다 겨울에 높아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현재 80-120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리산 8각정에 올라가는데도 3번은 쉬어야 할 만큼 몸이 나빴다 지금은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다 20년 정도 되었다 아마 김영삼 대통령 취임 직전의 일로 기억된다 안산에서 신문지국을 운영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갈비뼈와 어깨뼈가 부러지는 증상을 입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에 투표도 하지 못했다 이후 지국을 그만두었고, 담배와 술도 완전히 끊었다고 한다

요즘은 한병하 씨는 자기 자신만의 생활비로 쓰는 돈은 거의 없다고 한다 집 밖의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사회활동도 없다 '나이 먹을수록 고독함,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살아온 환경 때문인지 고독, 외로움에 익숙하다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번잡스럽고 사람이 많은 것을 싫어한다 수리산 자락에 올라 심호흡을 많이 하고 명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 (구술자 한병하(64세, 남), 구술일자 2011년 8월 6일, 8월 23일, 9월 18일, 11월 27일)

은성고등공민학교(현, 안양대학교 안양5동 708-113)

공민학교는 1960년대 어려웠던 시절 초등학교를 졸업 후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중학교 과정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현재 그 수는 몇 개 학교만 남아 있으나 한때는 전국에 500여 개 학교가 넘을 정도로 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은성고등공민학교는 1964년부터 79년까지 운영된 학교로 이 학교가 있었던 곳은 현 안양대학교 자리이며 설립자는 안양대학교 명예교수를 지낸 이세종 교수이다 이세종 교수는 당시 형편들이 어려워 등록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학생도 많았고 “가정방문을 처음 나갔을 때 끼니로 밀기울을 끓여서 먹고 있는 학생을 보고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며 당사를 회상한다 그는 공민학교의 교장이었지만 경비원이기도 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숙직을 도



안양대 입구(병천로)



동아리 행사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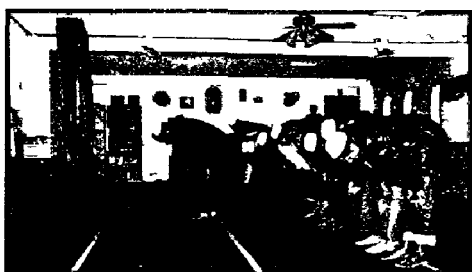
입구 상가

말았기 때문이다 그 흔한 라면도 나오기 전이라 맨 국수를 저녁마다 삶아 먹으면서 학교를 지켰다고 한다 학생들 또한 그런 교장을 보기가 애뜻했는지 “선생님께 따뜻한 떡을 드리고 싶다”면서 집에서 학교까지 한 시간이 넘는 거리를 밤중에 달려온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이제는 옛이야기가 되었고 당시 학생들은 이제 초로의 나이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일꾼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한밤중의 따뜻한 선물은 그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됐다 (안양시민신문 2008 05 15 기사 참조)

‘알라’의 땅, 이슬람교 안양 성원(안양동 618-133)



“안양 성원은 한국 무슬림 독지가 후세인 유창식 형제가 사재 5천만 원을 들여 기존 기독교 교회 건물을 매입해 개조한 이슬람 성원으로 1986년 4월 26일 개원되었다 안양 성원은 1985년 12월 세계무슬림연맹(라비타)에 의해 라비타 성원으로 명명되었으며, 현재에는 방글라데시 및 파키스탄 출신의 외국 무슬림 근로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http://www.koreislam.org>)



이것은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사이트에서 라비타 안양 성원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슬람 선교를 위해 1964년 10월에 발족된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는 국내 유일의 이슬람 선교기구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중앙성원에 본부를 두고 부산, 안양, 부천, 광주, 전주, 제주 등 전국에 8개 지회와 60여 개의 임시 성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슬람은 기독교, 불교와 함께 세계 3대 종교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세계 140여 개 국가에 13억 명의 신도가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한다



후세인 유창식 이맘과 아들 하산

이슬람교 안양 성원의 창시자, 후세인 유창식 이맘

안양 성원은 안양대학교 정문 앞에서 왼쪽으로 200미터 정도 가면 길가에 바로 붙어 있다. 북향으로 문이 나 있는 건물 입구에는 세 가지 종류의 현판이 걸려있다. 현관문 위에는 아랍어 현판과 함께 ‘ANYANG AL-RABETA MOSQUE 안양 이슬람사원’이라 쓰여 있고, 옆에는 ‘이슬람교 안양 성원’이라고 쓴 현판이 길게 걸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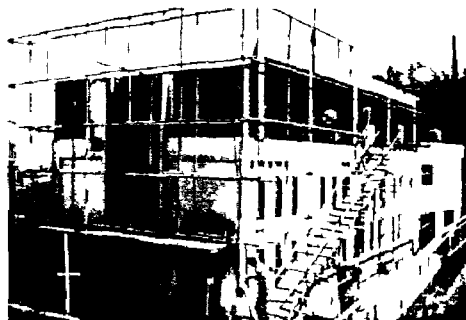
안양 성원은 처음 설립할 당시 라비타의 지원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성원에 모이는 무슬림들이 각자 돈을 내 운영하고 있다. 토요일마다 15~20명 정도 모이고, 마지막 토요일에는 50~70명 정도, 금요일 점심 정식기도 때에 20~30명이 성원에 모여 기도를 한다. 지금 이곳에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모로코, 이집트,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의 유학생들도 드나들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들의 하루 의식으로는 Fajr, Sunrise, Dohr, Asr, Maghreb, Isha 등이 있다.

기도는 “알라 후 아끄바르(알라가 가장 높습니다)”로 시작하여, “아썰라 무 알레곰 와라마 툴라(하나님 당신에게서 평안하게 해주십시오)”로 끝을 맺었다. 2011년 10월 27일 오후 4시 의식에는 1명의 인도자와 17명의 예배자가 참석했다. 예배는 10분 동안 진행되었다.

안양 성원은 1986년 4월 안양의 한 한국인 무슬림이, 교인이 없어 매물로 나온 교회건물을 매입하여 이슬람사원으로 개원한 것이다. 한국 내 다섯 번째 이슬람사원이지만 교회를 이슬람사원으로 개원한 최초의 사례이다. 그 한국인 무슬림이 바로 후세인 유창식 이맘(교회의 목사)



이슬람 사원



1986년 신축 모습



해당)이다

후세인 유창식은 이북 영변 출신으로 호적상 1940년생이다 연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친 뒤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유신시대 때 말씀을 잘 못해서” 퇴직하게 되었다고 한다(사모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후 사업에 뛰어들었고 중동지역을 자주 오갔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이다 꿈속에서 아잔(기도시간을 알리는 소리) 중에 누군가 와서 얘기하기를 “여기 말고 너희 나라에 가서 아잔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이를 꿈의 계시로 여겼고 곧 이슬람교에 입교했다 국내로 돌아온 유창식은 한남동에 거주하면서 무슬림 공동체 설립에 노력했다

안양으로 내려온 유창식은 이곳 냉천동 기독교 교회를 매입하고 1986년 4월 이슬람 사원으로 라비타 안양 성원을 개원하였다 그는 명학동 일대에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슬림의 모임을 만들었다 점차 중동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사원의 모습을 갖추나갔다 가족이 모두 무슬림을 받아들였으며, 아들 하산은 아버지 유창식 이맘을 잘 따랐다 안양 성원을 운영하면서 생활은 매우 어려웠다 사모님은 유치원을 경영하다가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1년 유창식 이맘은 사업차 쿠웨이트에 갔다가 그곳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후 안양 성원은 한 때 문중 재단의 소유로 하였으나 현재는 유창식 이맘의 아들 하산과 그의 고모의 소유로 되어있다

이슬람교 안양 성원의 이주노동자 무슬림, 알람

이슬람교 안양 성원에서 ‘알람’이라고 하는 이주노동자를 만났다 원래 이름은 ALAM-GIR BIN SOLAIMAN CHOWDHARY이었다고 한다 CHOWDHARY는 ‘땅 부자’를 뜻하는데 알람의 아버지 때까지는 이것을 성으로 하였으나, 알람이 초등학교 때, 땅 부자도 아닌데 이것을 성으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께 이를 빼자고 해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알람은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주노동자로 키가 크고 매우 친절한 사람이다 나이는 1971년생, 우리 나이로 꼭 마흔 살이다 6남매(남자3, 여자3) 가운데 장남으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과 동생들이 함께 살고 있다 방글라데시 치

타공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다고 한다

알람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95년 산업연수생 신분으로였다 1997년에 산업연수를 마치고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여 2003년까지 일하다가 또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다 2004년 다시 입국하여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아내는 두 아이의 엄마로 남편과 사별한 뒤 한 살 아래인 알람을 만났다고 한다 현재 18살과 20살의 두 딸이 있다

알람은 처음 경기도 여주에 있는 애자공장에서 8년간 일했다 회사식구들은 매우 친절하게 잘 대해줬다고 한다 현재는 두 달 전에 입사한 안산의 대림포장(박스회사)으로 출근하고 있다 결혼한 이후 장남으로서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하여 방글라데시의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리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30살의 친동생도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알람은 “이슬람은 평화를 사랑한다 테러를 반대한다 전쟁은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 거듭 말한다 그는 2011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안양 성원에서 다른 무슬림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자립을 위해 애쓰고 있다

반한단체로 몰린 이슬람교 안양 성원의 이주노동자들

2004년 10월 13일 밤 텔레비전 뉴스 “국내에서 이슬람 반한(反韓)단체가 적발되었다” 안양 성원의 사람들은 황당하고 어이없어했다 당시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다와툼 이슬람 코리아’(이하 다와툼)라는 방글라데시 반한단체가 안양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적발되어 핵심조직원이 추방당했다는 보도가 나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다와툼’은 실상은 “무슬림끼리 기도하고 소식을 나누는 모임”일 뿐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안양 성원에 모이는 인근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이었다 ‘다와툼’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취업을 알선해주거나 해고된 친구들의 직장을 알아봐 줬다 인근 지역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인은 물론 파키스탄인, 인도네시아인 등 중동지역 및 동남아시아 여러 국적의 이주노동자 무슬림들이 모여 예배를 보며 정보를 교환하는 사원공동체가 한순간에 반한단체의 중심지로 둔갑돼 버린 것이다

그들은 기존 안양 성원이 규모가 작아 자신들이 돈을 모아 3층을 올렸고, 2002년 성원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자 자신들의 공동체로서 직접 건물을 구입하고자 했다 주

변의 이주노동자들이 한 푼 두 푼 돈을 보내왔고, 1억 여원을 한국인 명의로 외환은행 안양 지점에 저금해 두었다. 이러한 돈이 방글라데시 한 정당에 송금됐고, 불법 체류자 취업 알선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반한활동을 했다고 하면서 “이슬람 무장단체가 한국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한 반한 이슬람 단체가 적발됐다”고 한 국회의원과 몇몇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다. 당시 날벼락을 맞은 당시 안양 성원의 한 무슬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테러 반한단체라니요. 한국의 발전상을 동경하다 이곳에 온 우리가 왜 한국 사람을 해치려 하겠어요. 더구나 열심히 일하고 아껴 써서 가족에게 한 푼이라도 더 보내고 싶어하는 우리가 테러단체에 송금할 리가 없죠. 반한단체 이야기가 나온 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느나라 출신이냐고 물어 ‘방글라데시에서 왔다’고 하면 잔뜩 경계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이주노동자들이 반한활동가로 둔갑한 것은 당시 정부가 제시한 <불법체류자 반한활동 종합대책>에서 반한활동의 내용에 “정치적 주장을 하며 정부시책을 비판 오도하고 이를 선전 주동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다음날부터 호지부지되었다. 지도자로 지목된 세 사람은 불법체류자로 추방당했을 뿐이었다. 당시 ‘다와툼’ 회원이었던 알람과 마믹은 ‘방글라데시 반한단체 보도’가 나간 이후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시사저널』 제783호와 『한겨레21』 제531호 참조)(구술자 알람(71년생, 남, 방글라데시), 구술일자 2011년 11월 27일)

포도밭에 들어선 안양 최초의 아파트, 안양5동 장미 맨션(B동 203호)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1932년 일본 기술로 세운 서울 충정로 유림아파트가 처음이었다. 광복 이후 1961년 대한주택공사가 서울 마포에 도화 아파트를 지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처음으로 시작된다. 이후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함께 크고 작은 아파트가 붐을 이루게 되었고,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아파트 투기’라는 부동산 투기 과열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아파트 열기와 관련해 당시 경제 상황을 살펴보자. 1970년대 초까지 경기 호황에 힘입은 양적 성장을 거듭하며, 동시에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투기 목적을 띤 부동산 경기는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정부는 간접적 시장 개입에서 직접적 시장 개입으로 전환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목적으로’ 1978년 8월 8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 종합 대책인 ‘8·8조치’를 단행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유지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안양5동 장미 맨션 역시, 대형 아파트는 아니지만 70년대의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 과정 속에서 1978년에 준공된 안양지역 최초의 아파트라는 건축사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1978년 8 8조지와 함께 언론에 나타나는 건설 분양 등의 관련 기사는 당시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장미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한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보자

“아파트 반값에 바겐 세일, 분양 부진에 할인 사태, 평당 11만원 깎아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밖에 정우개발의 경우 안양의 장미맨션을 입주시킨 후에 분할하여 상환을 받는 등의 편법을 쓰고 있으며 다른 주택 업자들의 경우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보너스로 설치해 주고 있다 이 같은 아파트 바겐세일 등 할인 분양 등은 울 들어 주택경기 침체로 아파트가 남아돌고 있고 금융긴축정책에다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심리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1979년 6월 23일)”

안양5동 장미맨션의 구조와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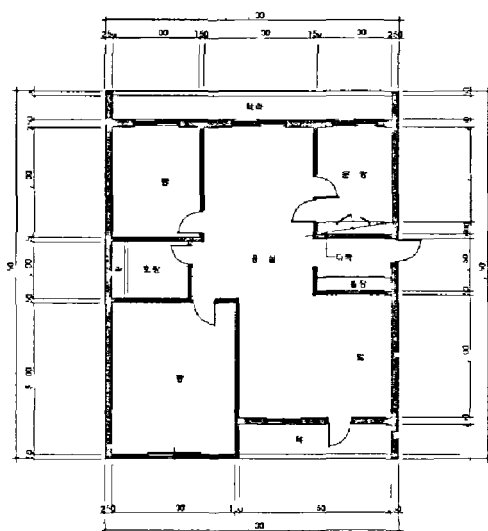
장미 맨션이 있는 이곳은 포도밭이었다 안양포도는 1930년대 일본에서 묘목을 가져다가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탄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60~1970년대에 안양포도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물이었다 이 땅의 소유주는 중국인이었는데 한국 사람과 결혼하였고, 아파트가 건축되자 세를 주었다가 입주하여 1년여 살았다고 한다

장미 맨션은 1978년에 준공되어 1979년에 입주하기 시작한 장미 맨션은 두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향의 배열에 가운데로 중정을 두고 동쪽 A동이 29가구, 서쪽 B동이 21가구이다 건평은 32평, 44평, 48평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B동 203호는 32평으로, 현재 1980년에 입주한 안홍순 정애영 부부가 살고 있다 A동의 경우 도로를 따라 1층에는 제과점과 미장원, 피아노 교습소, 가전제품 보관소와 같은 소규모 상가가 남아 있어 건립 당시 맨션아파트와 이에 따른 상가 형성의 설계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내부 구조는 북쪽의 현관에서 실내로 진입하게 되어 있으며 거실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빨래 널기 용도의 발코니가 있고, 동쪽에는 부엌과 다용도실, 작은 발코니가 있다 방은 북쪽으로 현관과 연결된 방이 있고 남쪽으로 안방과 화장실, 건넌방이 위치한다 내부 구조의 특징을 보면, 거실을 중심으로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현관과 연결된 방의 경우 현재는 서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별도의 옷장과 수납공간이 있어 공간이 지닌 세대의 살림의 분화와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간별 주요 살림살이

구분(바닥, 벽재 조명)	위치	명칭
거실 (비닐 장판 백색 벽지 원형등)	서향 남향 북향	좌식 책상 선풍기 목제 문갑 2조 화분 티브 소형수납함 가족 액자 도자기 소품 장식류 벽시계 달력 액자 기념품 및 상패류 (독립훈장증 및 서대문 형무소 벽돌) 벽걸이 족자(동양화) 액자(비구상 작품) 벽걸이 액자 에어컨 소파 자전거형 운동기구 달력
안방 (비닐 장판 백색 벽지 원형등)	동향 서향 남향 동북향	장식용 선반장 2조(도자기류 가족 사진 상패류) 벽부 옷걸이 의자 소형 책장 벽시계 액자(불경) 자개장 침대
건너방 (비닐 장판 백색 벽지 형광등)		옷장 및 집안의 허드레 물건 정소 도구 등 수시로 쓰지 않는 물품 보관
문간방 (종이 장판 유백색 벽지 원형등)	동향 서향 남향 북향	벽부 옷장 책장 옷장 책상 컴퓨터 책상 접이등 책장 3조 책장 및 3단 옷장 행거용 옷걸이
부엌 (비닐장판 백색벽지 삼파장등)	동향 서향 남향 북향	목재 식탁 소반 전기밥솥 양념병 벽걸이그릇장 가스 랜지 전자렌지 김치냉장고 목재 그릇장 냉장고 2인용 식탁(기도용 대좌로 사용) 소형냉장고 그릇장 싱크대 달력 거울 원형 접이 식탁 부엌 요리 도구 수납함



장미 아파트 평면도

평면도



아파트 전경



A동과 상가

안홍순 정애영 부부는 슬하에 1녀 2남을 두었다 다섯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구조가 불편했다 다용도실을 확장해 주방으로 사용했다 그 이전에는 다용도실에 세탁기 하나 놓을 공간뿐이었다 주방을 확장하면서 세탁기는 베란다로 옮겨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장미 맨션은 처음에 7층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안양시장이 바뀌면서 너무 높으면 산이 가린다고 3층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안양시민에게 장미 맨션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입주하려면 경제력이 좀 있어야 했다 전 안양시장, 유한규, 국회의원 윤국노, 원용희, 읍장 김기복 등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많이 입주했다 처음 분양가는 1,950만원이었는데 1980년 안홍순 정애영 부부가 이사 올 때는 1,900만원에 매입하였다고 한다

초기 장미 맨션에 입주한 사람들은 지금은 거의 모두 이사했다 현재 이곳은 재건축 예정이다 이미 설계까지 했었다고 한다 도장 찍은 사람들만 350만원씩 냈다고 한다

안홍순 정애영 부부의 하루

정애영님은 올해 75세이다 연세에 비해 매우 건강하고 사회활동 또한 활발하다 안홍순님은 올해 76세로 매우 차분하며, 매사 합리적이고 겸손하다 부부의 하루일과는 어떨까

정애영님은 새벽 3시를 전후해서부터 하루를 시작한다 보통 1시에서 3시 사이에 일어나다고 한다 곧바로 세수한 다음 108배를 하며 기도를 한다 기도는 정애영님만의 예식에 따라 2시간가량 진행된다 5시경이면 아침 준비를 하고, 6~7시경 남편과 함께 아침식사를 한다 식사 후에는 부부가 함께 잠시 쉰다 남편 안홍순님은 잠시 누웠다가 광복회로 출근하다 보통 월, 수, 금에 나가서 일을 보지만 요즘은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한다

정애영님은 쉬면서 텔레비전 방송을 보다가 9시경이 되면 찜질방에 간다 찜질방에서 1~2시간 보낸 뒤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11~12시경이면 집에서 점심을 먹는다 오후에는 통장관리를 비롯해 집안일과 바깥일 등 각종 사무를 본다 때때로 집 뒤에 있는 수리산 자락 언덕배기의 찬우물 약수터 주변을 청소하기도 한다 수영장에 가는 날은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12시에 가서 3시 반쯤 귀가한다

남편 안홍순님은 4~5시경이면 광복회 일을 마치고 귀가한다 귀가 후에는 컴퓨터로 사무를 보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일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다 정애영님은 저녁을 준비하고, 6~7시경 부부가 함께 저녁식사를 한다 저녁을 마치고 나면 함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거나 컴퓨터를 한다 부부가 모두 컴퓨터를 사용하곤 하는데, 안홍순님은 정애영님께 좋은 글귀들을 메일로 보내곤 한다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며, 때때로 정애영님이 안홍순님의 온몸을 주물러 드린다 안홍

순님이 대장암으로 고생한 이후 줄곧 그래왔다고 한다 밤 9~10시가 되면 정애영님이 먼저 잠자리에 들고, 안홍순님은 11시경에 하루를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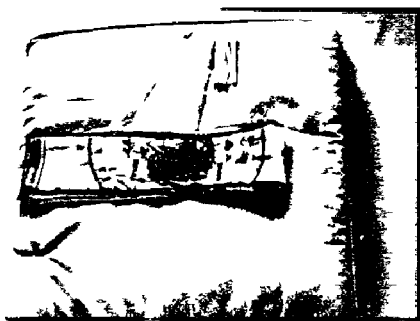
“이것을 먹은 자들은 원하는 것으로 태어나라”

정애영 씨는 몇 가지 의례와 의식을 소개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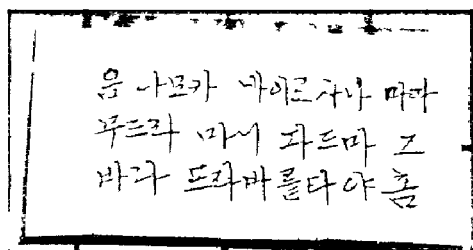
정애영 씨는 자신이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명절과 제사를 모신다 제사는 지차라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제사만 모신다 시어머님은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늘 베풀고 사셨다 아예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다고 한다 “자네 시어머님께 얻어먹고 살았어”라며 명절이면 고맙다 하며 고무신이나 기름을 갖다 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시부모님 제사나 차례를 모실 때면 따로 “결상”을 하나 더 놓는다 시어머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다 결상에는 밥과 술가락을 많이 놓는다 또는 후손이 없어서 제사를 받들지 못하는 어른들을 모셔서 드시고 가도록 하곤 했다 명절 때는 반드시 토란국을 끓인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항상 음식과 술 등을 골고루 담아 향을 함께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던진다 “이것을 먹은 자들은 원하는 것으로 태어나라”라고 말하면서 던진다 산으로 가져가기도 한다

정월 초순에는 시루떡을 하고 정월고사를 지낸다 음력 1월 14일 정월보름 전날에는 오곡밥을 짓는다 오곡밥을 뭉쳐서 산이나 우물에 가져다 놓는데, 장소는 마을 뒷산에 있는 수리산 자락의 충혼탑 뒤와 찬우물 두 곳이다 사월 초파일에는 절에 간다



〈새벽에 기도할 때 쓰이는 도구들〉



〈기도할 때 외우는 광명진언〉

칠월 칠석에는 집에서 부침개와 제철 과일을 놓고 기도한다 우물이 없으므로 베란다 앞(찬우물 방향), 아이들 방, 부엌 등 일곱 곳에 물 또는 술을 놓는다 구체적으로는 대청(술), 현관(술), 부엌(물), 방 3곳(물), 베란다 앞(물) 등이다

올 추석에는 쌀 3되로 송편을 빚었다 아들이 꼭 밀가루 반죽을 만든다 과일값은 하나도 안 들었다 광복회 지부에서도 보내온다 금년에는 대통령 부인이 남해 멸치와 북어포를 보내주셨다 사돈댁에서도 조기와 명태를 보내오셨다 추석 당일에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와서 하루 머물고 간다 올해 딸은 명절 전에 미리 와서 25만 원을 주고 갔다

정애영 씨는 삼막사 안도스님이 계실 때 절에 다녔다 이후 집 뒤 수리산에 있는 작은 암자에 다녔는데, 나중에 암자의 비구니께서 안양6동의 민가로 내려왔다고 한다 절에 가서 100일 동안 매일 108배를 올리기도 했다 신량을 위해서였다 신랑 안홍순님은 그 모습이 안쓰럽다고 ‘불심(佛心)’이라고 쓴 붓글씨를 직접 써서 액자에 넣어 집에 걸어두었다



〈안홍순씨가 아내를 위해 직접 쓴 불심(佛心)〉

특히 2010년부터 ‘광명진언’을 하며 매일 같이 108배를 올리며 기도하고 있다 ‘광명진언’ 기도법은 신라의 원효대사가 들여왔다고 한다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타야 흠” 이 진언을 귀로 듣기만 해도 모든 죄업이 없어지고, 죄를 지어 죽은 뒤 악도에 떨어져도 이 진언을 외우면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정애영 씨는 새벽에 일어나 불심을 가지고 2시간 동안 기도를 한다 조상님께 감사하고, 가족 모두 건강하며 베풀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음력 9월 1일이 되면 꼭 1년이 된다 남편 안홍순님 생신이 음력 9월 20일 인데 그때까지만 하고 회향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은 시어머님의 기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남편의 생일잔치를 따로 하지 않고 다만 가족과 함께 점심 또는 저녁식사를 하는 정도로 보낸다고 한다

정애영 씨는 “바깥양반은 겸손하고 차분하게 사람들을 대하며 배울 게 많은 양반”이라고 거리낌 없이 얘기한다 그뿐인가 남편에 대한 사랑은 더 깊다 “다시 태어나면 다시 지금의 신랑을 만나서 못다 이룬 것, 하고 싶은 것, 좋은 일 더 하면서 살고 싶다”

늘 봉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배움을 찾아서

정애영 씨는 초계 정씨이다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집성촌이 있다 1963년 12월 12일 안양의 안홍순 씨와 혼인하여 이곳에 정을 붙이게 되었다 남편은 학교 선생님이었다 시 아버님은 3·1독립만세운동에 앞장섰던 독립유공자이시다 슬하에 큰딸과 두 아들을 두었다 정애영씨는 스스로를 성질이 불같다”고 한다 그만큼 매우 활동적이다 그러면서도 배려가 깊다 우리가 인터뷰하러 가자 집에 냄새가 날까 봐 일부러 메밀차를 끓여 구수한 냄새가 나도록 했다

장미 맨션으로 이사하기 전에는 바로 뒤 단독주택에서 살았다 한 100여 평 남짓 됐다 지금은 도로와 주차장에 편입되어 10여 평 채 남지 않았다 이곳으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새집을 짓고 살려고 했었다고 한다 남편 안홍상씨는 초등학교 교사여서 전근이 잦았다 시어머님을 모시면서 아이들을 키웠다

그러면서도 정애영 씨는 마을 곳곳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달려갔다 마을의 부녀회장을 맡아서 했다 집 뒤 수리산 중턱에 충혼탑이 생기고 나서는 담배꽁초를 치우고 충혼탑 주변 쓸기운동을 시작했다 미망인들의 생일잔칫상을 차려드리기도 했다 장미 맨션 부녀회를 만들고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아파트 주변에 화분걸이, 꽃심기 등을 추진했다 장미 친목계에서는 이집저집 다니며 팔죽을 끓여먹기도 하고 동남아여행도 다녀왔다 지금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이곳에 살다가 이사한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

안양5동 새마을금고를 만들 때에는 처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장롱에서 돈을 내놓도록 설득하며 애썼다 이 일로 상도 받았다 이후에도 곳곳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 안양대학교 설립 초기부터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하고 있다 정애영씨가 주선하여 보험회사 소장, 보험회사의 중앙 간부 등이 함께 해줬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남편 안홍순씨가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광복회 안양지회원들과 함께 차에 태극기를 꽂아주는 활동을 했다 태극기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줬다 삼일절이나 광복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태극기를 나눠줬다 국기나눔운동은 20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2005년경에는 국기사랑모임이란 정식 카페를 만들고 1,000원씩 모았다 현충일인데도 사무실에 태극기를 달지 않아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태극기 달기운동도 시작했다 태극기를 달더라도 관리가 안 돼서 새까맣게 때가 탄 태극기를 보면 일부러 찾아가 바꿔주기도 했다

정애영 씨는 시아버지의 애국지사 등록이나 남편의 광복회 활동을 도우면서 ‘우리 것’을 찾기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 전통가정예절, 孝禮 茶교육, 전통천연염색, 우리문화연구, 안양문화원 이사 등 우리나라만의 것을 찾고 널리 알리는 데 여념이 없다 정애영 씨는 신분증 사진은 모두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다 우리나라에서나 외국에 나가서나 진짜 ‘나’를 알리는 일이 ‘우리나라’를 알리는 일임을 늘 강조한다



〈천연염색으로 손수 만든 방석 위에 앉으신 정애영 씨가 환하게 웃고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고 색깔이 있는데 제대로 전수를 못 하고 있다 요즘 젊은 이들이 외래문화만 쫓아가는 것은 문제다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려야 하지 않는가 옛것 가운데 좋은 것은 잘 보존하고 널리 알려야 하지 않는가

떡을 먹으면 무김치를 먹고,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이치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이 절이라도 가르치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독립유공자의 집

장미맨션 203호는 ‘독립유공자의 집’이다 안홍순 씨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현재 광복회(光復會) 부회장을 맡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해서 2002년 중학교 교장을 끝으로 교단을 떠났다

아버지는 1919년 4월 전남 순천군 낙안면과 보성군 별교읍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옥고를 치른 독립유공자 안용갑(安鏞甲, 1892~1947) 선생이다 하지만 1936년생이신 안홍순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아버지의 생활이라야 나무나 하면서 술로 인생을 보내는 일상을 지내시던 것이 아버지에 대한 첫인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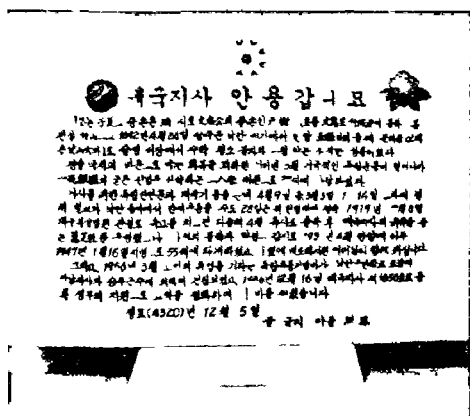
“1947년 12월 24일(음력)에 아버지가 운명하셨으니 내 나이 9살이다 사진기가 귀하던 시절이라 내 판에는 아버지의 얼굴을 연필로 쓰러져가는 벽에다 그렸는데 그 이후로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다 마당에는 산에서 생나무를 베어서 화톳불을 활활 피우고 있었는데 조문객이 무척이나 많았다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안홍순 씨는 홀로 5남매를 키우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서야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전까지는 어머니의 삶의 애뜻함에 가슴을 절었을 뿐이었다 그는 1998년 파주 교하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자서전 『수리산 자락』을 간행했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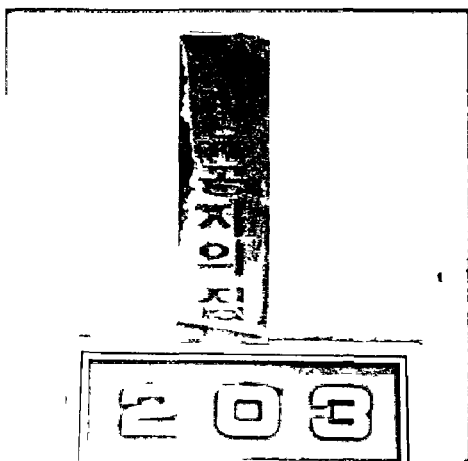
“1918년 8살에서 황(장수)씨네 맏딸로 태어나 출가한 다음 해 31운동으로부터 아버지의 독립운동이 시작되면서 일경에 대한 수모로 집을 버리고 도피생활로 인한 집안의 모든 살림을 혼자 감당해야 했고, 아버지가 1년이란 대구형무소 옥고생활 끝에 출옥한 뒤에도, 독립운동 시 먼저 간 동료들의 유족을 돕는 “혜지사”를 조직, 활동을 계속하니 일경의 감시 속에 가세는 몰락하여 당신의 정든 고향을 등쳐야 하는 불운과 함께 1936년 초겨울 큰 집을 따라 안양으로 이주하였으나 타향의 생활이란 가난과 허탈뿐이다 일정한 직업도 없는 실의와 노동도 할 줄 모르는 아버지, 자신을 저주하고 건강도 나빠진 상태로 술만이 생

의 전부인 것을 이제야 알만했다”

독립유공자 안용갑 선생은 전남 낙안 태생이다 1919년 3월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당시 순천군 낙안면 신기리에서 동지 33명과 일사보국(一死報國)을 다짐하는 비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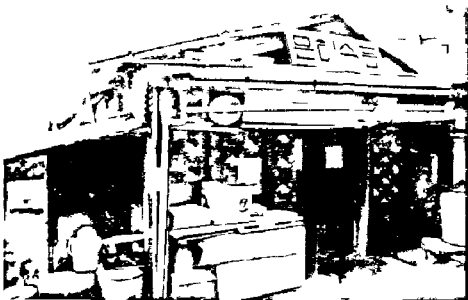


안용갑 선생의 기념비문



현관문의 독립유공자의 집

은혜식품과 해바라기 길 (안양5동 618번지 일원)



은혜식품

사 이팔사(二八社)를 조직하고 그 대원으로 가담했다 4월 9일과 13일, 14일 ‘대한독립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벌교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4월 28일 일본 헌병대에 검속되어 7월 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0년 4월 29일 감형되어 출옥하였다

출옥 후에도 애국지사의 유족을 돕는 혜지사(蕙芝社)를 운영했다 하지만 가세의 몰락과 일경의 감시를 피해 1937년 4월 정든 고향을 등지고 안양으로 이주하였다 1947년 1월 16일 55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1956년 3월 고인의 유업을 기리고자 낙안초등학교 교정에 당시 전남지사와 승주군수의 의해 독립운동기념비가 건립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86년 12월 16일 대통령표창을 추서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구술자 정애영(37년생, 여), 안홍순(36년생, 남), 구술일자 2011년 9월 18일)

은혜식품은 약 40여 년 전에 쌀가게로 시작된 냉천 마을 끝의 작은 점포로 살림집을 겸하고 있다 시멘트 벽돌조에 외장은 붉은 페인트가 칠해진 건물로 계단식 축대를 이용하여 건조되었는데 정면의 출입문은 상단 축대에 접하여 있고 하단 축대에는 건물의 배면 벽체가 세워져 있

다 따라서 상단 축대에서 보면 1층집이지만 아래에서 바라보면 영락없이 2층집이다 특히 건물의 정면과 배면 사이로 작은 골목길이 통과되므로 방형의 통로를 만들어 지나가는 골목의 역할을 그대로 살려 놓았다 골목을 통행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되었겠지만 의도야 어떻든 참 재미있는 집이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공간은 집의 중앙을 관통하는 집과 골목의 만남 공간이다 작은 공간은 비도 피하고 햇볕도 가려 주지만 작은방이 있어 이런저런 물건을 모아두는 썸지같은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아주머니들의 수다 공간이며 동시에 정보가 교류되는 커뮤니티 센터이기도 하다

2010년 이 공간은 다시 태어난다 일명 “누구나다.방”으로 안양시가 추진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햇살과 웃음이 오가는 골목길 다방인 셈이다 어쩌면 진정한 의미에 공공예술(公共藝術)이라 볼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술은 특별함이 아닌 삶 속에 함께 할 때 훨씬 더 유쾌하다 은혜식품의 “누구나다.방”은 그래서 즐겁다 예술아! 같이 놀자”

해바라기 길은 2011년 11월에 냉천마을의 골목길 벽화사업으로 조성된 아름다운 골목길이다 이곳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밀집하는 주거지역으로 지형상 주택의 담장과 계단식 축대가 좁게 골목을 형성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도시 기능 개선 또는 마을과 골목의 재생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사업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지역주민,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참가하였다 벽화구간은 현충로 84번 길과 98번 길로 은혜식품 구간 70m(현충로 84번길)와 한미사 구간 50m(현충로 98번길) 등 전체길이 120m에 달한다 2011년 11월, 늦가을 햇살 아래 담장에 핀 해바라기와 양귀비, 멀리 보이



은혜식품 측면과 골목의 소통



한미사 구간의 벽화



은혜식품 구간의 골목



벽화작업후 모습



찬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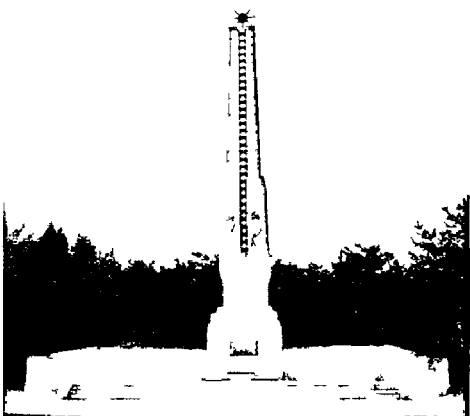
원불교 안양 교당

는 초원에 집은 도심 골목을 동심으로 돌아가기에 충분히 보인다

찬우물(冷泉洞)(안양5동 590번지 일원)

충혼탑 아래에 오랜 역사를 가진 샘이 있는데 그 인근을 찬우물(冷泉洞)이라 부른다 수량이 많아 예전부터 식수와 농업용수로도 사용되었으며 지금은 주민의 약수물로 이용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조선 시대에 가뭄이 극심했는데, 인근에 사는 농부가 수리산 정상에서 산신령에게 간절히 기도하자 맑은 샘물이 솟아나왔다고 한다 이것이 곧 냉천마을 유래와 냉천로 명칭의 근원이 되었다

현충탑(顯忠塔)(안양5동 산103-118)



현충탑



정동 조형물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현충탑은 원래 1971년 10월 15일 시흥군 관내의 유족과 군민의 뜻에 따라 당시 안양5동에 거주하던 고(故) 권용식 선생이 부지를 희사하여 19.6m의 높이로 건립되었다 이후 시설물이 낡아 경내를 새롭게 단장하면서 1996년 12월 14일 탑신 25m의 높이로 현재와 같이 새롭게 건립되었다

6.25 전쟁과 각종 국난위기시 희생한 육군, 해군, 해병, 공군, 방위병, 애국단원, 청년단원, 군속노무, 경찰, 전투경찰, 소방 등 각 소속별 637위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1998년 6월 6일 고귀한 정신을 기리는 기념비를 추가로 세웠다

안양을 굽어보는 현충탑 주위로 간단한 제

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은 물론 수리산을 산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중 이곳을 찾는 대표적인 현충시설이다 비신에는 김대규 선생의 시 “하늘이여 땅이여”가 선현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소곡마을(小谷洞)(안양6동 587번지 일원)

안양세무서 뒤쪽인 수리산 계곡을 따라 형성된 마을이다 수리산의 작은 골짜기 안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소골안이라 부르며 일설에는 이곳이 예전에 나무와 숲이 우거져 골짜기 안에서 소(牛)을 많이 기르던 곳이라 하여 소골안(牛谷洞)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러나 지형상 다량의 소를 방목할 정도의 초지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이는 와전이라 하겠다

다 1980년대부터 소곡(昭谷)으로 부르기도 하며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소곡천은 길이 약 1.1km에 안양세무서 앞을 거쳐 안양천에 유입된다 냉천 마을의 남쪽 경계를 이루며 소곡로 역시 마을지명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곡로

길과 마을

길은 길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길’이라는 표현보다 ‘도로’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도로를 몇 차선 아니면 몇 미터로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공학적인 이해는 과거 길을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이해해왔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길은 예전부터 마을 구성에 있어서 공동체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망이었다.

길은 물길과 관계가 있으며 지형이 갖는 원만한 위계에 따라 형성되어 있다. 길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사람이 걸으면서 공간과 시간을 함께 느끼는 곳이기도 하다. 좋은 마을길은 마을입구로부터 마을안이 보이지 않으며 산의 맥에 따라 구부러짐과 징검돌 및 계단 등 통과요소의 변화, 길 주변에 있는 나무 등 시선 표적들에 의해 공간마디가 연속 반복되는 울동에 의해 주거지를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길은 큰길, 어귀길, 어귀, 안길, 샛길, 골목 등으로 위계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큰 길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통과교통이 지나는 길로 마을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바깥 길이며, 어귀길은 큰길에서 어귀까지 이르는 길로 큰길과 마을이 갈라짐에 따라 마을을 지나가는 외부인이 들어오지 않는 안정된 장소이다. 지형지세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서 어귀길은 내를 건너거나 산모퉁이를 돌아들듯 굽이쳐 전개되는 길이다. 그리고 어귀는 마을바깥과 안의 경계로서 공간의 전환점이 되는 곳이다. 어귀는 마을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자나 공공 공간을 설치하여 외부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간이 된다. 시골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 가끔 등장하는 장면 중의 하나가 외지에 나갔가 돌아오는 남편이나 아들을 버선발로 뛰어나와 기다리거나 배웅하던 곳이 동네어귀였다.

안길은 어귀를 지나면 바로 만나는 길로 마을사람만이 사용되는 길로서 마을생활의 중심이 되어 가장 공공성이 큰 곳이다. 샛길은 안길에서 다시 생겨난 길로 길목이라고도 한다. 길목은 길마당이 되어, 마을 모임의 자리가 되기도 하며, 빨래터, 집회소 등의 공공생활 시설이 놓여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마을의 길목이기도 한 샛길 중간중간에 놓여 있는 빨래터는 신랑과 시부모의 뒷담화 공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목은 가장 작은 단위인 이웃과 연결되는 길이다.

큰길	어귀길	어귀	안길	샛길	골목
마을과마을 연결하는길	큰길에서 어귀까지이르는 길	마을바깥과안의 경계가되는곳	어귀를지나면 바로만날수 있는길	안길에서다시 생겨난길	가장작은단위인 이웃과연결되는 길
통과교통이 지나가는길	마을을지나가는 외부인이 들어오지않는길	마을로들어가는 사실이강조되는 곳	마을생활의 중심이되는길	길목이라고도함 마을의공공생활 (빨래터, 집회소)	
마을안으로 들어오지않는 바깥길	지형지세에 순응한길		마을의공공성이 가장큰곳	시설이놓여있는 공간	

안양7동, 유일하게 마을과 관련된 길 이름

안양시사에 만안구의 길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 정리한 바 있다 이 분류 가운데 마을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소망 기원 의지’를 상징으로 한 길 이름, ‘도로의 형태 및 기능’에 유래한 길 이름, 그리고 ‘역사와 인물’에 근거한 길 이름 등으로 만안구에 소재한 길 이름을 정리한 바 있다 그리고 길 이름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지만, 마을의 안길과 어귀를 벗어나 큰길을 만나는 지점, 즉 큰길과 큰길이 만나거나 교차하는 지점 등으로 볼 수 있는 고갯마루가 있다 만안구의 고갯마루는 오미고개, 서리재고개, 박달고개, 범고개, 장군재고개, 정문고개가 있다

‘소망 기원 의지’를 담은 길 이름은 만안구의 전통마을에 근거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기 보다는 근현대의 전개과정에서 불린 이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도로의 형태 및 기능’에 의해 유래한 길 이름은 각 동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안양1동의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가 집적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 신용길이다 이 길의 의미는 근대현사의 과정에서 안양의 지역 자본이 한 곳에 집적된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안양2동은 향림로, 문화로, 철도길이다 우선 길보다는 路로 표현했다 전통적인 길의 의미보다는 도로에 가까운 해석이다 그나마 마을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 이름은 철도길이다 철도길은 병목안 재석장에 철도가 있던 길에서 유래한 길 이름이다 안양3동은 양지마을의 마을 지명을 길로 표기한 양지바른길이 있다 이 길은 양지마을의 의미를 그대로 갖다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안양4동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중앙시장의 상점의 특징을 고려하여 만든 지명 포목길, 청바지길이다 안양5동은 전통적으로 안양5동이 용기를 굽는 일을 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의 길 이름이다 만안구의 각 동 가운데 유일하게 마을과 연계된 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안양7동이다 샘물길, 뜰안길, 사북길, 원터길의 지명이 그렇다 샘물은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콘텐츠였다 상하수도 시설이 없던 시절 동네에서 우물을 사용하는 것은 동네의 공동체적 질서가 유지되는 곳이었다 그래서 현재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의 의미는 한자어로 물 水와 한 가지 同이 만나 洞으로 사용한다 즉 “물을 같이 쓴다”가 지금 동네의 의미인 것이다 그 의미를 해석이라고 해주듯이 안양7동의 샘물길은 샘물이 있었던 곳을 나타내는 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사용해오던 길의 의미가 그대로 녹아 있다 어귀를 지나 만날 수 있는 길이며, 마을 생활의 중심이 되는 길로 마을의 공공적 성격이 잘 드러난 곳인 안길이었다 안양7동에는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 뜰안길이 있다 그리고 당시 안양7동의 장소성을 나타내는 사북길, 원터길이 길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안양7동은 다른 동과는 다르게 마을의 의미가 내용적으로 그대로 녹아 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석수동은 동산길, 장터길, 저자길 등이 있다 특히 장터길과 저잣길은 석수시장의 주요 길목이다 장이 열렸다하여 붙여진 장터길, 저잣거리가 있다하여 붙여진 저잣길은 안양7동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길 이름이다 안양7동은 마을 내부의 길 이름을 중심으로 붙여진 지명인 반면, 석수동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큰길을 중심으로 붙여진 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박달동은 당시 마을의 장소적 특징이 반영된 두렁길, 울전길, 솔모랭이길, 솔방울길, 양천길, 주미길, 성정길 등을 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마을길 이름들은 정부의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많이 변경되었다 들으면 아름답고 정겨운 마을길 이름도 이제는 어르신들의 회상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안양7동 샘물길

소망 기원 의지 등 상징적 의미를 담은 도로명

구분	지명	내용
안양1동	효덕길	부모를 잘 섬기어 덕행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의미다
	성실로	정성스럽고 참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있다
	진실로	믿음성 있고 진실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결1~3로	정과 물상점이 모여 있다 시장 환경을 정결하게 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화합로	남부시장 중심도로다 남부시장의 번영의 화(和)인 화합에서 따왔다
	화목길	남부시장 상인들이 서로 화목하고 잘 지내자는 의미로 부여된 이름이다
안양2동	정학길	정학동을 본받아 웃어른을 공경하고 내적 생활을 건실하게 하자는 의지의 이름이다
	삼락길	항상 3가지의 즐거움을 갖고 살자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다
	달무리길	은은하고 정감이 넘치는 지역 주민의 성품을 담고자 한 이름이다
	신산1~2로	뒷산에 신비감을 부여하는 이름이다
	채전로	전원적 고향의 시골을 연상하는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한 이름이다
안양4동	삼덕길	지(智)인(仁)용(勇)의 세 가지 덕을 함양하자는 의미를 반영한 이름이다
	관서길	마음이 넓고 인정 있는 동민이 되자는 의미를 반영한 이름이다
	충담로	마음이 허심하고 담박한 주민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이름이다
	옥주길	기름진 밭이란 뜻으로, 풍요로운 안양4동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신일로	믿음이 넘치는 사회가 구현되길 바라는 마음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안양5동	희망로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을 기도한다는 의미로 인근에 교회가 있어서 반영되었다
안양6동	수정길	모든 것을 올바르게 고쳐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다
안양7동	진화로	안양1동과 접한 도로이며 타동 주민과 사이 좋게 지내자는 의미다
	연마길	공장이 밀집해 있어서 쇠붙이 등 갈고 닦는다는 뜻으로, 마을의 번성을 바라는 소망이 담긴 이름이다
	웅비길	경부선 철로변 지역에 있다 철로와 같이 곧고 기운차게 활동하자는 의미다
	담소길	빌라와 주택이 많은 지역에 있다 사이 좋은 이웃이 되자는 의미다
	동화길	공장단지 내에 있다 노사가 함께 화합하여 잘 살자는 의미다
	융화길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있다 화목하게 잘 살자는 의미다
	동성길	여러 계층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각종 사안에 대해 견해나 의견을 한데 모아 같이 함으로써 한마음으로 정을 나누며 살자는 의지를 뜻한다
	대영길	공장과 주택 지역이 있는 도로며, 다 같이 크게 번영하자는 소망을 담고 있다
	창공길	공장과 주택 사이에 있는 도로다 깨끗한 공장 환경이 조성되고 자연을 보호하여 푸른 하늘을 항상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공명길	주택 밀집 지역인 관계로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교육열을 반영하여 공명을 세우는 인물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담고 있다
	홍성1~2로	덕천시장을 통과하는 길 경기가 왕성하고 번창하여 안양7동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즐겨 찾는 시장이 되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안양7동	영재길	연립주택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있으며 뛰어난재주와 지혜를 가진 어린이가 많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뜻을 담고 있다
	자애길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같이 있는 복지회관이 있는 지역의 길이다 아랫사람에게 두터운 사랑을 전하며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정길	공장 옆 하전이 흐르는 도로인데, 공장의 폐수로부터 하전이 보호되고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성업길	도로변에 각종 사업체가 있어서, 사업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고 있다
	아지길	아름답고 풍지있는 도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안양8동	매진1~2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자는 뜻의 이름이다
	한빛길	밝은 도로라는 뜻이다
	송풍로	술숯을 스치어 부는 바람처럼 산뜻하게 남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긴 이름이다
안양9동	자미로	백일홍 같이 아름다운 길임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정수로	신양지약수터로 가는 길이다 항상 맑은 물이 솟아나기를 기원하는 이름이다
석수1동	지란길	지란지교(芝蘭之交)에서 따온 이름이다
	관포길	관포지교(管鮑之交)에서 따온 이름이다 관중과 포숙의 고사처럼 우정을 소중히 하자는 교훈을 담은 이름이다
	유통길	흐르는 시냇물처럼 주민 사이에 좋은 마음이 흐르게 하자는 의미다
	화심길	화훼농장이 있는 곳으로, 꽃처럼 아름다워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번창길	안양예술공원(옛 안양유원지)의 간선도로로 식당이 운집한 곳이다 항상 번창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은행1~5로	은행나무가 많은 곳으로, 은행나무처럼 장수하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았다
석수2동	덕성길	어질고 너그러운 성품을 쌓아 후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자는 의미다
	성서길	전주교회가 길의 중심에 있으며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자는 소망이 담겨 있다
	경배길	노인들을 공경하자는 의미다
	공화길	석수2동의 중심 길이며 주민이 화합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는 의미다
	정안길	푸른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고요하고 편안한 곳이란 뜻이다
석수3동	화평길	주민 사이에 늘 화목하고 평화스럽게 친목을 다짐하자는 기원을 담았다
	가화길	항상 동네에 아름다운 이야기와 경사스러운 징조가 있기를 기원하는 이름이다
	정단길	늘 상쾌하고 맑은 아침을 대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반영되었다
	심월로	도를 닦는 마음을 밝은 달에 비유하여, 달처럼 맑고 티없이 살자는 의미다
	동유길	어린이를 상징하는 뜻이며, 어린이를 사랑하자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다
	호전길	호전은 넓고 큰 하늘 이라는 뜻으로, 부모의 은혜가 하늘과 같음을 의미한다
박달동	웅성길	박달시장 중심도로이며 시장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
	홍일로	새벽의 붉은 해를 뜻한다 항상 일출을 대하듯 근면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덕정로	덕으로 동만을 편히 보살피자는 의지를 반영하는 이름이다
	보배길	서로 돕고 모자라는 것은 보태고자하는 의지를 담은 이름이다

박달동	방전길	관내소방도로다 관내주민을 보호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보정길	주민모두 총익인간이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효경길	효행과 공경을 강조하는 이름이다
	연미길	부드럽고 아름다운 길이 되기를 바라는 이름이다
	애징길	애정을 부르듯이 주민끼리 다정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이름이다
	경민길	관공서가 위치한 길로, 주민을 공경하자는 계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홍명1~2로	홍명은 근명성과 분명함을 뜻하는 말이다
	새실로	새로운 열매를 뜻한다
	양오길	양오(陽鳥)는 태양의 별칭이며 태양처럼 밝게 살자는 의지를 나타낸다
	연지길	연지(連枝)는 형제자매를 뜻하는 한자어다 이웃들이 형제자매처럼 다정하게 지내자는 소망이 담긴 이름이다
	용지길	용기와 지혜를 뜻하는 이름이다
	다정길	다정함이 넘치기를 바라는 이름이다

도로의 형태 및 기능에서 유래한 도로명

구분	지명	내용
안양1동	신용길	한주상호신용금고 대양상호신용금고 안양상호신용금고 등이 위치해 있다 신용길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신용금고들이 많이 위치한 것을 가리킨다 신용을 쌓고 지키자는 소망도 담고 있다
안양2동	향림1~4로	원래는 살구나무 행(杏) 지였는데 발음상 향으로 대체하였다 과거에 살구나무가 많았음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주변에 향림아파트가 위치해 있다
	문화1~6로	문화센터 복지회관 초등학교 등이 모여 있는 특성을 반영한 이름이다
	철도길	예전에 병목안재석장으로 가던 철도가 있던 길이다
안양3동	양지바른길	양지마을 내 양지바른 곳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안양4동	포목길	중앙재래시장 내 포목점이 모여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름이다
	청바지길	예전에 청바지를 파는 옷가게가 즐비한 거리의 특성을 반영한 이름이다 현재도 중앙시장 내에 존재한다
안양5동	가마길	항아리를 만들던 지역의 길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항아리길	항아리를 만들던 지역의 길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웅기1~3로	항아리를 만들던 지역의 길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웅기로 종기로 라는 이름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지금은 통합되어 웅기로만 남았다
안양7동	샘물길	샘물이 있었던 사실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뜰안길	동네 안길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사북길	옛날 사북다리가 있던 지역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원터길	옛날 원두막이 있던 지역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안양8동	노루뻘이길	예전의농경지로노루들이공을먹으러왔다하여노루뻘이라고불리던지역이름을 반영한다
석수1동	동산길	옛날에조그만동산이있던곳이었음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석수2동	장터길	석수시장의주요 길목이다 예전에장이열리던곳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저자길	석수시장의주요 길목이다 예전저자거리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전원1~2로	전원주택이밀집되어 있는 곳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석수3동	다솔길	소나무가 많았던 곳임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밤발길	옛날밤나무가무성했던 특성이 반영된 이름이다
	중정길	뜰의복판을 장하며 충훈부의중앙에 위치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대동길	대동은 큰 동네를 지칭하는 말이다 충훈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변화한 환경을 나타낸다
	심장길	충훈부의중심부를 관통하는 도로를 의미한다
박달1동	두령길	예전에논밭이있던지역에 위치한 작은 길이라는 의미다
	율전길	밤나무가 많았던 밭이었음을 의미한다
	솔모랭이길	소나무가 많았던 곳으로 길이반달모양으로 휘어져 있으며 모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솔방울길	솔모랭이길과 짝을 맞추는 이름이다
	양천길	순미천이 두 갈래로 흐르는 곳에 있다 개울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길의 의미다
	주미길	주미(酒味)는 주막이 있던 자리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송정길	소나무가 우거졌던 곳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역사와 인물에 유래한 도로명

구분	지명	내용
안양1동	행궁길	정조대왕이 수원으로 부왕 사도세자의 현릉원 참배를 다닐 때 쉬어 가던 행궁이 있는 곳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원태우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애국지사 원태우의 출생지 지역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안양2동	선영길	이 지역 출신 열녀의 효행과 인품을 본받고 기리기 위해 그 이름을 따왔다
안양4동	율원1~3로	예전 안양4동 일대가 밤나무 동산이었다 과거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이름이다
안양5동	법장1~2로	고국회의원 권수창의 집주변길로, 법장은 권수창 의원의 호이다
	서당길	옛날 임금의 서당을 지어 학문을 가르치도록 명한 곳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안양6동	능행1~10로	안양발전의 토대가 되었던 정조의 능행을 기리기 위한 이름이다
	만수1~6로	옛날에 있었던 만수원의 이름을 반영했다
안양8동	효행1~4로	정조 능행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정조가 화성 현릉원 참배길에 명학바위를 지키게 하려고 이 근처에 장교와 적사를 배치했다고 한다
석수1동	조건로	조선건직터가 있던 자리다 조선의 조 건직의 건 자를 따왔다
박달1동	어수길	임금이 마셨다는 우물 이름을 반영했다

고개를 통해서 본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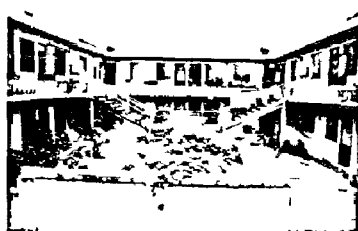
구분	지명	내용
안양2동	오미(烏尾)고개	안양고등학교에서 석수동으로 가는 구길에 위치한 고개. 오미산에 있는 고개라 하여 산명을 취해 오미(烏尾)고개라 칭한다
안양6동	형제(兄弟)고개	안양초등학교 동편 만안로에 있던 고개. 길마형의 두 고개가 흡사 형제같다 하여 형제고개라 칭했는데 일제강점기에 도로를 정비하면서 고개를 낮추었다
석수1동 석수2동	서리재고개	동아제약 입구에 있는 안양육교(安養陸橋) 부근이 원래는 높은 고개였는데 구한말에 경부선 철도를 부설하면서 고개를 평탄하게 하였다. 현재는 솔개고개(鶻峴)라 칭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곳 일대가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졌을 뿐만 아니라 으스스한 곳이라 과거를 보러가는 과객이나 보부상(報負商) 행인(行人) 등이 한양을 가지면 반드시 이 고개를 거쳐야 했는데, 그때마다 으레 산적과 강도의 습격을 받아 빈털터리가 되곤 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의 연현마을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이곳이 농경지여서 참외, 수박 등 청과물을 이들 산적과 강도가 떼를 지어 서리를 해가는 바람에 농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시흥(금전) 현령이 골머리를 앓곤 했다고 한다
박달2동	박달(博達)고개	범고개 마을과 붓골 사이에 있다. 예전에 이 고개를 넘어야 원박달리를 갈 수 있다 하여 박달고개라 칭했다. 비포장 소로이다
	범고개(虎峴)	박달동 범고개 마을과 시흥시 목감동 더뎡물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범고개 주민이 더뎡물을 왕래할 때 다니는 고개라 하여 더뎡물고개라 부른다. 예전에는 고개 길이 험하고 으스스해서 강도, 도둑 등이 득실거려 도둑놈고개라 불렀다. 이 고개 유래에 대하여 여러 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조 중엽 범고개 마을에 어느 부자(파평 윤씨)라고 함의 시종을 범이 물고 이 고개를 넘어 시흥시 목감동 방향으로 간 데 유래했다는 설 둘째, 이 고개 산중턱에 호랑이가 다들 조아리고 고개 길을 향해 응시하고 있는 범바위에서 유래했다는 설 셋째, 일제강점기 초까지만 해도 고개 길이 험준하고 삼림이 울창해 으스스해서 범이 많아 이 고개를 넘자면 장정 5명이상이 함께 동행해야 무사히 지나쳤다는 범의 서식지설 등이다 이 고개는 1976년 안양-수인 산업도로 간 포장공사 때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었으며 1991년에 박달로 확장공사로 4차선으로 확정되었다
	장군재(張君叢)고개	예전에 안산(주로 시흥시 조남동 장군재) 사람들이 안양 다닐 때 이용하던 고개. 헛골과 장군재 사이에 있다. 비포장 소로로 이미 폐로가 되었다. 고개 마루터기에 서낭이 있었다. 장군재 사람들은 헛골고개라 칭한다 × 장군재 조선조 인조 때 인조반정 공신으로 신평부원군(新豐府院君)에 봉해진 장유(張維, 1587~1638)의 묘가 시흥시 조남동 장군재에 있는데 장(張)은 장유에서 군(君)은 부원군에서 각각 취함
	정문(旌門)고개	범고개 마을과 군용지 사이에 있는 고개. 예전에 이곳에 임진왜란 때 충신으로 숙종 34년(1708)에 명정(命旌)된 구만의 정문(旌門)이 있어 정문고개라 했는데, 이 정문은 일제강점기 때 군용지가 건설되면서 훼손되었다고 한다. 고개가 낮으며 현재는 군용지에 속해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다. 박달동 주민은 범고개라 불렀다고 한다

골목길, 삶의 문화가 숨쉴다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만안구 골목길은 뽀뽀뽀 어린아이가 줄을 그은 듯한 자연스러움이 그대로 배여 있다 만안구의 골목길은 흑백사진같이 시간이 정지된 느낌이다

술래잡기, 무등타기, 자치기, 구슬치기 등 유년시절의 향수가 사라진 지 오래지만 그 래도 골목에는 삶의 문화가 숨 쉰다 머리카락 장수, 칼 가는 아저씨, 메밀묵 장수, 생선장 수, 동동구리모 아줌마, 옛장수, 뽕푸는 아저씨 등 골목을 오가며 삶의 소리가 묻어나던 곳 이 골목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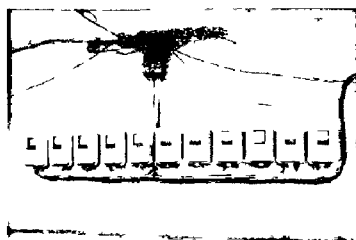
시멘트를 거칠게 발라놓은 만안구의 골목은 삶의 문화가 숨 쉬고 있다 때로는 아이들 의 놀이터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어린이들의 쉼터가 되기도 한다 골목길로 나온 평상은 쾌 적한 거실을 대신하며 마을사랑방이 되기도 한다



덕전마을 공동주거 전경 얼마 지나지 않는 과거에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집을 꿈꾸는 건축물이 있었다



덕전마을 공동주거 중정 마당 한가운 데는 정원으로 가꾸어져 있어 화려함 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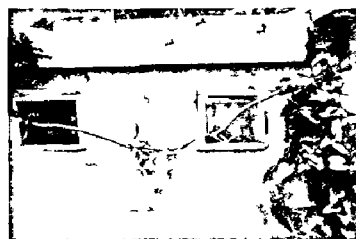
덕전마을 공동주거 계랑기 하나로 와 서 여럿으로 되고 여럿이 모여 하나 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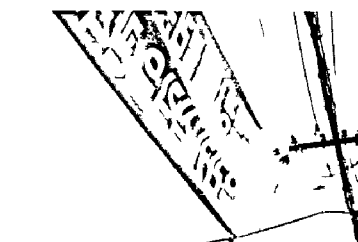
덕전마을 공동주거 작은 채소밭 넓지 않지만 어느 대형마트보다 더욱더 싱 싱한 채소를 제공해 준다



덕전마을 거리 풍경 골목길은 또 하나 의 생활공간이다



덕전마을 골목길 화장실 장문 센스 있 는 나뭇가지가 화장실의 부끄러움을 가려준다



덕전마을 재개발 반대 현수막 주민은 그들 스스로 생존의 길을 찾고 있다



냉전마을 은혜슈퍼 할머니 모진 세월 을 다 보내시고 우리에게 추억의 골목 길을 선물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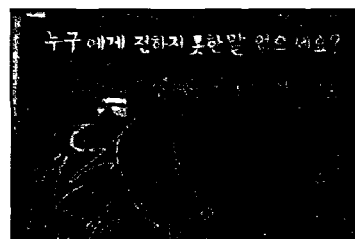
냉전마을 은혜식품 간판 세월의 흔적 을 간직하고 있는 은혜식품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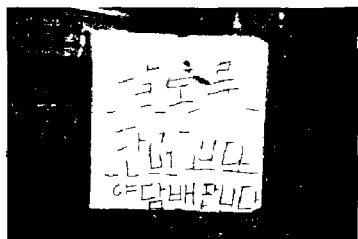
냉전마을 은혜슈퍼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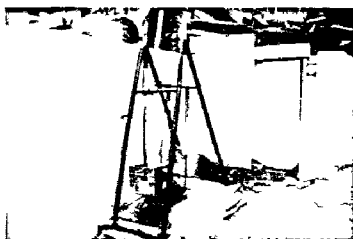
냉전마을 은혜슈퍼 누구나다-방 약간의 관심으로 버려진 공간이 다-방이 되었다



냉전마을 은혜슈퍼 누구나다-방 스저 지나가는 길에 흔적을 남기면 추억이 되어 돌아온다



냉전마을 은혜슈퍼 말보루 판매합니다 양담배 팝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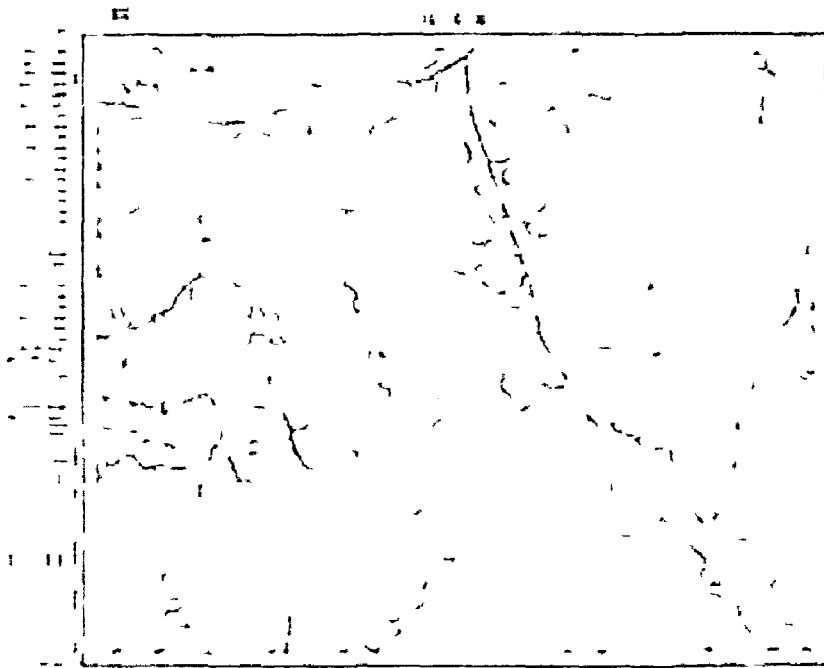
냉전마을 은혜슈퍼 앞 놀이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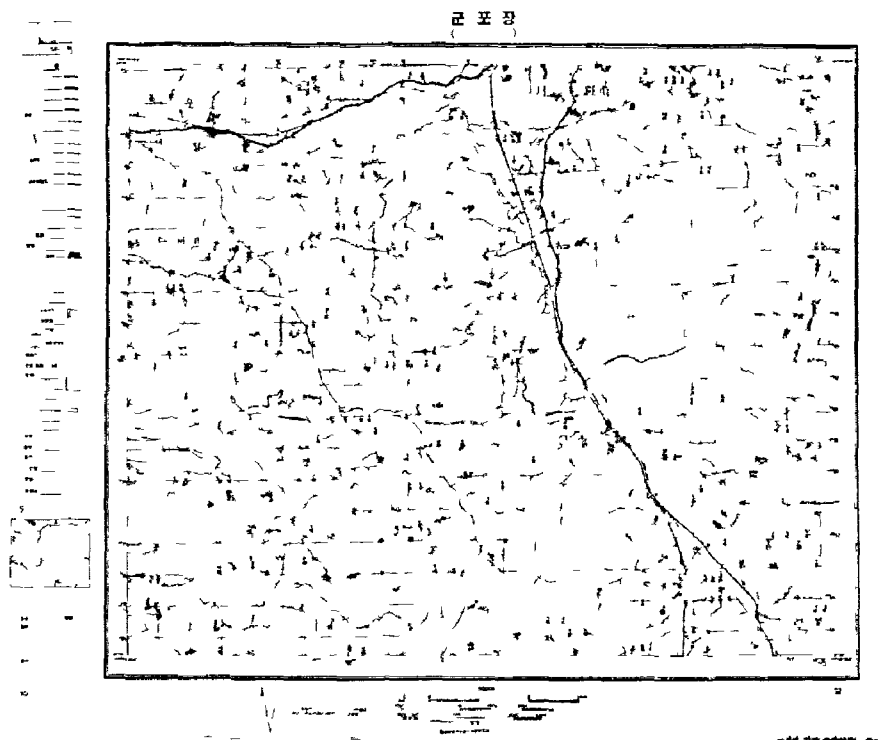
냉전마을 골목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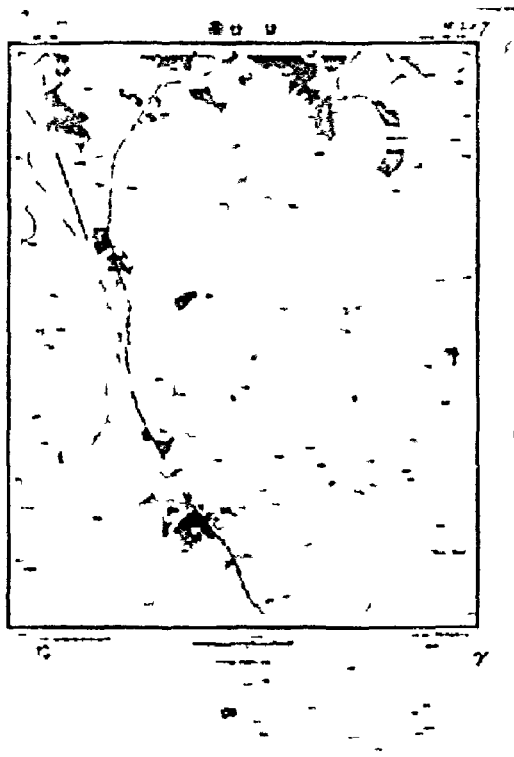
냉전마을 골목길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냉전마을 골목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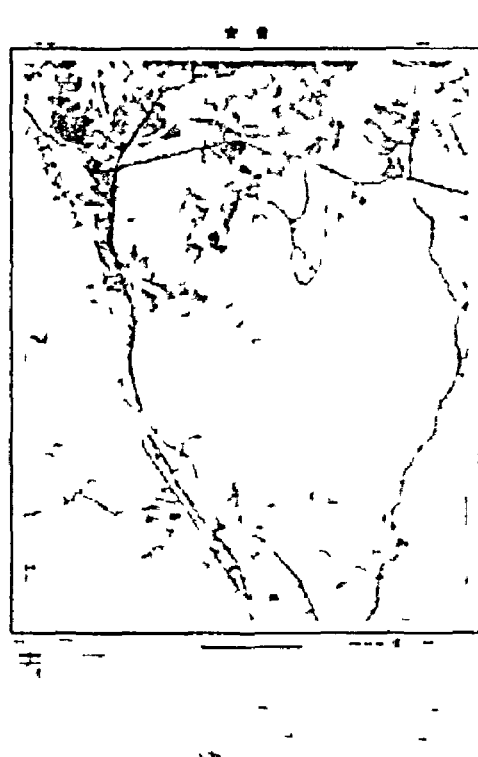
1918년 일본강점기 안양 지도 오른쪽 아래 평지가 평촌이다



1959년 안양지도 안양역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있다



1970년 안양지도 안양역 주변은 더욱 확장하고 도시는 석수동 박달동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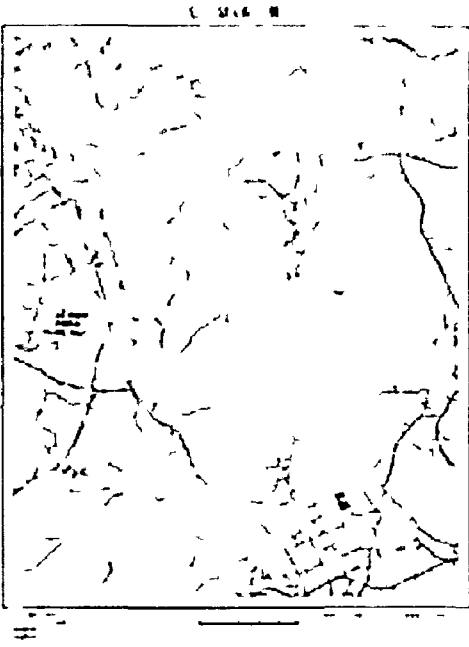
1978년 안양지도 도시의 확장은 비산동까지 이어진다



1988년 안양지도 안양시는 10년 사이에 급격한 확장이 진행되었다 평촌은 논밭으로 표시되어 있다



1996년 안양지도 평촌신도시의 등장으로 안양은 다시 한번 급격한 확장을 한다



2004년 안양지도 서서히 도시의 확장이 정제되고 있다